

크리스찬아카데미-NCCK 공동기획 연속토론회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와 교회

특별
프로그램

“코로나 시대, 개신교인의 사회인식에 질문하다”

2021년 1월 11일(월) 오후 6시

 줌 회의

링크: <https://url.kr/bs3GS1>

ID: 984 2274 8321

암호: ncck

 유튜브 생중계 

<https://youtu.be/jxqLISZeczo>

공동주최 크리스찬아카데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주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순서

사회 강석훈 국장 (NCCK)

1부. 발제

발제 1. 정치 분야 이상철 박사 (크리스찬아카데미 원장)

발제 2. 경제, 생태/환경 분야 신익상 박사 (성공회대학교)

발제 3. 통일 안보 분야 김상덕 박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

발제 4. 사회/젠더 분야 송진순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발제 5. 신앙 분야 이민형 박사 (연세대학교)

2부. 토론 + 총평

토론 이병성 이진형 허석헌 강세희 김혜령

총평 손승호 박사 (NCCK)

목 차

연구보고서

연 구 개 요	1
2020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정치 분야):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드러난 한국개신교의 시민성	8
한국 개신교인을 설명하는 ‘인간’: 호모 이코노미쿠스	26
새로운 생태교회의 모색: 청지기론에서 지구의 권리로	32
통일 및 안보에 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두 가지 안보 위협에 대한 두 가지 반응	38
코로나19가 가져온 불평등의 얼굴: 개신교인의 혐오도 심화와 사회구원 사이의 갈등 ...	45
코로나19 이후의 개신교 신앙 지형	53

부 록

부 록 1. 설문응답 및 그래프	61
부 록 2. 설 문 지	148

제 1 부. 연구 개요



2020년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1. 연구사업 목적 및 지향

(사)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급변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주요 쟁점들 가운데 특별히 개신교계에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주제를 선별하여 그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 현황을 조사하고 동시에 비개신교인의 인식과 비교함으로써, 일부 개신교 진영으로부터 촉발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개신교인의 신앙 및 종교 생활 정도가 동시대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묻고자 정치, 경제, 생태/환경, 사회/젠더, 통일 및 안보, 신앙 등의 분야에 걸쳐 그들의 사회인식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연령, 성별, 지역, 소득/계층, 종교 및 신앙의 정도에 따른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다종교 및 다원화 사회인 대한민국의 특성에 따라, 개신교를 포함한 주요 종단 종교인들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 현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밝혀내고 그 원인을 개신교인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념적, 정치적, 종교적 갈등의 실체를 밝혀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간, 화해와 상생을 위해 개신교와 개신교인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을 제시하고 변화된 사회적 상황 가운데 개신교와 개신교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 연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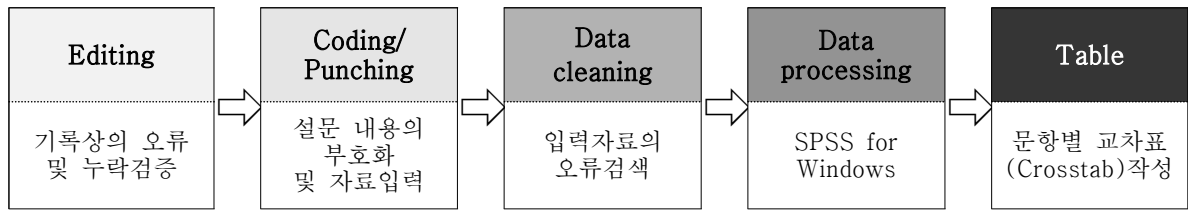
- ◎ 책임연구원: 김상덕 박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
신익상 박사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 ◎ 연구원: 송진순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외래교수)
이상철 박사 (크리스찬아카데미 원장)
이민형 박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책임연구원)

3.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 대상자	19세 이상 개신교인
조사 지역	전국
표본 크기	1000명
조사 방법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표본추출 방법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인구 기준(센서스 결과) 비례할당 추출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3.1\%$
조사 기간	7월 21일 ~ 7월 29일

4. 자료입력 및 분석

- 자료검증
 - 입력된 자료는 검증 시스템 기준에 따라 불성실 응답 설문은 제외
 - 입력된 자료는 자료처리 과정에서 내검 프로그램에 의해 2차 검증
- 다단계 검증과정에서 최종 합격된 자료를 SPSS for Windows(통계 패키지 프로그램)를 이용해 전산처리
- 분석방법
 - 열(Row)에 따라 모든 백분율(%) 산출
 - 중복응답의 경우, 카테고리의 사례수를 전체 사례수에 근거하여 백분율 산출
 - 자료는 기본적인 응답자 특성에 따라 문항별로 교차분석
 - 가중치 부여 : 온라인조사 특성 상 화이트컬러 직업군이 많아 직업에 따른 가중치(림가중)적용함
- 자료해석상의 유의점
 - 표본조사는 일정 수준의 표본오차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례수의 관찰치(Observed Percentage)에 따른 표본오차(Sampling Error)를 고려해야 함



5. 설문조사 수행기관

- (주)지앤컴리서치
- 책임연구원 : 지용근 대표이사
- 담당연구원 : 김진양, 송예슬
- www.jicom.co.kr (02-322-0726)

6. 응답자 특성

[전 체]		사례수	%
		(1000)	100.0
성별	남성	(446)	44.6
	여성	(554)	55.4
연령	19-29세	(174)	17.4
	30-39세	(204)	20.4
	40-49세	(245)	24.5
	50-59세	(229)	22.9
	60-69세	(148)	14.8
지역	서울	(249)	24.9
	경기/인천	(349)	34.9
	충청	(103)	10.3
	광주/전라	(115)	11.5
	대구/경북	(64)	6.4
	부산/울산/경남	(90)	9.0
	강원/제주	(30)	3.0
직업	자영업	(143)	14.3
	블루칼라	(150)	15.0
	화이트칼라	(313)	31.3
	전업주부	(175)	17.5
	학생	(77)	7.7
	기타/무직	(142)	14.2
결혼여부	기혼	(630)	63.0
	미혼	(339)	33.9
	기타(이혼, 사별 등)	(31)	3.1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91)	29.1
	300~500만원 미만	(360)	36.0
	500~700만원 미만	(212)	21.2
	700만원 이상	(137)	13.7
직분	중직자	(157)	15.7
	서리집사/권찰	(273)	27.3
	직분없는 성도	(570)	57.0
예배참석빈도	주 3회 이상	(154)	15.4
	주 1~2회	(492)	49.2
	월 3회 이하	(203)	20.3
	교회 안 나감	(151)	15.1
교인수	99명 이하	(273)	27.3
	100~499명	(276)	27.6
	500~999명	(124)	12.4
	1000명 이상	(327)	32.7

제 2 부. 연구 발표



2020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정치 분야):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드러난 한국개신교의 시민성

이 상 철
(크리스찬아카데미 원장
한신대 겸임교수/기독교윤리)

1. 서론: 정치분야의 코로나 19를 둘러싼 전제, 혹은 문제의식

코로나 19 창궐이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코로나 19에 대한 담론이 백가쟁명식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그중 내가 인상 깊게 접한 책은 지젝의 <팬데믹 패닉>¹⁾이다. 지젝은 코로나 19를 세계화의 한계와 종말을 지시하는 징후적 사건으로 파악한다. 자본의, 자본에 의한 전 지구적 재편은 국경의 해체와 지역과 문화의 차이를 해소시켜 하나 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같으나, 그 과정에서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은 도태되고, 오직 자본의 논리만이 정언명법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전체주의의 탄생을 야기 시켰다. 그 결과 오히려 시대가 거듭될수록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는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시민의 힘은 약화되었다고 지젝은 지적한다. 2008년 금융대란은 사실상 세계화의 종말을 고한 사건이었다. 이런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를 저지할 수 있는 세력은 쉽게 등장하지 않았다. 그런데 도적같이 도래한 코로나 19가 현 시스템에 대한 체질 개선 혹은 대안적 가치에 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방역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세계화 과정에서 왜소해진 국가권력의 부활을 놓고 전개되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리와 작동방식에 대한 논쟁은 그것을 드러내는 예라 할 수 있다. 코로나 19의 발생지로 중국 우한이 지목되자 중국은 국가적 방역에 대한 총동원령을 선포하였고,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그 후 중국에서 소강상태로 접어든 코로나 19는 유럽과 북미 등 서방으로 빠르게 번져 사회적 재앙으로 확대되는 조짐을 보였다. 이에 중국은 성공한 자신들의 방역에 체제 경쟁적 해석을 부과하였는데, 그것의 골자는 자유민주주의보다 체제통합적 권위주의가 낫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중국의 체제선전에 서방은 중국에 대한 반론으로 한국을 내세웠다.

워싱턴포스트(3/11)는 한국의 개방성과 투명성이 코로나 19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고 평가하면서, “민주주의가 코로나 19에 맞설 수 있다는 걸 한국이 보여줬다”는 중국 견제성 보도를 내보냈고, 다른 서방의 주요 언론들도 비슷한 논조로 ‘K 방역’을 높이 평가하였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났다. 미국을 비롯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에서 코로나 19가 견잡을 수 없게 확산되어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서방언론의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때가 그 무렵이었다. ‘K 방역’이 민주적 개방성과 투명성, 높은 시민의식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면, 그런 가치들의 본고장이라 자부하는 유럽과 미국은 무엇이 되는가! 이때부터 한국을, 중국이 맹주로 있는 동아시아 문명, 유교문명 속에 위치시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했고, 프랑스 사회학자 기 소르망의 발언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출몰한 사건이었다.

2020년 4월 27일 프랑스 한 주간지와와의 대담에서 기 소르망은 한국의 코로나 19대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교문화가 선별적 격리 조치의 성공에 기여했다. 한국인들에게 개인은 집단 다음이다. 한국은 심한 감시 사회다.” 기 소르망의 발언에는 서방은 개방적이고, 국민들의 자유를 중시하며, 정부에 대해 뼈뺌하게 바라보는 근대적 시민의식이 뛰어나다는 우월감이 깔려있다. 방역에 비교적 성공적인 한국

1) 슬라보예 지젝/강우성 옮김, 『팬데믹 패닉』 (서울: 북하우스, 2020)

이나 중국 같은 유교문화권에서는 권위주의, 집단주의,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의 논리가 강하다는 생각은 서구인들의 식민주의적 편견에 사로잡힌 일종의 집단무의식 아닐는지. 이 논쟁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 19를 통해 귀환한 강력한 국가주의를 둘러싼 미묘한 온도차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 갈등과 긴장, 고의적으로 동양을 열등한 타자로 바라보는 오래된 서구의 시선,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려는 심리 등 많은 역학이 숨겨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정국에서 국가주의의 도래와 관련하여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사안이다. 국가주의의 틀을 넘어 협력과 연대를 추구하는 지구촌공동체로 갈 것 인가? 아니면 “나부터 살고보자!”를 모토로 타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더욱 강화하는 국가시스템으로 갈 것 인가? 코로나 19 시대를 맞아 우리는, 물론 바이러스의 정체를 묻고 따져야 하겠지만,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상상해야 한다. 공동체끼리의 연대와 협력인지, 아니면 고립과 배제인지를 놓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본 조사단은 코로나 19 이후 개신교인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치분야에서 포커스를 두었던 쟁점은 코로나 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K-방역을 지탱하는 한국인의 정치의식, 특별히 한국개신교인의 시민성을 추적하는 것이다. 그것은 크게 보아서 개인주의적 성향과 공동체주의적 성향 중 어느 것에 더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것이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권위주의와 순응주의, 민주주의와 개인, 그리고 평등에 대한 감각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미로를 헤매는 과정이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 개신교인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소홀하게 취급하지도 않는 시민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 개인적 위기가 발생 시 개인윤리의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을 보였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보자면 공동체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체제와 권위에 대한 부조리의 문제에 있어 예민하지 못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기도 했다.

아울러 본 정치분야 인식조사에서는 코로나 19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취약계층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문제와 연동하여 차별금지법 관련 개신교인 인식조사도 더불어 실시하였다. 지면상 관계상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고 보론의 형식으로 따로 분량을 확보하여 ‘한국개신교와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뒤에 순서를 마련하였음을 밝힌다.

2. 한국개신교인 정치적 성향: 중도> 진보> 보수 順

귀하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묻는 설문에서 개신교인들의 39.8%가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도라 표시하였다. ‘진보’라고 답한 비율은 31.4%, ‘보수’라고 응답한 비율은 28.8%로 나타났다. 신앙의 정도가 깊어질 수록(입문층 21.6%, 인지층 28.2%, 친밀층 31.3%, 중심층 36.0%) 보수적 성향으로 흘렀고, 개신교인 남성이(32.6%) 개신교인 여성(25.8%)보다 더 보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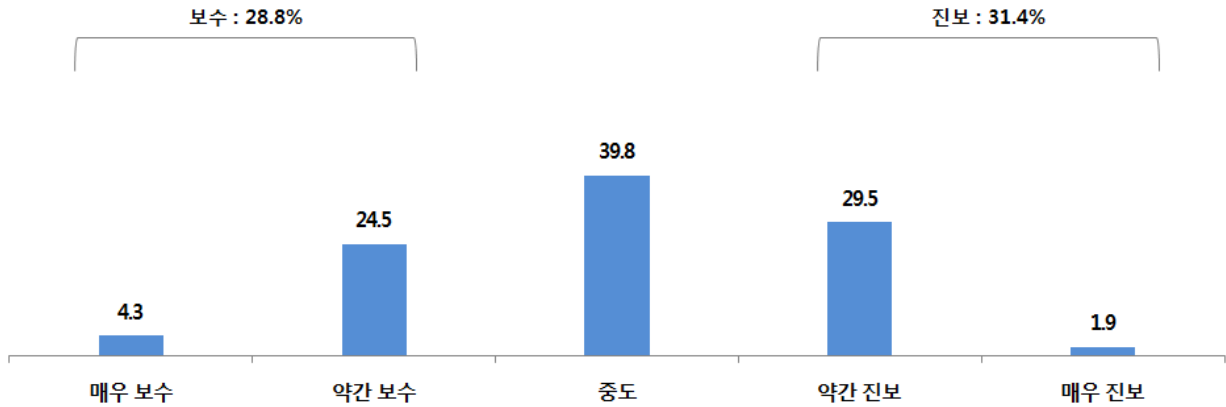


그림 1. 개신교인 정치적 성향

흥미로운 것은 연령대별 조사결과 인데 개신교인 40대는 진보성향(40.4%)이 보수성향(21.5%)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이와는 반대로 60대 이상에서는 보수성향이(43.0%) 진보성향(21.3%)에 비해 2배 높게 나왔다. 20대는 중도(49.1%)라고 표시한 비율이 전 세대를 거쳐서도 가장 높은 비율로 이 나 타났고, 20대 보수 응답자는 22.3%, 진보 응답자는 28.6로 나왔는데, 60대를 제외한 진보라고 응답한 비 율 중 2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20대 개신교인의 보수화는 작년(2019년) 인식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두드러진다. 2019년 경우 보수 12.7%, 진보 39.8%, 중도 47.5% 였는데, 2020년은 보수 22.3%, 진보 28.6%, 중도 49.1%로 조사 되었 다. 중도의 경우는 별 차이 없는데 진보표가 10% 빠져 그대로 보수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년 사이에 20대 보수화가 강화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가능하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실물경제의 침체와 그에 따른 취업과 알바시장의 붕괴가 청년들에게 피부로 다가왔을 것이고,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은 오르는 집값을 잡기는커녕 더욱 부추기는 현상을 불러왔다. 청년들에게 내 집마련의 꿈은 요원한 세 상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보수로 회귀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 여기에서 조국과 추미애 장관 의 경우에서 보듯이 부모찬스를 통한 특혜는 청년들에게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면서 현실에 대한 인 식에 있어 부정적 인식의 계기를 선사하였다. 이런 요소들이 모두 결합되어 청년 일반의 보수화를 추동시 키고 있는 것이 아닐는지.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로 본 연구단은 2019년에도 개신교인 정치성향에 대해 조사한바 있는데 1년 전과 비교할 때, 이번 조사에서 진보라고 답한 비율은 전년(2019년 32.0%)비율과 별 차이가 없었으나, 보수라고 답한 비율은 전 년(2019년 21.4%)에 비해 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의 비율은 작년에(2019년 46.6%)비해 7% 정도 빠졌는데, 그 비율이 보수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개신교내 보수응답자의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여 러 차원에서 연구를 지속해야 할 성질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안정을 희구하는 보수 성향 을 유발시켰다고 가정할 수 볼 수 있다. 특별히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확장 되었고, 그에 따른 집단주의, 권위주의, 순응주의적인 보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는 추측을 할 수 있겠 다. 과연 이런 전제가 맞는지를 이어지는 인식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해보기로 하겠다.

3. 한국개신교의 시민성 엿보기 (I): 공동체와 개인

1) 공동체의 이익 > 개인의 이익

개인과 전체의 문제는 오랫동안 이어져왔던 윤리학과 정치철학의 문제였는데, 코로나 19는 이런 실천 철학의 오래된 화두를 다시 우리들에게 소환하였다. 코로나 19 국면이 길어지고 방역에 대한 관심이 고취되면서 다음과 같은 현실 인식이 우리사회에 퍼졌다. 코로나 19의 치사율은 높은 편이 아니다. 반면 전염성은 강하다. 이 말은 개인의 건강보다는 공중보건, 사회적 관계, 방역 등이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는 의미다. 이에 본 연구단은 코로나 19가 창궐하고 K-방역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속에서 개신교인들을 상대로 사회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림 2. 사회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한다

‘사회적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물음에 동의(64.3%)라고 답한 비율이 비동의(28.1%)라 답한 비율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점은 개신교적 시민성의 기저에 공동체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전제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답안을 더 구체적으로 쪼개어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선택의 우선순위에 대해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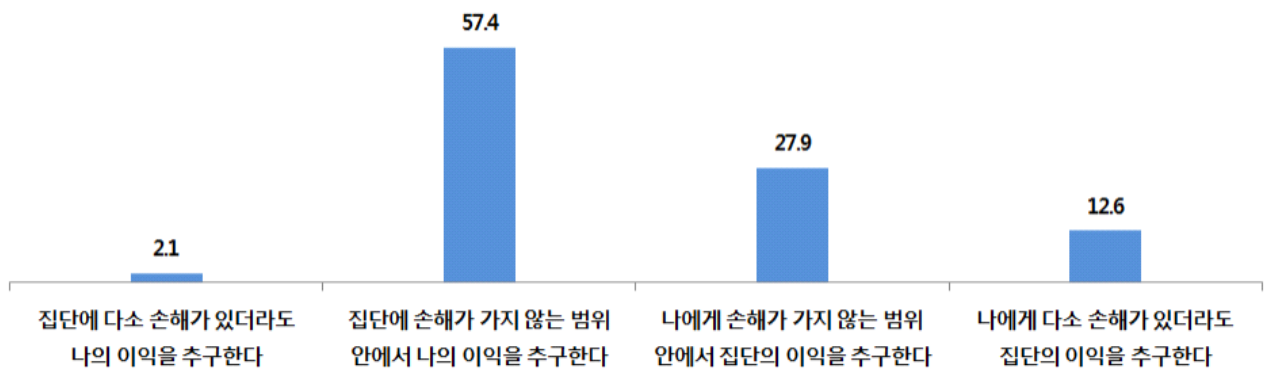


그림 3.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 상충 시 추구 방향

개신교인의 57.4%는 ‘집단에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나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에 30대(65.1%)와 40대(63.1%)는 평균치를 웃도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 순위는 ‘나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집단 이익 추구(27.9%)’하는 것이었다. 이에 답한 20대(36.9%)의 비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 월등

히 높았다.

‘집단에 손해가 있더라도 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20대에서 평균치(2.1%)보다 2배 이상 높은 4.9%로 조사되었고, ‘나에게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평균치(12.6%)보다 50대(17.9%)와 60대 이상(20.6%)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 하지만 연령대별로 이익추구에 대한 입장이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2) 공동체의 안녕 > 개인의 안녕

코로나19 감염이 두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나의 확진으로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것(39.8%), 내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는 것(33.7%), 나의 확진으로 모르는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13.5%)이 ‘나의 건강을 해치는 것(12.6%)’ 보다 높게 나왔다. 한국개신교인은 나보다는 나로 인해 가족 및 공동체에 해를 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공동체 중심의 가치관이 개인주의 성향보다 우선임을 재삼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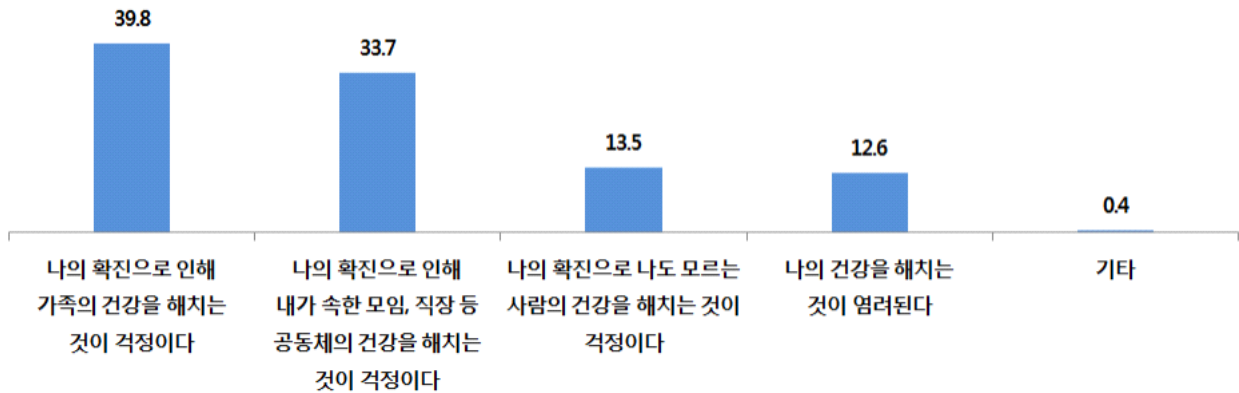


그림 4. 코로나19 감염 두려움의 이유

감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개인의 건강 때문이 아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함이다. 코로나 19 상황의 특별함이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개인 건강에 대한 염려, 질병에 대한 걱정보다는 공적 영역의 안전성 확보가 더 간절하고 시급한 문제로 부상한 것이다. 이것이 코로나 19 이후 개신교인의 시민성을 엿볼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아닐까 싶다.

4. 한국 개신교의 시민성 엿보기 (II): 개인의 권리와 자유

코로나 19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과제는 공공재를 함께 만들어가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공동체가 함께 어떤 목표를 향해 마음을 모으고 참여하는 과정은 소중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일정부분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 개신교의 시민성을 가늠하는 두 번째 의제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선정한 이유는 그래서였다. 공공재를 함께 만들어가는 최소한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을 여기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공공의 가치와 개인의 자유를 놓고 벌이는 코로나 19 상황 속 등장한 대표적인 이슈였고, 이에 대한 개신교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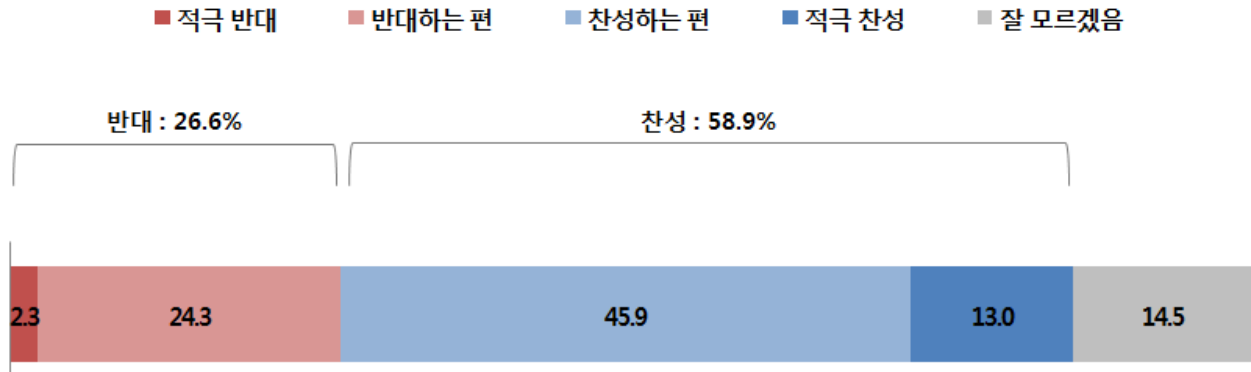


그림 5. 마스크 미착용 처벌에 대한 의견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물음에서 40.6%가 '이기적'이라 생각하고, 30.9%가 '사회적 해악'이라고 답을 했지만, 30% 가까운 개신교인이 '그럴 수 있다'거나 '개인의 선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마스크 미착용자 처벌에 대한 의견도 찬성(58.9%)의 비율이 높지만, 26.6%의 개신교인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1/3에 가까운 개신교인이 개인의 자유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개신교인들은 가족과 공동체에 피해를 입힐까봐 걱정하고, 방역지침을 잘 이행한다. 또한 국가의 의료/방역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절대적이다. '선진국 수준(23%)' 혹은 '선진국보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우수하다(71.9%)'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이런 통계들을 종합할 때 마스크 미착용자가 문제인 이유는 본인의 몸을 돌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어서 문제인 것이고, 집단의 건강을 위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도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기꺼이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고 희생하려는 측면이 한국의 개신교인들에게는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40%가 넘는 개신교인들이 선뜻 동의하지 않은 것은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여기서 한국 개신교인들이 지니는 시민성의 미묘함이 있다. 그들은 공동체성을 중시하는 시민인 동시에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가치도 존중하는 시민인 셈이다. 이러한 경향은 다양성을 묻는 인식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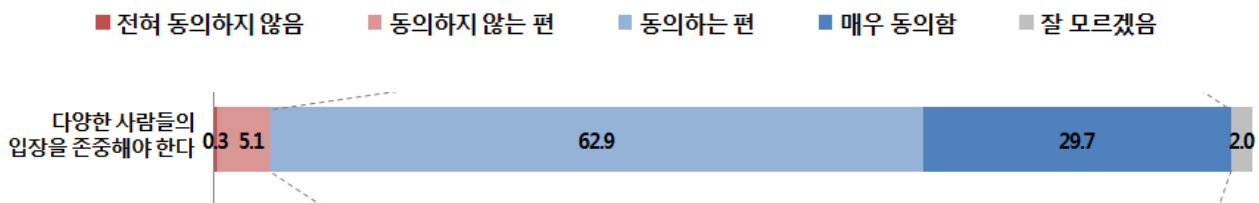


그림 6.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에 대한 견해

한국 개신교인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92.6%가 동의하였다.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의식의 기저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요소를 제한 할 수 있음이 깔려있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서는 안타깝지만 설편하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과감한 정리도 배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 19 정국에서 드러난 한국개신교인의 시민성은 공동체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노력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문제, 다양한 타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문제도 외면하지 않는 폭넓은 품을

지닌다.

5. 한국 개신교의 시민성 엿보기 (III):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간 부조화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바라보는 한국 개신교의 시민성에 대한 마지막은 관전 포인트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사이 발생하는 부조화이다. 코로나 19의 발생과 이에 대응하는 K-방역의 성공을 바라보는 개신교인들의 마음은 공동체 우선주의, 국가에 대한 신뢰성 고양, 국민적 자긍심 고조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기재로 작동할 수 있겠으나, 사회 문제의 원인을 근본에서부터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왜곡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단적인 예로 가난의 책임에 대해 가난은 사회의 문제인가, 아니면 개인의 문제인가? 개신교인들은 ‘개인의 책임(45.2%)’으로 가난의 원인을 지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사회의 책임이 크다’는 비율은 35.2%, ‘잘 모르겠다’는 19.6%로 나왔다.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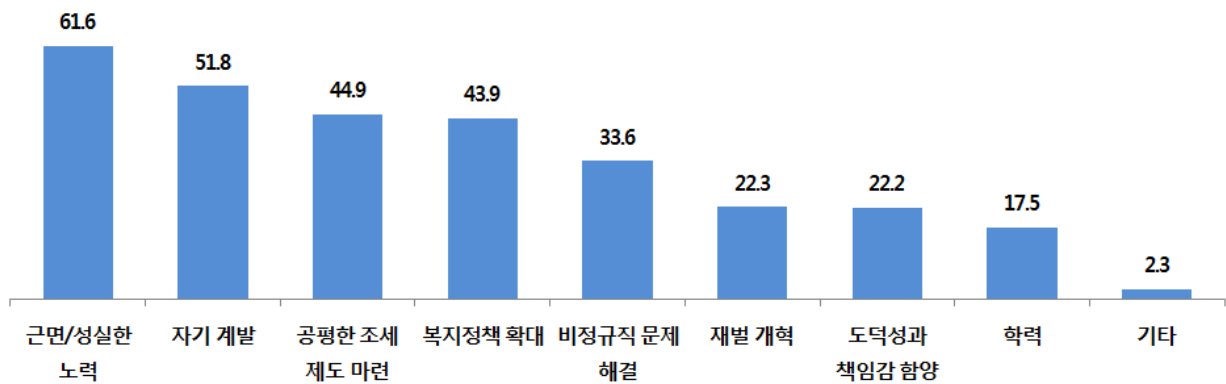


그림 7.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근면/성실한 노력(61.6)-> 자기 계발(51.8)->공평한 조세 제도 마련 순으로 가난극복 방법의 순위가 정해졌다. 연령이 높을수록 근면/성실이 높았고(60세 이상 83.1%,) 젊은 세대일수록 근면/성실(20대 52.5%, 30대 51.1%)의 비율이 낮았다. 경제발전을 이룬 산업화 세대와 IMF 이후 세대의 간의 현격한 인식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하지만 개신교인 20대와 30대 역시 강도는 기성세대에 비해 약하지만 가난극복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경향이 짙었다.²⁾

앞선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한국 개신교인들은 공동체 우선주의,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면모를 드러내 보였다. 하지만 사회문제는 개인의 희생과 인내만으로 극복이 안되는 경우

2) 20대: 근면/성실한 노력(52.5)-> 복지확대(50.7)->공평 조세(49)->자기계발(45.5)
 30대: 공평 조세(55.6)-> 자기계발(54.7)-> 근면/성실한 노력(51.1)->복지확대(39.8)
 40대: 근면/성실한 노력(61%)> 공평조세(48.2)->자기계발(48.1)
 50대: 근면/성실한 노력(64.4)-> 자기계발(50.6)-> 복지확대(44.7)
 60대: 근면/성실한 노력(83.1)->자기계발(63.3)-> 복지확대(37.7)

가 많다. 사회구조적 모순, 퇴행적 시스템이 변화하는 세상과 시민들의 의식을 따라잡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인식조사 결과에 나타난 한국개신교들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법은 대타자(사회, 교회, 국가)는 완전하다는 전제아래 주체가 결핍되어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사회문제를 개인윤리의 차원으로 축소하여 환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대목이다.

이는 자아심리학의 치료방법을 상기시킨다. 자아심리학에서 치료란 분열된 주체를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는 완벽하고 주체는 결핍이 있고 부족한 주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하여 자아심리학에서 치료란 세계와 사회는 완벽하다는 가정 하에 그에 적응하지 못하는 주체를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된다.

이것이 윤리학의 차원으로 전환되면 개인윤리가 된다. 나의 가난은 나의 게으름과 노력 부족과 자기계발을 하지 못한 무능에 비롯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사회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자기계발을 해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는 육상경기처럼 좀처럼, 아니 이제는 절대로 성실한 노력만으로, 꾸준한 자기계발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없는 세상이다.

개신교인 인식조사에서 드러난 가난의 원인과 가난 극복방법에 대한 대답을 통해 나는 한국개신교인들의 도착된 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금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억압되었던 것은 반드시 귀환하기 마련이다. 금지되고 억압되었던 것들이 돌아오면서 정신은 고통을 당한다. 도착이란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한 회피전략인데,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공동체의 문제를 회피하면서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공동체에 대한 잘못된 사랑이다.

6. 에필로그: 한국 개신교의 시민성에 대한 소고

요약하면 이렇다. 공동체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배려에도 한국의 개신교도들은 결을 마련하고,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권위주의 대 자유주의 같은 이분법에 포획된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 잡히지 않고 미끄러지는 잉여의 지점이 그들에게는 존재한다. 또한 한국개신교도들은 좋은 공동체를 꿈꾸지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기를 욕망한다.

우려가 되었던 부분도 있었다. 한국개신교인들에게는 어떤 연유에서이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에 대한 성찰에 있어서는 겸손이 지나쳐 자기부정의 단계로 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것은 악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바라볼 때 구조와 체제의 모순을 가리우고 개인윤리의 차원으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 19이후 한국개신교인의 정치의식을 조사하면서 나는 한국개신교의 시민성을 규명하고 싶었다. 발단은 해외에서 들려오는 K-방역의 성공원인에 대한 분석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개신교의 시민성이 하나로 잡힐 수 없음을 깨달았다. 단편적인 몇 가지 설문에 대한 조사와 분석만으로 한국 개신교의 시민성을 연구한다는 것에 대한 무지와 무례를 느끼면서 짧은 결론을 마무리 짓는다. 코로나19 이후 촉발된 한국개신교의 시민성을 연구한다는 것은 더 많은 정보와 자료와 조사와 물음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 발표를 시발점으로 연속적이고 발전된 연구로 나아가기를 바래본다.

<보론> 차별금지법과 한국교회

1. 들어가며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개신교내 공방이 드세다. 그 논란의 핵심은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고, 이 문제는 단순히 동성애에 대한 찬반을 넘어 성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싼 해석학의 문제, 신의 의지와 신이 창조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오랜 신학적 논쟁의 과정과 겹쳐있는 문제인지라 간단하게 정리될 사안이 아니다.

이 글에서 내가 관심하는 것은 신학적 이론을 열거 주장하는 이론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을 다루기에 오늘의 시간과 공간은 적합치 않다. 대신 나는 현상학적 방법론을 도입하려고 한다. 현상(現象)이란 말 그대로 어떤 상태나 사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어떠한 편견과 억견도 배제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현상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상학에서 요구되는 방법론이 '판단중지(에포케)'이다. 이것은 철학적으로는 진리에 대한 객관화하기, 문학적으로는 대상에 대한 거리두기와 같은 말이라 할 수 있겠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개신교인들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선을 종교사회학적으로 현상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나는 최근 시행한 개신교인 인식조사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과대 대표된 한국개신교의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를 거리를 두고 재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내게는 있다. 본격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로 넘어가기에 앞서 동성애 일반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것에 후에 전개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2. 한국 개신교인의 동성애 인식

1) 동성애는 죄인가?

'동성애는 죄'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개신교인은 58.4%로 비개신교인(25%)보다 두 배 이상 많아, 두 집단 사이 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개신교인 23%가 '동의하지 않는다', 18.7%가 '잘 모르겠다'에 표시를 한 것을 보면 개신교인 10명 중 4명은 '동성애가 죄'라는 주장에 부정 내지 의문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경향은 이전 통계와 비교할 때 점점 세지고 빨라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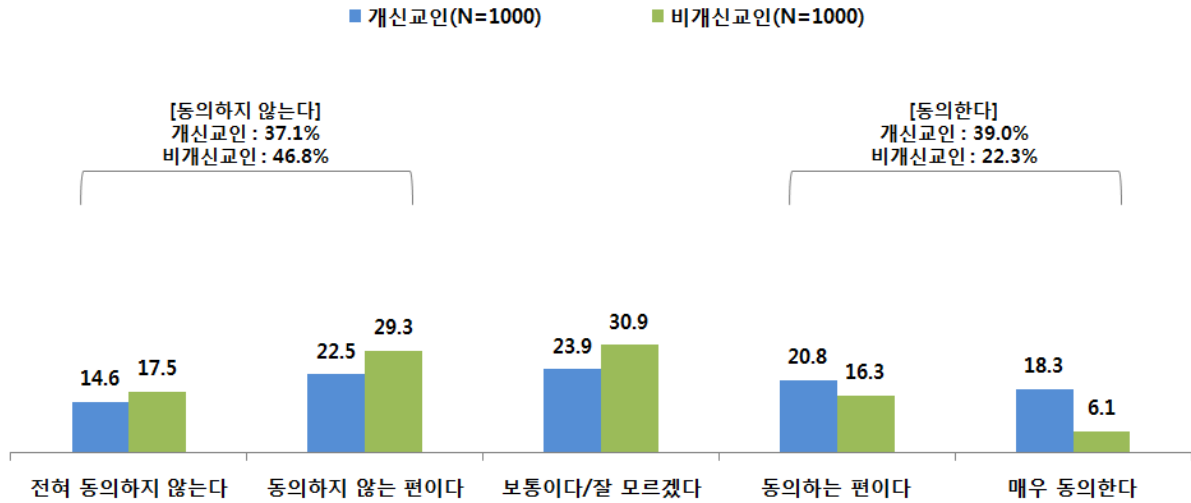


그림 1. 동성애가 죄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¹⁾

2)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

내가 유의미하게 보았던 항목은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을 물었던 질문이었다.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사회 보편의 인식’을 가장 많이 꼽았다(개신교인 59.7%, 비개신교인 70.0%). 그 다음으로 개신교인은 ‘종교의 경전(가르침)’(43.2%)을, 비개신교인은 ‘개인적 학습 및 탐구’(35.1%)를 택했다. 개신교인들이 사회, 문화적으로 일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개방된 인식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 말은 성서에 적혀있는 동성애 관련 내용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상식이 개신교들에게 영향을 더 끼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들이 보수극우 개신교인들과 목사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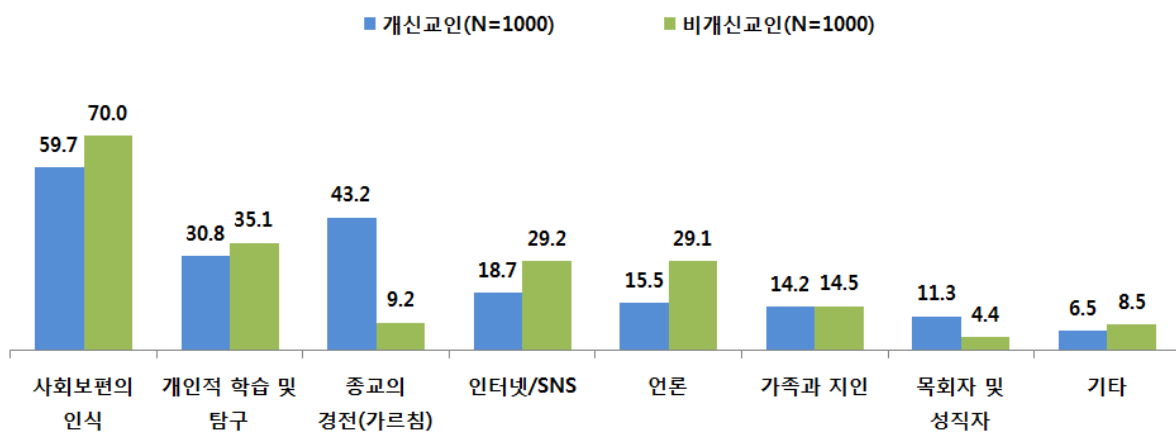


그림 2.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²⁾

1)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19 주요사회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통계자료집』, (대한기독교서회, 2020), 165.

2) Ibid., 168.

3) 지인이 동성애자라고 고백한다면?

지인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했을 때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물었다. 개신교인은 47.4%가 '변화할 것이다'라고 대답했고, 38.0%가 '변화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변화할 것의 응답이 개신교인들 사이에서는 10% 가까이 높았던 반면, 비개신교인은 '변화할 것이다' 37.9%, '변화 없을 것이다' 46.3%로 변화 없을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개신교와는 반대로 10% 높았다. 개신교인 중 변화할 것이라 응답한 비율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교회직분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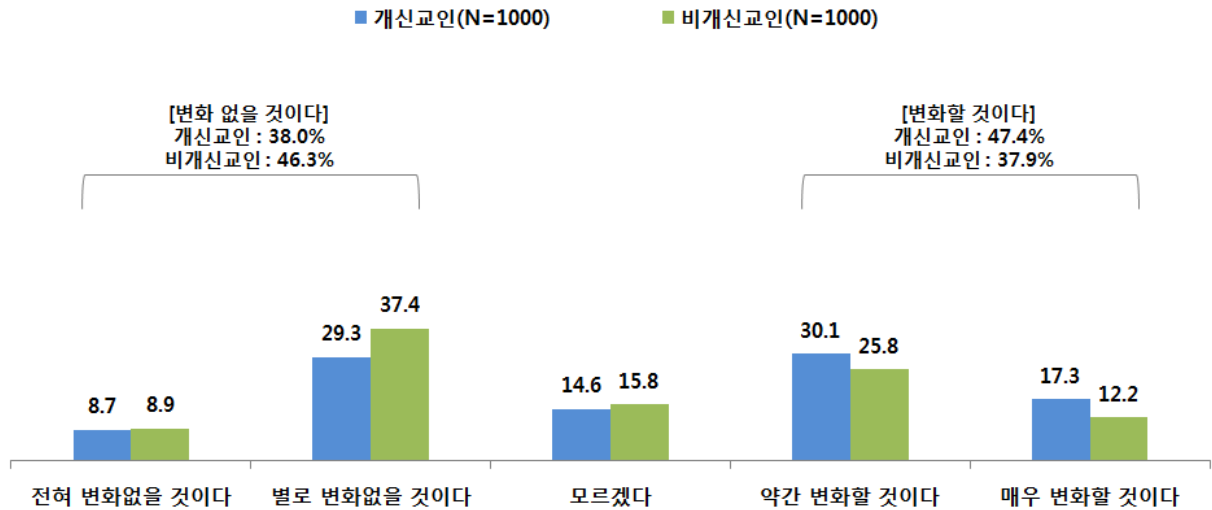


그림 3. 지인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했을 때의 관계의 변화³⁾

4) 예수님이라면 동성애자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인식조사 결과는 다음사항이었다. 예수님라면 동성애자를 어떻게 대하실지 묻은 결과, 개신교인은 '그의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8.4% 가장 높았고, '그를 이성애자로 변화시키고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한다'와 '그에게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한다'가 각각 27.0%, 26.2%로 비슷했다.

반면, 비개신교인은 '그의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3.7%로 압도적이었다. 개신교, 비개신교를 가리고 통계만 보았을 때는 당연히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종교인 개신교가 63.7%로 '인정한다'를 찍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반대였다.

3) Ibid., 174.

■ 개신교인(N=1000)

■ 비개신교인(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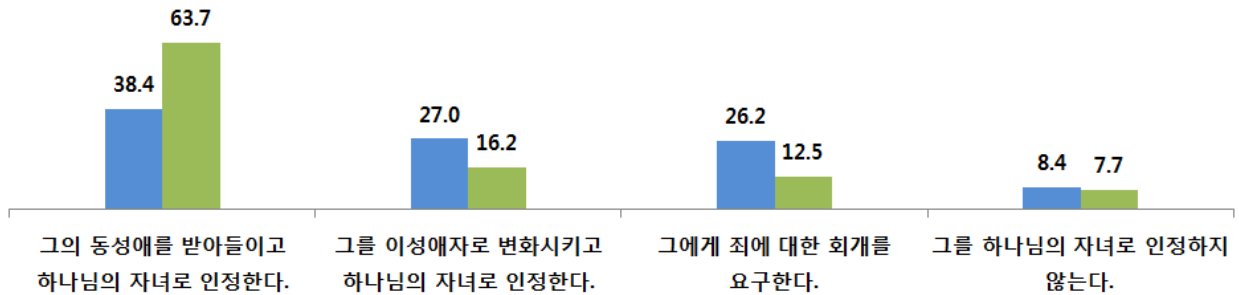


그림 4. 예수님은 동성애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⁴⁾

나는 오히려 이 결과를 통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개신교인들이 예수라면 ‘그의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는 비개신교인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이미지, 더 나아가 종교의 이미지가 반영된 결과이고, 비록 현실의 기독교는 그렇지 않지만, 비개신교인들이 갖고 있는 상상속의 기독교는 혐오와 배척과 폭력보다는 환대와 용서와 사랑의 종교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는 기뻐다. 개신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것이고, 비개신교인들은 예수를 모른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 이것은 부메랑이 되어 현실의 개신교에게 돌아가 제2의 종교개혁을 가능하게하고 요구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개신교인들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막연하게 개신교인들은 전체적으로 반동성애 입장에 있다는 보았는데, 실제로는 개신교인 전체를 아우르는 동성애에 대한 단일한 의견을 없고, 사안별로 온도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개신교인들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견해는 어떨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 살펴보기로 하겠다.

3.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개신교인들의 인식

지난 6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인권위의 의뢰를 받아 지난 4월 22~2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자의 88.5%는 한국 사회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 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⁵⁾

지난해 3월 인권위가 실시한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에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응답자의 72.9%가 찬성 의견을 밝혔던 것에 비해, 1년 후 찬성 비중이 15.6%포인트 높아졌다는 것은 2019년 극우기독교의 태극기 집회, 4.15총선, 코로나 19등의 사회적 변화를 거치면서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렇다면 한국개신교인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4) Ibid., 177.

5)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4005&pagesize=8&boardtypeid=7049&boardid=7605611>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1)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가 많아진다?

인식조사 물음 중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가 많아진다’는 주장에 개신교인은 동의 39%, 비동의 37.1%로 동의율이 약간 더 높았고, 비개신교인은 동의 22.3%, 비동의 46.8%로 비동의율이 두 배 이상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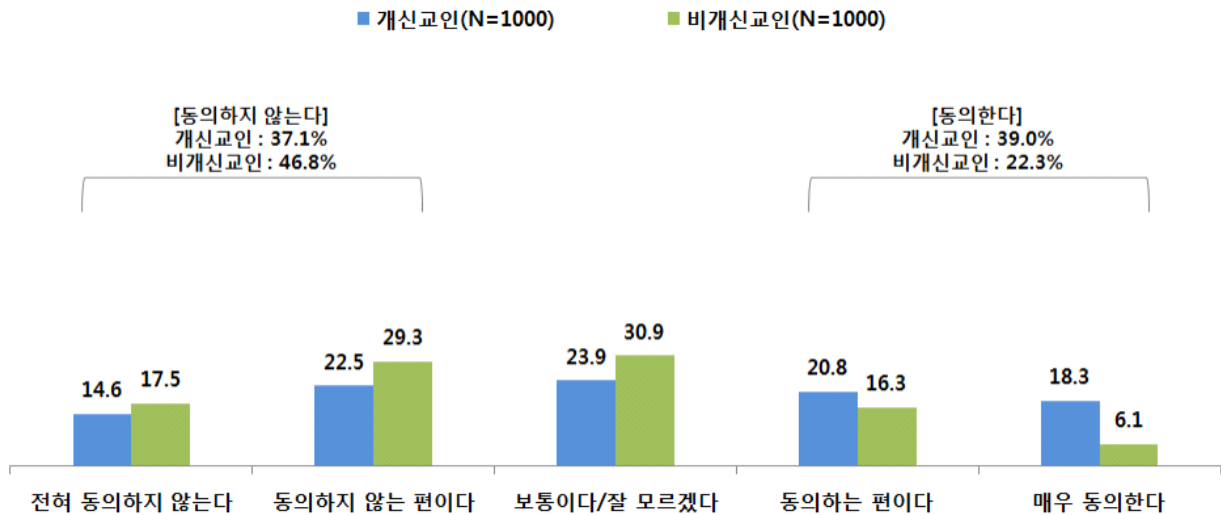


그림 5.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가 많아진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⁶⁾

2)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개신교인 대상 인식조사

차별금지법 9월 국회 상정, 연내제정을 목표로 한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그에 대한 반동적 목소리로 만만치 않게 들리고 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지엔컴에 의뢰해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 인식조사를 2020년 7월21일~29일 사이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중 차별금지법 찬반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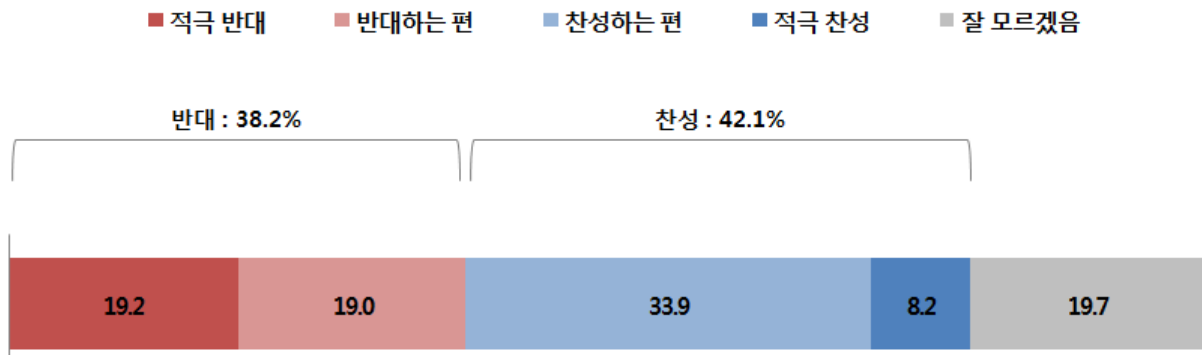


그림 6.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⁷⁾

6)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19 주요사회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통계자료집』(대한기독교서회, 2020), 171.

차별금지법에 대해 응답자의 42.1%는 찬성, 38.2%는 반대의견을 보였다. 반대비율은 교회 출석의 빈도가 많을수록, 중직자 일수록 높았다. 연령별대 분석을 살펴보면 20대(39.9:37.8)와 30대(43.9:42.5)에서는 찬성비율이 높았고 40대와 50대는 백중세였다면, 60대 이상에서는 반대(51.9: 38.4) 비율이 큰 차이로 벌어졌다.

한국교회의 주류 교단이라 할 수 있는 예장 통합과 예장 합동, 그리고 감리교단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 세 교단을 합치면 한국개신교의 거의 2/3이고, 여기에 순복음, 성결교단, 침례교단까지 더해지면 수치상으로는 거의 모든 개신교교단이 반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한국 개신교인들 대부분이 반대하는가, 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많았는데, 이번 개신교인 인식조사에서 교단장이나 대형교회 목사들의 반대목소리가 너무나 과대 대표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사연 조사가 있는 후 2주 후에 한교총에서 차별금지법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도모하고자 한다.

3) 한교총발 차별금지법 국민 여론조사

지난 9월2일 한교총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8월14일~17일 전국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찬성 40%, 반대 48%, 무응답 12%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이는 인권위에서 지난 6월에 발표한 차별금지법 찬성 88.5%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기사연에서 발표한 개신교인 인식조사(찬성 42%, 반대38%)과도 간극이 크다.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놓고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일까.

한교총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는⁸⁾, 금번 여론조사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다. 인권위의 발표(찬성 88.1%)가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진정 국민절대다수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국민의 인식과 의견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인권위의 방법보다 더 신뢰도 높은 방법을 통해 공신력있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근거와 자료에 의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도자료 내용에서 보이는 한교총의 국민일반을 바라보는 인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국민을 여론에 휩쓸려가는 존재로 인식하고, 국민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혹은 교인을) 교화와 훈육의 대상으로 여기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기 때문이다. 내게는 이러한 보도자료를 한 치의 망설임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교총의 정서와 태도가 여론조사 결과보다 더 심각하게 다가왔다. 이것은 스스로 감춰도 감출 수 없는 시대와 호흡하지 못하는 한교총의 민낯을 들켜버린 사건이고, 이런 발언이 무엇이, 왜, 어떻게 문제인지도 모르는 한교총의 뒤떨어진 시대정신과 감각을 드러내는 징후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내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자면, 한교총은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없이 '차별 금지'라는 보편적 정서를 부각시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진단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법안의 찬반에 대한 의견을 모두 제시하고 응답자가 충분히 그것을 인지한 후에 의견을 표할 수 있게 했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한교총 말이 맞다. 무릇 모든 여론조사는 찬반양론에 대해 균형잡힌 의견을 제시하고 응답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한교총의 설문이 찬반에 대한 공정한 서술이였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사이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설문구성이었다. 본격적으로 설문에 답하기 전에 차별금지법 찬성, 반대의 입장을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응답을 해야 했다. 그런데 제시된 차별금지법 찬성 입장을 지문은 짧고(1~5번,168자) 건조하게 기술된 반면, 반대 입장은 설득

7) 『2020 주요사회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지앤컴리서치, 2020, 미출판), 22.

『기독교사상 통권 742』 (대한기독교서회, 2020년 10월호), 13.

8) 한교총 홈페이지 참조_ <https://www.ucck.org/>

력 있게 길게 제시되어 있었다(1~5번, 292자).

또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악영향을 서술하는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았고⁹⁾, 설문의 상당부분이 법안에 대한 무지와 가짜뉴스에 기반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¹⁰⁾ 이는 대중들로 하여금 차별금지법이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인 것인 양 느끼게 할 뿐 아니라, 동성애 편애, 심지어 동성애 독재로 치닫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불안을 낳게 하여 설문작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요소로 작동했으리라는 의심을 낳게 한다.¹¹⁾

설문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무지와 혐오가 팽배하게 깔려있다.¹²⁾ 이와 같은 질문들을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하면 어떤 평가와 답변이 돌아오는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세계 시민과 대화를 한번이라도 해 봤는지 의구심이 드는 문항들이었다. 최소한의 교양과 상식과 예의를 갖추고 있지 않은 그야말로 수준이하 질문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었다.

한교총 여론조사 문항이 갖는 근원적인 문제점은, 물론 그것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서적 규율(반동성애)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을 재단하려는 무리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근대 이후 국민국가 시대가 전개되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후로는 종교적 교리나 문구가 사회 보편의 상식이나 규범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설문 내내 반대 논리로 가지고 오는 동성애, 동성혼 문제가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종교적 신념과 신앙고백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탈종교적인 세속화 시대의 문제라는 점을 망각한 채 종교적 규제로 사회적 법안을 바라본다면, 이는 여전히 고.중세의 신율적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집단임을 한교총 스스로가 드러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나아가며

지금까지 나는 개신교인 인식조사에 나타난 한국개신교의 민낯에 대해 살펴보았다. 차별금지법 정국에서 보이는 한국개신교를 둘러싼 현상학은 과잉과 몰이해 사이 어느 지점에 위치한다. 과잉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국개신교인 전체를 동성애 혐오자로 몰아가는 여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함이고, 몰이해라고 표현한 까닭은 개신교인들 내에서 의미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무지한 때문이다.

나는 몇몇 수치들에서 의미있는 변화의 조짐을 감지하였다. 특별히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는 항목, 동성애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 도구를 묻는 대목에서 보이는 개신교인들의 대답은 미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징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다. 문제는 각 교단의 지도자들의 입장이 일반 평신도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있다. 개신교도들 내에서 적지않은 의미있는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개신교단 총회 차원에서 취한 성소수자 문제 대처의 폭력성과 차별금지법 입장 표명과정에서 나온 획일적이고 몰대화적 태도는 한국개신교 스스로를 계도화시켜 필경에는 섬처럼 고립된 상황으로 처하게 하는 퇴행적 태도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9) “이번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논란이 있는데요..”(문8),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는 남성(트랜스젠더)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으로 인식할 경우 여성목욕탕, 여성화장실을 사용한다든지..”(문10-2)

10)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 소수자의 평등권을 우위에 둬서 역차별과 건전한 가족체계 파괴”(반대주장 3), “피해자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문지마 고발’이 남발되어 사회적 갈등 초래”(반대주장 4),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문5),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다수의 역차별”(문7)

11) 차별금지법의 규율 대상은 종교적 교리나 가치판단에 있지 않다. 이웃이나 주변사람들에게 분노, 모욕,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공격적 발언에 제동을 거는 것이고, 차별금지법이 초법적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냐는 발언도 말이 안 된다. 법안에는 명령권은 없고, 이행강제금 정도의 강제력만 있을 뿐이다. 국가인권위의 권력강화를 의심하는데 법안에서 인권위의 의사를 강제하거나 실현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

12) 남녀 외에 제 3의 성을 추가하는 것(문10-1), 성별은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10-3), 에이즈 발생원인의 주된 원인이 남성 동성애 행위(문11-5), 학교에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같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문12-1),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담임교사로 배정되는 것(문 12-3).

창세기에 보면 노아시대 세상을 쓸어버린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기획하면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멤버들을 선정할 때, 정결한 짐승 7쌍과 더불어 부정한 짐승 2쌍씩을 포함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일곱 쌍씩, 그리고 부정한(not clean)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두 쌍씩, 네가 데리고 가거라(창 7:2).” 하느님께서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을 두 쌍씩 승선하도록 명령하셨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흔히 모든 것을 멸하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이야기니까 제2의 창조이야기 라고 한다.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역사의 대열에 기존의 질서가 부여한 정상이 아닌, 인간이 규정한 비정상이라 여겨졌던 존재들을 하느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창조의 일원으로 삼으셨다고 성서는 증언한다.

하지만 오늘 날 우리사회에서 교회와 십자가는 타자에 대한 환대와 배려라는 근본정신을 버리고 차별과 혐오의 상징이 되어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서글픈 현실이 되었다. 타자에 대한 혐오를 퍼부었던 한국교회가 사람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이다.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댓가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더 철저히 이 기간 우리의 교회를 놓고 반성하고 회개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전의 십자가를 내리고 새로운 십자가를 올려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혐오와 차별을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이다.

타고난 모든 개별의 가치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곳이 교회이고, 차이와 다름이 존중받는 마지막 장소가 있다면 그곳은 마땅히 교회이어야 한다. 성서는 다양한 소수자들의 인권과 평등이 존중되는 사회를 꿈꾼다. 관습과 전통, 또는 종교적 권위와 교회적 패권의식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소수를 향한 차별과 폭력은 그래서 성서적으로 가장 큰 죄악이다. 성서가 지니는 해방적 전통이 작동되는 지점은 차이가 차별이 되어 폭력과 불평등이 정당화 되는 그곳이다. 성과 인종에 대한 편견과 혐오, 계급의 차이, 종교의 차이, 학력의 차이, 지역의 차이...등 온갖 차이와 다름으로 인한 적대와 차별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그리스도교의 해방 전통이 있다. 동성애혐오에 대한 저항은 이러한 성서가 지닌 해방적 전통의 맨 끝, 즉 화살촉과 같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그것을 둘러싼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이다.

한국 개신교인을 설명하는 ‘인간’:
호모 이코노미쿠스

신 익 상
(성공회대학교)

1. 가난의 문제 앞에서 개신교인은 정치·경제적인가, 종교적인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한국 개신교인은 가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질문은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가난에 관한 한국 개신교인(이하 개신교인)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에 대한 질문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난에 관한 한국 개신교인의 생각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하게 될 때 이들을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할까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두 개의 설문에 관한 분석을 제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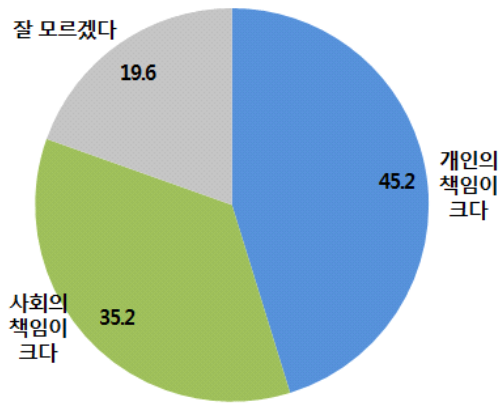


그림 1. 가난의 책임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000, %)

하나, 가난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크지, 아니면 사회의 책임이 크지에 대해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물은 설문이다. 이 설문에 대해 1,000명의 개신교인 중 45.2%가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고, 35.2%가 사회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다(<그림 1> 참조).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개신교인의 비율이 사회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개신교인의 비율보다 10.0%p 더 높다. 특히, 가난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은 연령대가 높을수록(<표 1> 참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정규직일수록, 대형교회 교인일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수	개인의 책임이 크다	사회의 책임이 크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1000)	45.2	35.2	19.6	100.0
연령	19-29세	(174)	28.3	45.1	26.7	100.0
	30-39세	(204)	47.4	35.4	17.2	100.0
	40-49세	(245)	42.8	38.6	18.6	100.0
	50-59세	(229)	49.9	28.8	21.3	100.0
	60-69세	(148)	58.9	27.8	13.3	100.0

표 1. 가난의 책임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000, %)

또한, 교회 내에서 직분이 있는 그룹과 직분이 없는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직분이 있는 그룹이 직분이 없는 그룹보다 가난의 문제에 관한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 가구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라고 답한 그룹이 1,000만 원보다 낮은 월 가구소득 그룹들과 비교해 개인의 책임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이 15억 원 이상이라고 답한 그룹과 자산이 5억 미만이라고 답한 그룹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산이 15억 원 이상인 그룹에서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억 미만의 자산을 소유한 그룹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는가, 자신의 신앙심이 얼마나 깊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여부는 가난의 원인을 판단하는 것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하나는,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설문이다. 8개의 선택지 중 3개를 고르도록 한 이 설문에서 개신교인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방법은 ‘근면 성실한 노력’이었고(61.6%), 차례로 ‘자기 계발’ 51.8%, ‘공평한 조세 제도 마련’ 44.9%, ‘복지정책 확대’ 43.9%, ‘비정규직 문제 해결’ 33.6% 등의 순이었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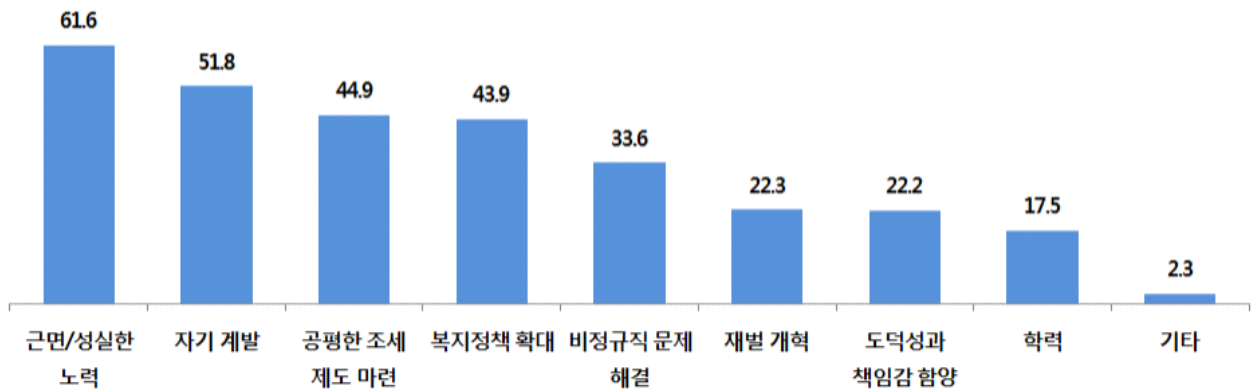


그림 2. 가난을 극복할 방법 (Base=전체, N=1000, %, 3가지 중복응답)

‘근면 성실한 노력’ 응답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공평한 조세 제도 마련’은 ‘40대 이하’ 특히 ‘30대’에서, 신분에 있어서는 ‘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선택을 받았다. 또한, ‘복지정책 확대’는 ‘20대’와 ‘비정규직’, 그리고 ‘300만 원 미만 소득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재벌 개혁’은 ‘4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했다.

제시된 선택지들은 크게 가난의 개인적 해결(근면 성실한 노력, 자기 계발, 도덕성과 책임감 함양, 학력)과 사회구조적 해결(공평한 조세 제도 마련, 복지정책 확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 개혁)로 양분되는데, 3개의 중복응답 중에서 사회구조적 해결을 얼마나 많이 선택했느냐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통계적인 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 신자가 직분이 있는 신자보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그룹이 보수적인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사회구조적인 해결을 더 높은 비율로 선택했다. 월 가구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그룹은 개인적 해결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이 다른 월 가구소득 그룹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자산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의 결과도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나 신앙심에 대한 주관적 판단 여부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능케 한다. 첫째, 개신교인 대다수는 가난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주의적인 접근을 취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가난의 ‘원인’에 관한 판단과 가난 문제의 ‘해결’ 방법에 관한 판단 모두에서 공통된 경향이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교회 내 직분,

월 가구소득과 자산, 정치적 성향을 꼽을 수 있다. 반면, 교회 활동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가 하는 것은 가난에 관한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둘째, 개신교인은 교회 내 위치와 경제적인 수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가난에 관한 생각이 달라지지, 신앙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 가난에 관한 생각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경제적 관념은 신앙의 적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 신분과 경제적 위치, 정치적 성향에 의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셋째, 30대 이하 연령대의 생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대는 가난의 원인에 있어서는 사회구조적인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가난의 해결에 있어서는 개인주의적 접근과 사회구조적 접근이 백중세를 이루고 있다. 30대의 경우에는 가난의 원인과 해결 모두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판단이 대체로 우세하였지만, 가난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공평한 조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아서(55.6%, 다음으로 많이 나온 답변인 ‘자기 계발’은 54.7%, ‘근면 성실한 노력’은 51.1%) 전반적으로는 개인주의적인 판단이 우세함에도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구조적인 변화의 목소리도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가 개신교인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를 가늠케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다. 사실, 이 타격은 이미 시작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를 극복할 경기부양책을 실행하려고 할 텐데, 경제적 관념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큰 개신교인들은 정부의 ‘공적’ 경제정책에 반감을 갖거나 저항하는 세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러한 세력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은 신앙의 적극성이 아니라 교회 내 신분과 경제적 수준, 그리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이지 않은’ 성향이다. 특히 30대의 경우에는 개인주의적 경향이 우세한 한편, 사회구조적 변화의 요구에 있어서는 ‘공평한 조세 제도 마련’에 가장 큰 요구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적 경기부양책을 가장 구체적인 논리로 비판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개인주의적 성향은 교회 내 취약층에게 큰 절망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가오는 경제적 타격을 개인주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개인적’ 신앙의 적극성과 무관하게 교회 또는 사회 내에서의 ‘구조적’ 위치에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개인적인 노력만을 추구하는 것은 절망을 간신히 견디는 절망적인 신앙이나, 현실 도피적인 신앙을 강화할 개연성이 크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20대의 일부다. 이들은 가난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는 경향이 크에도, 그 해결 방법을 개인의 노력에서 찾으려 한다. 이 경우,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가 주는 경제적 타격은 이러한 20대 일부 개신교인에게 극도의 고립감과 절망감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

2. 기본소득 vs 전 국민 고용보험?

지난 5월부터 불붙은 전 국민 고용보험 논란은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논쟁과 토론으로까지 번졌다. 개신교인은 이 둘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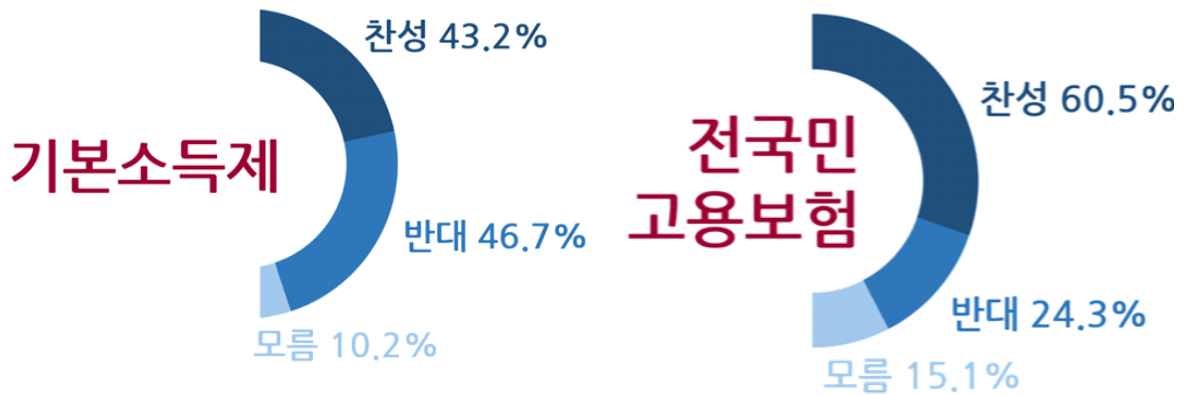


그림 3. 기본소득제 및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000, %)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43.2%, 반대 46.7%로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가 조금 많은 결과가 나왔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찬성 60.5%, 반대 24.3%로 찬성이 반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그림 3> 참조). 따라서, 2020년 현재 개신교는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둘 중 무엇을 우선 도입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전 국민 고용보험 35.4%, 기본소득 34.0%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특히, 전 국민 고용보험을 우선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월 가구소득이 500~700만 원인 그룹, 직종은 화이트칼라 그룹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왔고, 기본소득을 우선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저소득층에서, 그리고 직종이 자영업인 그룹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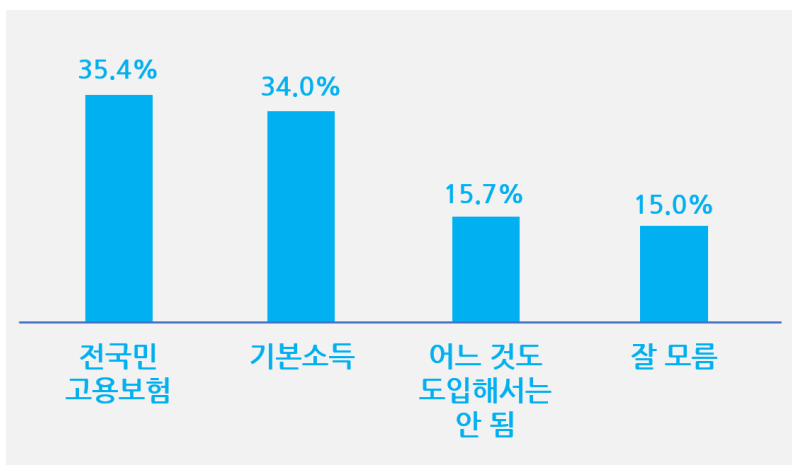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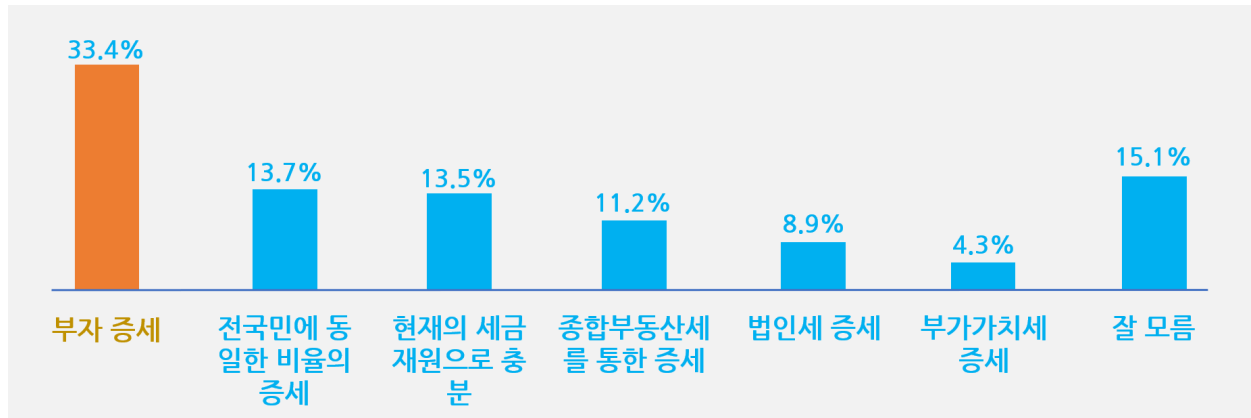


그림 4. 우선 도입: 기본소득 vs 전 국민 고용보험 (Base=전체, N=1000, %)

이 외에도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 그룹을 대상으로 왜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개신교인이 73.6%로, 시장 경제 활성화(14.4%)나 취업장려(2.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설문 응답자 1,000명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수의 개신교인이 부자 증세(33.4%)를 꼽았다(<그림 5> 참조).



■ 그림 5. 기본소득 재원 마련

(Base=전체, N=1000, %)

기본소득제 도입 문항과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문항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변량분석을 시행한 결과, 두 문항 모두 정치적 성향, 월 가구소득과 자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적으로 진보적이거나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그리고 자산이 적을수록 기본소득제 도입과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각각에 대하여 찬성하는 개신교인이 많을 개연성이 크다. 반면, 교회의 공식적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자신의 신앙심이 얼마나 깊다고 생각하는지 등의 신앙 지표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이나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제 도입 및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관한 이상의 통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난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정책에 관한 개신교인의 태도는 신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경제적 위치, 정치적 성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기본소득제 도입을 찬성하는 개신교인 대다수에게 이 문제는 기초적인 인권(생존권을 바탕으로 한)을 보장하는 문제이지 경제성장이나 노동권 보장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고용 증대를 초점으로 수행되었던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를 한국에서 수용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결과는 기술과학(techno-science)의 발전을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고효율화 상황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노동 가치에 관한 갈등을 중심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여전함을 감안할 때,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 기본소득 논의로 이행해가는 것도 인권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대안적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새로운 생태교회의 모색:
청지기론에서 지구의 권리로

신익상
(성공회대학교)

1. 지구온난화는 미래 세대의 결정적 불안 요소다.

“개신교인들은 지구온난화를 정말로 심각하게 느끼고 있을까?” 이 궁금증에 관한 가장 명쾌한 해결은 직접 물어보는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97.0%의 개신교인들이 그렇다고 응답했다(<그림 1> 참조). 이 정도면 거의 모든 개신교인이 지구온난화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말 그럴까?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고 답한 개신교인들에게 다른 질문을 던져보자. “그럼,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는 다양한 답변이 흩어져서 나타났다.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의 판단은 가능할 것 같다. 이미 늦었다고 답한 사람들은 정말 절망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일 텐데, 970명의 15.4%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그림 2> 참조). 적



그림 1. 지구온난화의 심각성 인식
(Base=전체, N=1000, %)

지 않은 수다. 이들을 포함해서 1년 미만 남았다고 하는 사람들(1.1%)과 10년 정도는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22.2%)까지 합치면 대략 37.5%의 개신교인들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정말로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30년 정도, 그러니까 한 세대 정도는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지구온난화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지구온난화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개신교인은 ‘적어도’(“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26.4%나 되기에) 58.7%는 된다. 게다가 경제 성장과 지구온난화 방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얼 선택할 거냐고 하는 질문에는 88.9%가 당연히 지구온난화 방지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응답한 개신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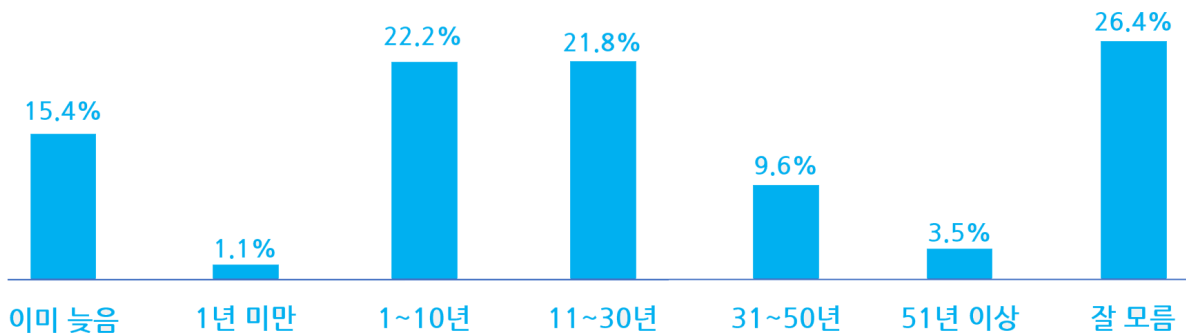


그림 2.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남은 시간 (Base=전체, N=970, %)

1) 2021년부터 공식 발효되는 파리기후협약은 향후 10년을 결정적인 시간으로 보고, 그 사이에 추가적인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0.5°C 미만으로 잡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지금처럼 살면 절대로 불가능한 목표치다.

중 63.7%는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지구와 인류의 파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절박한 이유를 달았다. 게다가 이렇게 대답한 비율은 20대(64.9%)에서 평균을 웃돌았고, 학생만을 따지면 71.4%로 상당히 더 높게 나타났다. 파리기후협약이 제시한 남은 시간 10년을 지나 그 결과가 가시화하는 인간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세대들의 생각이다. 지금의 기성세대가 책임 있게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2. 코로나19 상황은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데 보탬이 될까?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74.5%의 개신교인은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해서 생기는 사회적 재난 현상”이라고 답했다. “우연히 발생한 자연 현상”이라고 답한 17.7%에 비하면 압도적이다. 지구온난화가 코로나19와 같은 동물 유래 전염병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개신교인도 59.3%에 달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개신교인(26.7%)보다 2배 이상 많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할까? 덕분에 지구온난화는 완화되리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별 차이가 없거나 더 악화한다고 생각할까? 이 질문을 던졌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다소 양분되는 양상이다. 완화되리라고 예상하는 개신교인이 49.1%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개신교인보다 12.7%p 정도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긴 했지만, 압도적인 편은 아니다. 그래도 완화된다는 견해가 우세하긴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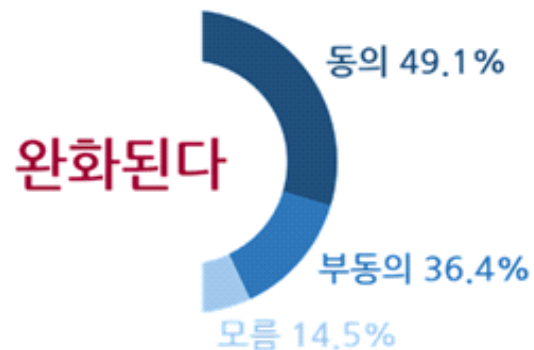


그림 3. 코로나19로 인한 지구온난화 완화?
(Base=전체, N=1000, %)

그런데, 이러한 견해가 과연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기만 할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지구온난화가 완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현 인류문명 체계/체제의 근본적인 전향과 변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지구온난화가 완화되리라고 전망한 이유는 과연 ‘현 인류문명 체계/체제의 근본적인 전향과 변화’를 기대했기 때문일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한 491명에게 다시 물었다. 왜 완화되리라고 생각하느냐고. 가장 크게 돌아온 답변은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17.3%)도 아니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강력해진 정부 주도로 친환경 정책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12.2%)도 아니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친환경적인 산업환경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10.0%)도 아니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공장의 생산활동이 줄어들기 때문”(59.7%)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근본적인 완화라기보다는, 한시적인 완화라고 본다는 얘기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인간이 자연에 그간 자행해온 만행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는 주었지만, 그러한 만행을 멈출 수 있는 더 강력한 모멘텀 자체를 주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3. 교회는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 거점이 될 수 있을까?

인류에게 주어진 10년이라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데 한국의 교회들은 결정적인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개신교인들이 가진 생각을 들여다보도록 하자. 그래서 일차적으로 물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크게 돌아온 대

답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47.6%)이었다. 그다음을 ‘지구온난화 방지 국제법 마련 및 시행’(17.8%), ‘지구온난화 방지 기술 개발’(14.3%), ‘에너지 절약’(12.9%), ‘과소비 절제’(5.8%) 등이 있다(<그림 4> 참조). 그렇다면, ‘교회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할까? 가장 많은 대답은 ‘에너지 절약 운동’(41.1%)이었다(<그림 5> 참조).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절약, 기막히게 좋은 호응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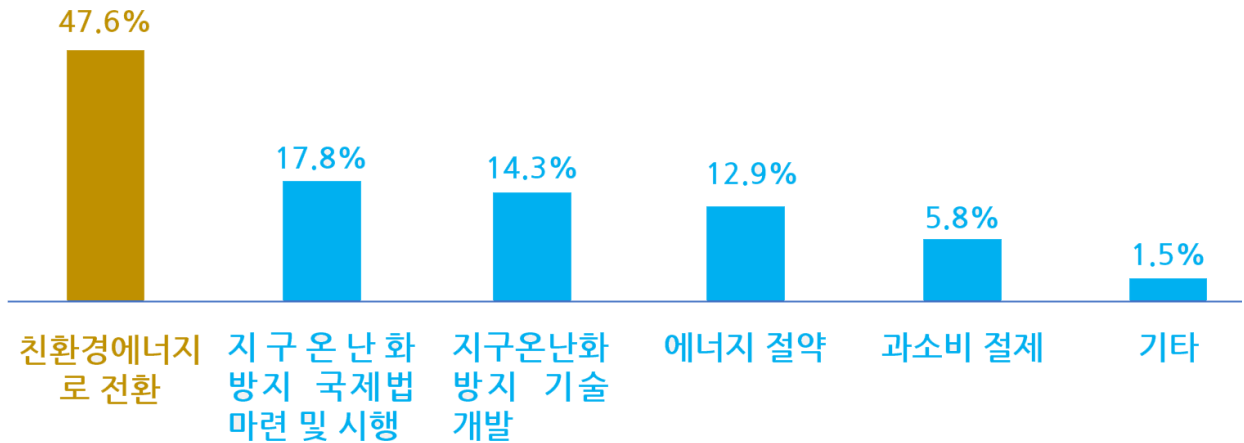


그림 4.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 (Base=전체,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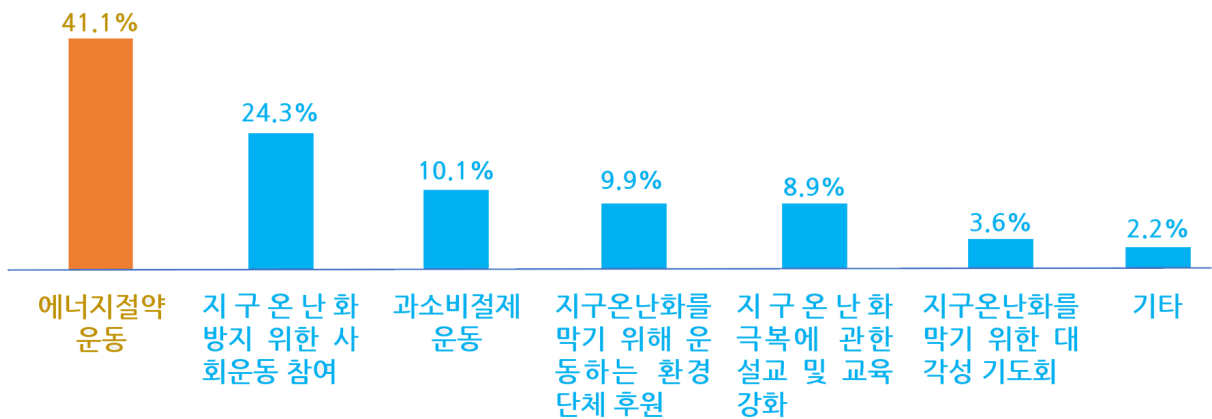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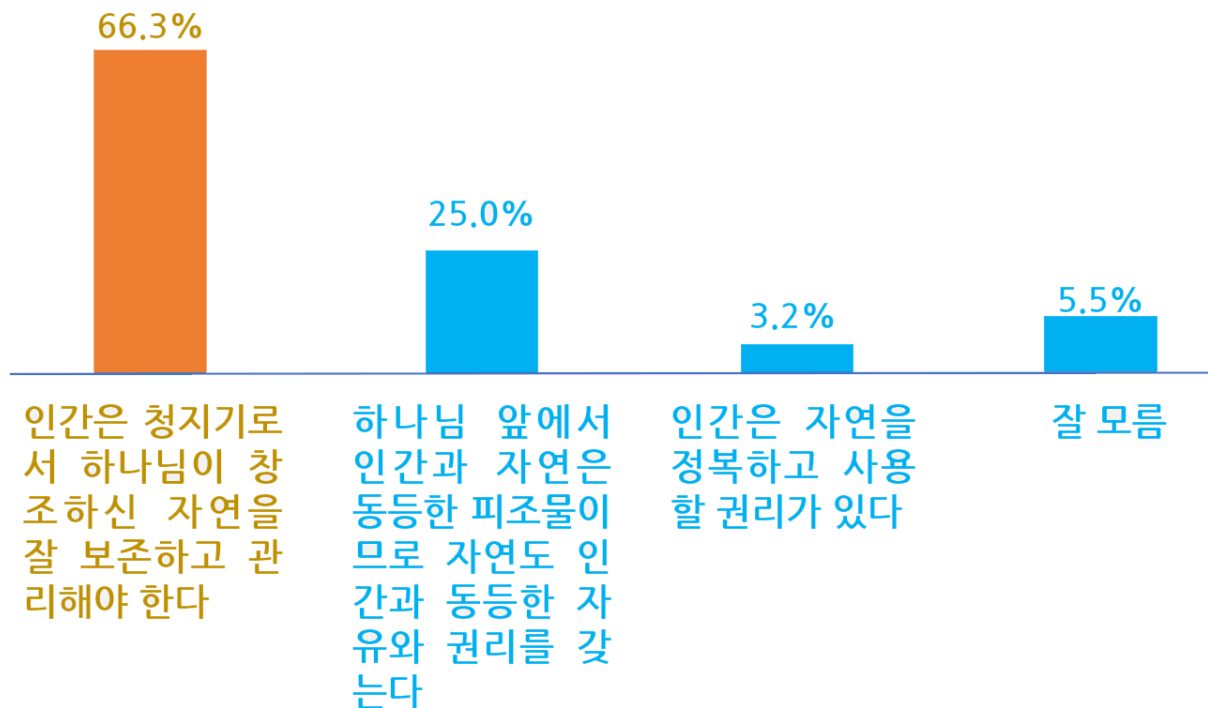


그림 5. 교회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 (Base=전체, N=1,000, %)

그런데, 무언가 약간 이상하다. 만일 ‘교회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로 에너지 절약을 꼽았다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에서는 왜 에너지 절약이 수위에 들지 못했을까? 첫 번째는 아니더라도 두 번째는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에너지 전환은 사적인 영역에서는 다 이루어낼 수 없는 사회체제 자체의 전환과 관련된 거대한 기획이지만, 에너지 절약은 사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이 좀 다르긴 하다. 동시에,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절약과 과소비 절제라는 두 가지 실천이 함께해야 도달 가능한 기획이기도 하다. 그런데, 교회에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사적 실천이 에

너지 전환이라는 공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개자로서 생태적 사회운동 참여 의사가 있는 개신교인 24.3%가 있다(<그림 5> 참조). 개인이 구조적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는 시민사회 운동을 형성하거나 기왕의 시민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개신교인 중 적어도 4명 중 한 사람은 교회를 통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사회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사실은 기독교 환경운동 단체가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이다. 또한, 이들의 주된 관심사가 “탄소 배출 저감 방안을 알리는 국민 계몽 운동”,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차원의 연대 운동”, “지구온난화 방지 국가 정책 수립 및 입법을 위한 시민사회 운동” 등이라는 사실을 사려 깊게 주시해야 한다.



■ 그림 6.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기독교인의 올바른 관점 (Base=전체, N=1,000, %)

그런데, 교회가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개념적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지기론에 입각한 창조 세계 보존 논리에서 벗어나 지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선언하고 옹호할 필요성이다. 설문 결과, 아직도 대다수 개신교인(66.3%)은 창조 세계의 보존을 청지기론을 토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림 6> 참조). 그런데, 그다음으로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인 25.0%의 개신교인은 지구의 권리를 지지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청지기론은 교회에서의 직분이 높을수록, 교회에 잘 출석할수록 지지하는 비율이 높다. 반면, 지구의 권리는 교회에서의 직분이 낮을수록,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신자의 경우에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이미 2019년도 인식조사에서 밝힌 바 있듯,²⁾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신자의 비율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치솟는다. 더욱이, 작년에는 개신교인 전체 평균 9.7%에 불과했던 교회 불출석 개신교인의 비율이 올해는 19.8%까지 치솟았다. 이 비율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젊은 세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도 무시할 수 없는 비율로 개신교인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지구의 권리’ 개념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개신교 대중에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지구의 권리’ 개념과 같이 탈-인간중심적인 생각을 교회가 자신의 신학

2) 줄고, “개신교인의 신앙관과 생태위기에 관한 인식,” 『기독교사상』 731 (2019.11): 16-17. 참조.

적 사유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의 여부인데, 이는 이미 다양한 생명 신학 내지는 생태 신학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 남은 것은 교회의 선택과 결단인데, 이 선택과 결단을 교회 내 직분이 높은 신자들이 독점하는 것이 한국의 제도교회가 가진 특성이므로, 청지기론에서 지구의 권리로의 신앙공동체 차원에서의 이행은 쉽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 거점으로서 교회가 세상에 나설 수 있는 중요 분기점이 될 것이다.

통일 및 안보에 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두 가지 안보 위협에 대한 두 가지 반응

김 상 덕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

들어가며

2020년 <통일 및 안보> 분야에서는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와 더불어 ‘코로나 19’(COVID-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위협’에 대한 국가 신뢰도 및 국제관계에 대한 기대 정도의 변화를 중점으로 설문을 기획하였다. 이번 설문은 크게 두 분야로 이뤄졌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질문들이고, 두 번째는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한 질문들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위 두 영역은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는 점에서는 일정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첫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북한은 우리 삶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협요소라는 점이다. 둘째, 이 위협요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은 국가가 담당한다는 점이다. 셋째, 두 문제 모두 국제적인 문제이면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두 문제 모두 국가만이 아니라 민간단체의 역할도 고려될 수 있다. 이상의 네 가지 관점에서 개신교인의 인식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국가안보와 보건안보

한국사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안보’(security)란 ‘국가안전보장’(national security)의 줄임말이다. 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제관계에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안보의 개념은 크게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로 나뉜다.¹⁾ 전통적 안보는 흔히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가의 방어 혹은 보호를 뜻하고 국가의 조정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비전통적 안보는 국가 간의 군사적 위협의 경계를 넘어, 인간을 향한 다양한 위협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른 말로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고 부른다. 안보 개념의 변화에는 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라는 전통적 경계의 틀이 무너지고 탈국가적 현상으로서의 위협들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국제적 차원의 대응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협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 대한 적극적 접근 방식이다. 평화학자 요한 갈통(Johan Galtung)이 평화를 단지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이 아닌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라고 부른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안보’란 국가 간의 군사적 긴장만을 의미하는 ‘소극적’ 안보를 넘어선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협들을 적절하게 대응할 국제적 규칙과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²⁾

보건안보(health security)는 21세기 인간안보의 주요 핵심 의제 중 하나이다. 특히 ‘재난’은 비군사적

1) 남궁곤,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 개념, 현상과 한국적 함의」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2), 2-145. 참조.

2) 이러한 안보 개념의 확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하라. 전용,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2004) 44(1), 25-49; 이원우, “안보협력 개념들의 의미 분화와 적용”, 「국제정치논총」, (2011) 51(1), 33-62; 김용신, “안보 개념에 대한 글로벌 인식의 관점”, 「글로벌교육연구」 (2015) 7(3), 63-82.

위협에 속하지만 적절한 대응에 실패할 경우 내전이나 국가 간 갈등으로 악화될 수 있는 잠재적 요소이기도 하다. 국가의 위기관리능력이 곧 그 사회와 주변국과의 평화를 지켜내는 안보의 길이라는 개념인 것이다.³⁾ 특별히, 2020년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위기로 한국은 물론 전세계가 재난과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바이러스 전염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역 및 보건안보이며, 나아가 국제적 인간안보의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은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도 잘 드러난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⁴⁾

위 연설문을 토대로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단순한 질병관리 이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및 주변국과의 안전 및 사회 전반의 문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며, 현 상황에서 위기관리능력은 곧 국가(정부) 신뢰도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2. 코로나19 위기와 통일 및 군사안보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

1) 코로나19 위기는 심각하나 현정부 신뢰도 높아

이런 맥락에서, 개신교인은 현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 정부 및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먼저,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상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87.9%)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은 9.9%에 불과하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73.5%가 ‘조금 걱정된다’고 응답하였으며, 18.7%는 ‘상당히 두려워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7.0%, ‘너무 두려워서 일상생활이 안된다’는 0.8%로 거의 다수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심각성과 감염 위험성이 높은 수치로 나타났지만,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 능력에 대해서도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코로나19 대처능력과 관련하여 현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률은 73.7%,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22.7%로, ‘신뢰’ 비율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설문조사 당시 실시되었던 대통령 국정운영평가⁵⁾에서 ‘잘하고 있다’ 48%, ‘못하고 있다’ 46%의 응답률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는 것이다.

3) 재난과 안보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하라. 김성철, “구조적 폭력의 매개체로서의 재난: 인간안보, 정의, 거버넌스의 문제” 『분쟁해결연구』(2013) 11(3), 115-146; 이재은, “국가안보 환경의 변화와 국가위기관리: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위기 유형” 『Crisisonomy』(2013) 9(2), 177-198.

4)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8611>) 참조.

5)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 2020년 7월 3주차”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 정기조사팀, 2020. 7. 22) <https://hrcopinon.co.kr/archives/16054> (2020. 9. 5. 접속)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 약간 신뢰한다 ■ 매우 신뢰한다 ■ 잘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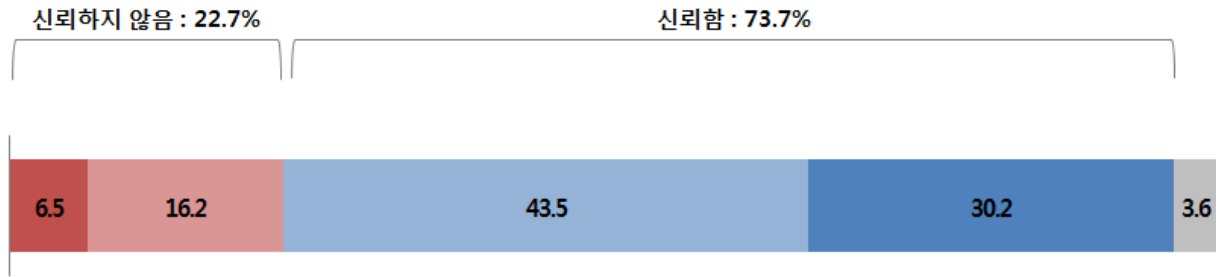


그림 1. '코로나19 관련 현 정부 신뢰도

정부 신뢰도에 대한 응답률은 연령별, 지역별 응답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체 응답자 중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전체 비율은 73.7%인데, 40대의 경우 83.8%가 현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연령층은 60대('신뢰' 70.4%, '신뢰 없음' 27.2%)와 20대('신뢰' 66.8%, '신뢰 없음' 26.5%)로 집계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관련과 더불어 전반적인 현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지역별 응답률의 차이에서도 유독 광주/전라 지역(신뢰 91.3%)이 대구/경북 지역(63.3%)과의 격차를 보면 어느 정도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도가 영향을 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대구/경북지역은 코로나19 확산세 초기에 가장 많은 집단감염자가 발생했던 지역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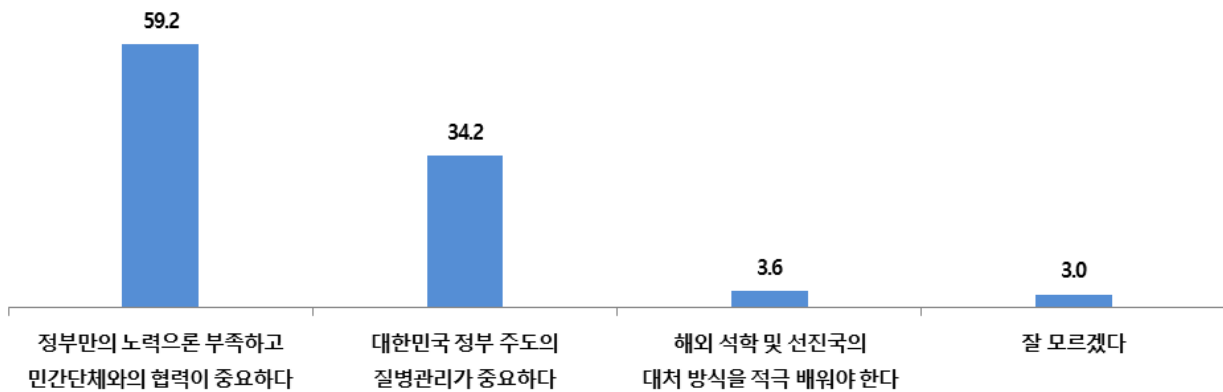


그림 2. 향후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방안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의료 및 방역 시스템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는데, 특히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선진국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7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선진국 수준과 비슷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23.0%이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선진국보다 부족하다'는 의견은 2.5%로, 대부분이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선진국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 의료 체계에 대한 높은 자긍심은 '코로나19'라는 질병 위기에 대한 대응방식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코로나19와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59.2%로 가장 높았지만 '정부 주도의 질병관리' 의견도

6) 그러나 강원/제주의 경우 확진자 수가 적게 나타났음에도 정부 신뢰도는 61.2%로 낮은 수치를 보이기도 한다.

34.2%로 적지 않게 응답했다. 반면, ‘해외 석학 및 선진국의 대처 방식을 적극 배워야 한다’는 의견은 고작 3.6%로 현 위기 상황을 정부와 시민의 협력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핵 문제가 가장 큰 위협, 정부 정책 평가는 부정적

코로나19와 관련한 개신교인의 인식을 보건안보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한 위기의식이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와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반면에, 통일 및 남북관계의 설문을 통해 필자가 관심 있게 본 것은 군사안보와 관련한 개신교인의 인식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 하는 점이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두 항목은 단순비교가 될 수 없는 별개의 분야이지만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국가 및 국제적 대응으로서의 ‘안보’의 문제라는 점에서 비교해보고자 한다.

먼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를 묻는 질문에서 1~3순위 응답률 기준으로 선택할 때 ‘북한 비핵화’가 52.5%로 가장 높은 절반 이상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 43.9%, ‘군사적 긴장 해소’ 41.7%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막는 문제가 주로 북한에 있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⁷⁾ 다르게 표현하면, 개신교인의 상당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문제의식에서 북한을 평화의 위협요소로 여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보’란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방어, 즉 전통적 안보의 개념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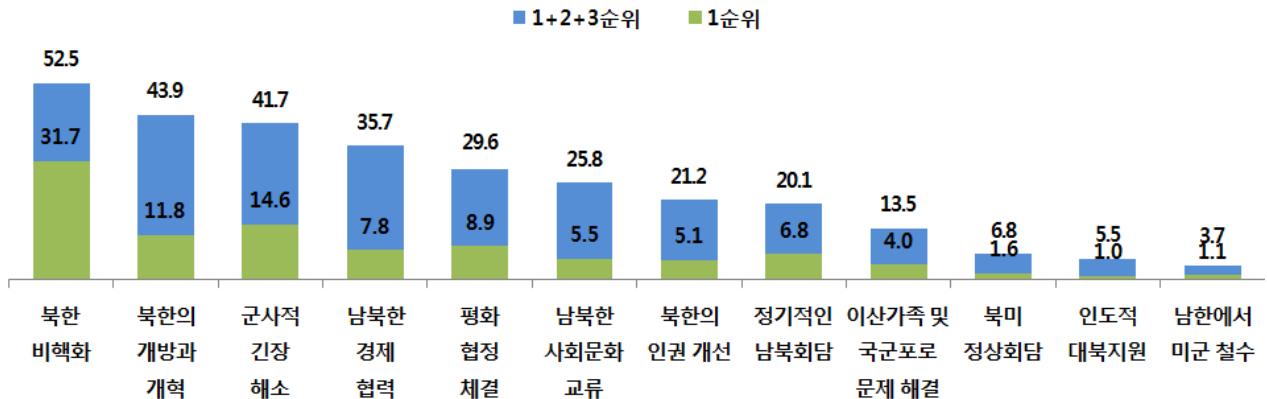


그림 3.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시급한 문제

그렇다면 개신교인들은 현 정부의 통일 및 대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현 정부의 통일 및 대북 관련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음’이 33.7%, ‘잘못하고 있음’이 46.4%로 부정적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결렬된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회담 중단 등의 정치적 상황과도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 걸었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냉정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연령별 응답률이 이 항목에서도 40대가 긍정적 평가가 43.1%로 가장 높은 반면, 60대와 20대 순으로 부정적 평가가 높다는 것이다.⁸⁾

7) 1-3순위에 이어서 ‘남북한 경제 협력’ 35.7%, ‘평화협정 체결’ 29.6%,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25.8% 등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8) 60대는 ‘잘함’이 24.2%, ‘잘못함’이 68.4%로 4점 척도에서 1.93으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20대는 ‘잘함’이 21.9%, ‘잘못함’이 45.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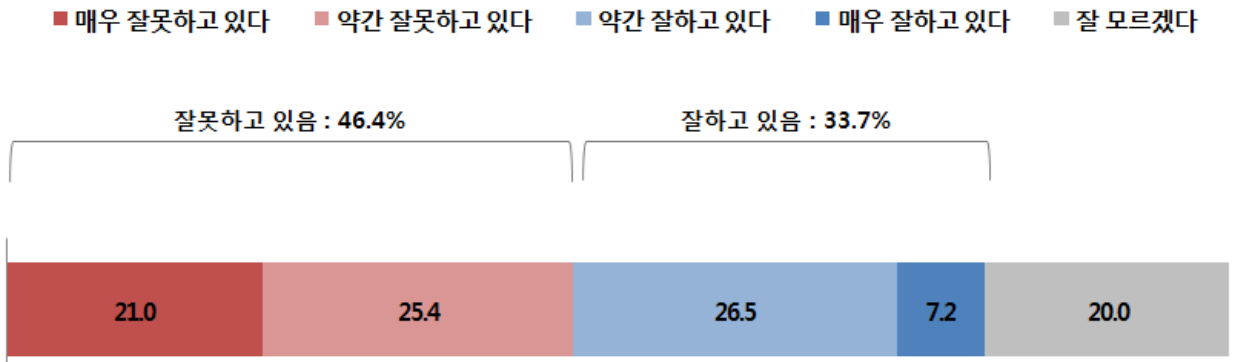


그림 4. 현 정부의 통일 및 대북 관련 정책 평가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개신교인 중 상당수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낮은 신뢰도는 정부의 지침과의 갈등의 관계로 나타나기도 한다. 지난 6월 초, 일부 대북 단체들이 북한으로 김정은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풍선에 달아 보내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응답자의 2/3가(66.3%)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잘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8.0%에 그쳤다. 전단지 살포행위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 이유로는 ‘남북관계에 위화감 등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라고 답한 비율이 43.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북한주민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국내 극우세력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31.6%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개신교인의 다수가 남북관계에 위협이 되는 일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에 전단지 살포를 잘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를 ‘북한주민의 인권’(37.6%)과 ‘표현의 자유’(21.7%) 등으로 자신들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신교인 중 일부는 정부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에 더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현 정권의 통일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의견도 17.6%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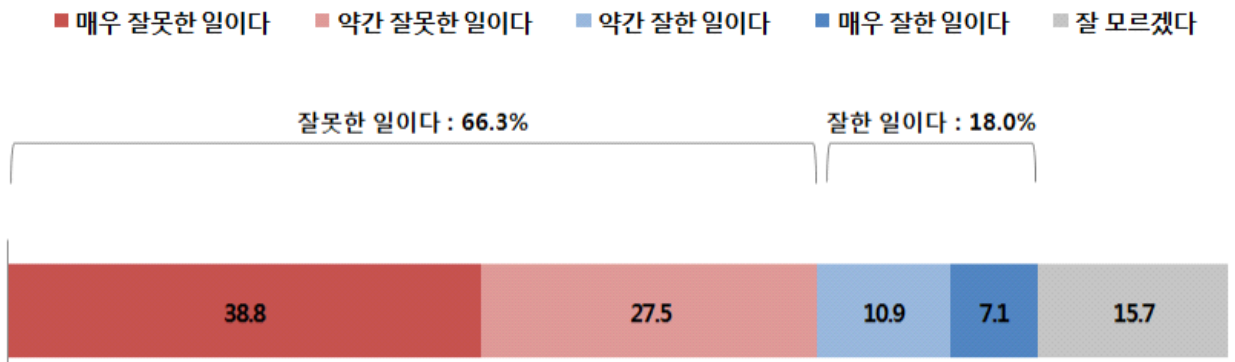


그림 5. 일부 단체의 대북 비난 전단 유포에 대한 의견

개신교인의 절반은 현 정부를 신뢰하거나 지지하지만, 상당수는 현 정부를 신뢰하지 않거나 대북정책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중 53.0%가 ‘시민단체는 정부를 믿고 통일 및 대북정책에 잘 따라야한다’고 응답한 반면, 22.0%는 ‘정부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민간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외

교적 사안이니 ‘민간단체는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18.7%로 제법 높은 수치를 보인다. 통일 및 남북관계 해법에 대해 정부, 민간단체, 주변국 등으로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대답이 30.5%,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29.4%로 비슷하게 나왔으며, ‘미국과의 공조하여 대북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9.8%,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6자 회담’을 선호하는 응답도 17.2%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개신교인은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 역할과 관련하여 다양한 입장들로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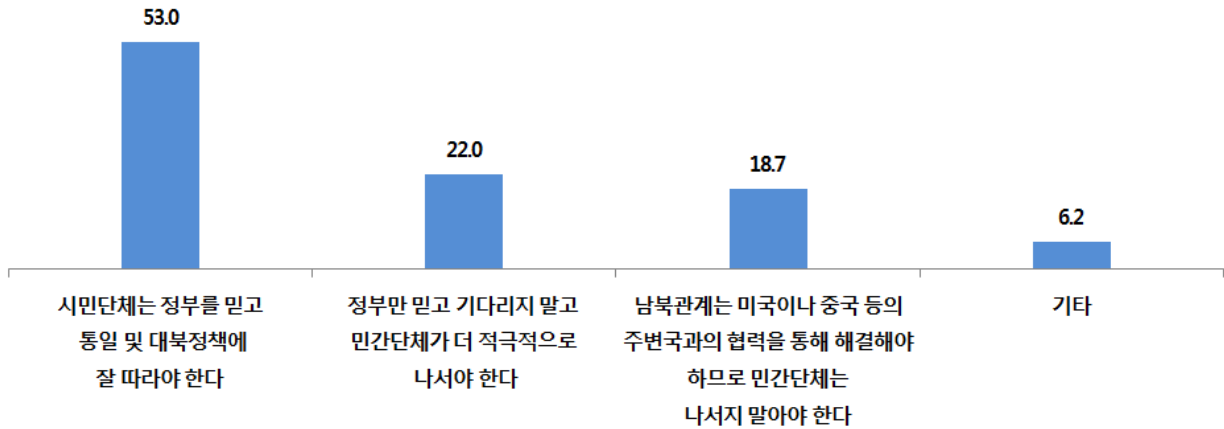


그림 6.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

현 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은 코로나19와 비교하여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대략 절반 정도가 현 정부 정책에 지지하고 따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나머지는 민간단체의 역할이나 주변국의 협조 등 정부 이외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가며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위 두 분야의 설문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는 분단 후 70년 동안 ‘군사안보’를 최우선으로 여겨왔고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 민간단체와의 관계, 주변국과의 관계 등이 형성되었다. 위 결과는 한국의 개신교인의 사례에 한정되지만 상당수가 북핵문제를 포함하여 북한을 안보의 위협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능력을 신뢰하는 비율이 대략 절반 정도에 미치고 근래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결과는 엄밀히 말하면 남북관계가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현 정부가 통일 및 안보 위기를 해결할 것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결과, ‘군사안보’는 정부와 국제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한 설문결과에서 보듯이 ‘보건안보’의 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가 보여준 방역 및 질병 위기 관리 능력은 개신교인들에게도 정부 주도의 정책과 민간단체의 협력, 주변국과의 관계에서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얻어내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국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주변국(혹은 강대국)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형성한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불평등의 얼굴: 개신교인의 혐오도 심화와 사회구원 사이의 갈등

송진순
(이화여자대학교)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 중 <사회 및 젠더 분야>에서는 다음의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신교인의 젠더의식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제와 혐오도”라는 주제로 “첫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성차별과 불평등의 심화 정도와 둘째, 국가 권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개신교인의 공동체 의식의 변화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혐오도 조사”로 설정했다. 설문은 크게 4개 영역의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부 항목으로는 1) 가정생활 및 경제활동에서의 젠더 불평등, 2)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동체성의 강화, 3) 안전조치 시행과 혐오도 확산 여부, 4) 온라인 성폭력에 관한 인식에 관해 설문을 실시했다.

1. 젠더별 경제활동 및 가정생활에서의 성차별 인식

▶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 증가, “돌봄의 사회화와 경제적 성적 불평등 해소”가 시급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장에서의 감봉, 무급휴직, 실업에서 여성이 남성과 비교해 더 불리해졌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36.9%, ‘그렇지 않다’ 40%로 응답했다. 전체 응답률에서 불리함의 정도는 차이가 없었지만, 성비로 확인한 결과 응답률의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에서 불리했다’는 의견에 동의한 여성 응답자는 48.8%, 남성 응답자는 22.2% 였다. 이러한 응답률은 ‘여성, 비정규직,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여성들이 전문직, 정규직 이외 캐셔, 및 청소 용역, 요양 보호사 등 비정규직일 경우, 장기간 위기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더욱 제한되거나 불안정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경제란이 더 큰 문제로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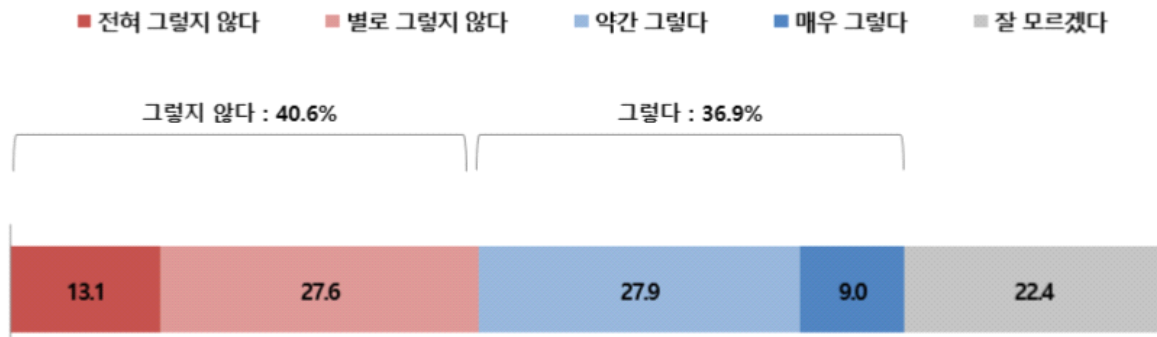


그림 1.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성 경제활동의 불평등 정도

첫 번째 설문 문항과 연계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임금과 일자리에서 경제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응답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그렇다’(44.8%)와 ‘그렇지 않다’(44.6%)는 응답률 간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성별 상관없이 경제 활동에서의 회복이 예상된다’는 의견에서는 남성의 59%, 여성 39%가 ‘그렇다’는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응답률에서 성별 간 차이가 뚜렷함을 알 수 있었다. 작년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2019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여성 비정규직 비율(41.5%)이 남성(26.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¹⁾ 고용안정과 임금 등, 경제 활동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여성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감봉, 무급휴직, 실업에서 남성보다 경제적 위기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회·경제적 성적 불평등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장기간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학교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프로그램들이 거의 멈추게 되면서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가정에서 여성의 돌봄노동이 증가했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지만(72.4%), 남성(56.4%)과 여성(85.3%) 간 체감온도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를 성별과 연령별로 확인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사회적으로 성적 불평등이 해소되었다 해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한 가족이 노인, 장애인, 약자를 돌봐야 하는 책임은 더 막중해졌다. 특히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돌봄에 관여하고 실천하는 사람의 80-90%가 여성이다. 장애인 복지 시설 및 노인 돌봄 시설들이 멈춰서면서 그 책임이 고스란히 가정 내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라해도,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여성이 어린이나 노약자를 돌볼 경우 부담은 가중되고 경제 상황은 더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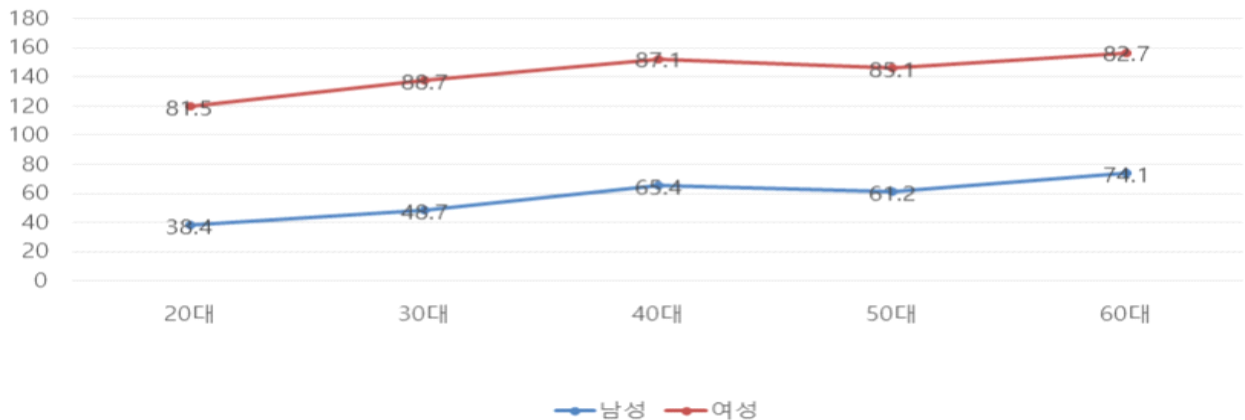


그림 2. 코로나19 중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연령 및 성별 간 응답률

이렇게 “돌봄 노동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돌봄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응답자 46.3%가 ‘아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센터와 프로그램’ 같이 실질적으로 노동 부담률을 줄일 수 있는 지원을 꼽았다. 돌봄 비용(14.3%)이나 돌봄 인력(19.4%) 지원보다는 시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적 프로그램을 시급한 과제로 지적한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 돌봄이 개인이나 가정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및 세제 정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시사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사실 돌봄의 사회화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돼왔으나 이번 위기를 통해, 여성 노동이 불안하고 돌봄이 한 가정이나 여성에게 전담되는 것에서 벗어나 돌봄의 사회화, 전문화가 시급한 요청 과제임을 보여주었다.

1) “2019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9.7.1.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서 제출한 보도자료.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5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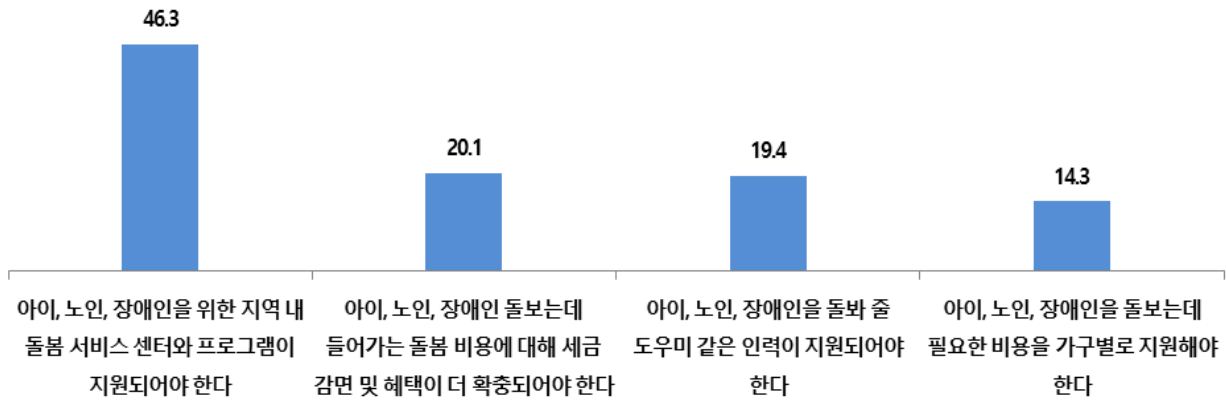


그림 3. 돌봄 노동에서 최우선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

2.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동체성의 강화와 혐오인식의 확대

- ▶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성 강화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도 강화됨, 반면 교회의 구제, 복지, 섬김이라는 사회구원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도 함께 실행됨.

코로나19 확진자를 추적하고 방역 및 안전 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과 시민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자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와 가족 그리고 자신이 속한 모임과 직장에 대한 공동체성은 강화되었다. 65.6%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었다”고 응답했다. 공동체성의 강화는 연령이 높고 직분이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감염이 두려운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내 가족 이외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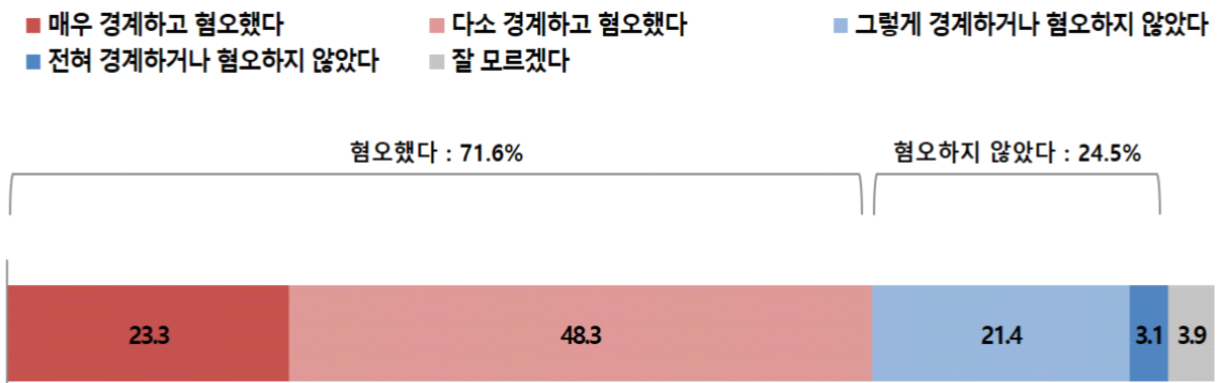


그림 4. 코로나 진원 집단에 대한 반응

이와 함께 코로나 감염의 진원지(신천지, 해외입국자, 이태원 클럽)에 대한 혐오는 두드러졌다. “코로나 19 진원지가 된 집단들에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서 ‘경계하거나 혐오했다’는 응답(71.6%)이 ‘혐오하지 않았다’는 응답(24.5%)에 비해 47.1%p의 차이가 났다. 혐오 반응은 20~30대 보다 4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신앙정도와 직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태원 클럽 감염 이

후 동성애자에 대한 반감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률은 비슷했다. ‘동성애자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고 답변한 사람이 65.3%,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26.3%로 나타났고, 일부인 8.4%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바로 앞의 질문과는 달리 혐오도의 심화 경향은 연령이 높고, 교회 출석하고, 신앙이 깊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가령, 교회에 주 3회 이상 출석하는 교인의 혐오 응답률은 71.6%인데, 주1-2회 출석자는 68.8, 비출석 교인은 54.0%로 나타났다. 이는 그리스도 중심층이 75.4%, 그리스도 친밀층 68.7%, 기독교 입문층이 55.2%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혐오경향성을 보여주었다. 동성애라는 조건 하에서 타집단에 대한 혐오도가 증가되는데 이는 신앙과 교회 출석빈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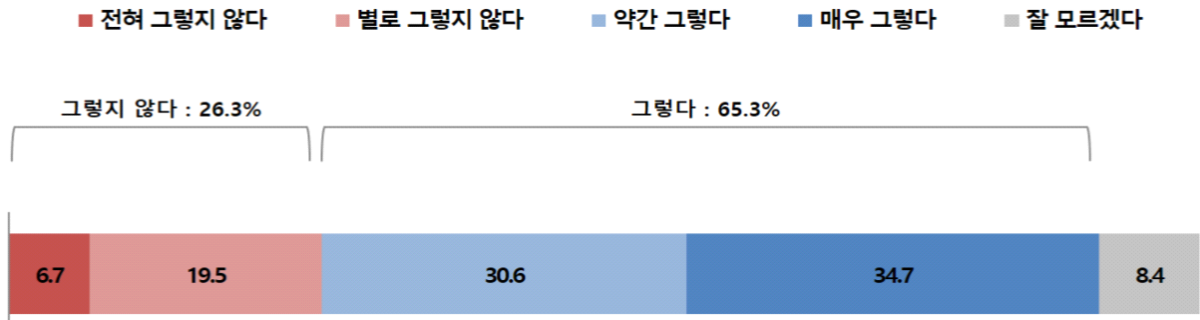


그림 5.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 후 동성애자에 대한 반감 증가여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기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타인에 대한 신뢰는 하락하고, 감염 우려로 인한 혐오도는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지 모른다. 그러나 교회에서 신앙이 깊을수록,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할수록 타집단에 대한 혐오가 두드러진다는 것은 주목할 점이다. 특히 감염 방지라는 일종의 안전조치가 나 외의 집단에 대한 경계 설정을 강화하고 성소수자와 같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반감과 혐오를 증대시키는 조건이라는 점은 개신교회가 다시 생각해야 하는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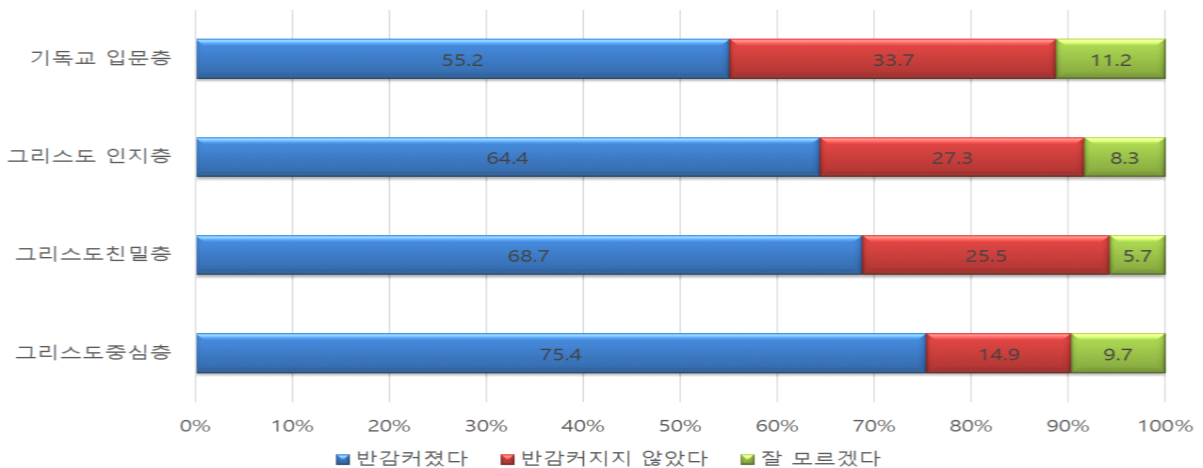


그림 6. 신앙도에 따른 이태원발 코로나19이후 동성애자에 대한 반감 증가 여부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과 ‘특정 집단에 대한 불신/경계 극복’ 중 더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서는 과반수 이상인 54%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특정 집단을 경계하고 불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응답했다. 특이점은 신앙 정도와 상관없이 직분이 높을수록 특정 집단에 대한 불신과 경계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분없는 성도(50.6%)에 비해 집사나 권찰(55.3%), 그리고 중직자(63.9%)에게 이러한 경향성이 발견됐다. 전체 설문 조사 중 젠더 분야 이외 정치분야의 문항에서 개신교인들은 “개인 이익보다는 사회의 이익이 우선시”(64.2%) 되어야 하고,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92.6%) 해야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막상 위기 앞에서는 당위적 윤리 의식보다는 자신과 자기 공동체에 대한 집단 의식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나 공적 영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 조치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만큼(65.6%)이나 나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집단 전체를 배제하거나 혐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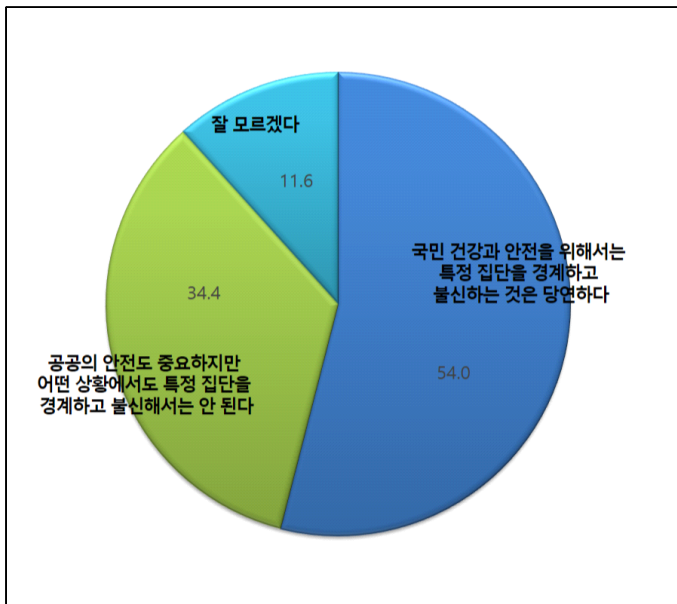


그림 7. ‘공공의 안전’과 ‘특정집단에 대한 불신 극복’에 관한 반응

그렇다고 개신교인이 무조건 배타적이고 혐오를 양산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위기 앞에서 공동체 의식이 강화됐다고 해도, “유학생, 난민, 외국인 배우자 등 외국인에게도 의료, 복지, 재정 지원을 우리 국민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51.5%가 ‘그렇다’, 41.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연령 대에서는 40대에서 가장 높았고(57.3%), 직분이 높고, 교회 출석빈도가 높으며, 신앙이 깊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교회 내부만이 아니라 교회 밖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응답 양상이 나타난다. 위기 상황에서 ‘구제, 나눔, 섬김’이라는 기독교적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함의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한다면, 코로나19와 같이 생명의 위협이라는 위기 앞에서 개신교인들은 국가의 시민으로서 협조하고 있으며, 구제와 봉사라는 교회의 사회 구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나, 타인에 대한 불신과 경계 설정에서는 포용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사회적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개신교인의 모습에 대한 성찰과 함께 기독교 본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과 관용의 실천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 온라인 성폭력 및 동성애자 축복에 관한 개신교인의 인식

▶ 온라인 성폭력의 심각성에서 공감대 형성, 문제점으로 죄책감과 쉬운 접근성을 꼽고 있어.

설문 후반부에서는 “온라인 상의 성매매와 성폭력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매매와 성폭력의 심각성”을 비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현장보다 온라인 상의 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41.8%, ‘약간 심각하다’ 14.8%, ‘별로 심각하지 않다’ 2.8%, ‘전혀 심각하지 않다’ 0.8%의 응답률로 나타났다. 최근 N번방 사건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보면서 다수 개신교인들(56.6%)이 온라인 상의 성매매와 성폭력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 사건들보다 더 심각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물론 이러한 응답률은 남성(50%)보다 여성(62%)에게 두드러졌다.

이어 “온라인 성폭력 및 음란물 배포 같은 성 착취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1+2+3 순위 기준으로는 ‘대면하는 범죄와 달리 죄책감에 둔감’하다는 답변이 46.9%로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게임 같은 쉬운 접근성’ 36.2%, ‘비대면과 익명성’ 35.4%, ‘인간을 성적 도구로 인식함’ 33.5%, ‘10대 청소년의 높은 참여도’ 3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세히 1순위 기준으로는 ‘비대면과 익명성’이 16.1%로 가장 높게 응답됐으며, ‘인간을 성적 도구로 인식함’ 15.0%, ‘대면하는 범죄와 달리 죄책감에 둔감함’ 13.4%, ‘스마트폰 게임 같은 쉬운 접근성’ 12.0%, ‘10대 청소년의 높은 참여도’ 11.2%로 나타났다. 순위합산으로 살펴볼 개신교인의 인식 지형은, 20-30대 젊은 세대일수록 죄책감 둔화(42.9%, 47%)와 온라인 매체 특성이 갖는 비대면과 익명성(42.9%, 43.3%)을 높게 지적한 반면, 직분이 높고 신앙정도가 높을수록 죄책감 문제(중직자45%,그리스도 중심층 45.9%)와 인간을 성적 도구로 인식하는 것(중직자 39.5%,그리스도 중심층 40.7%)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온라인 매체 이해도, 기독교적 인간 이해 등에 따라 응답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여기서 자행되는 성폭력과 성착취의 심각성을 문제로 지적했다(특히 20대 26%와 학생 28.3%는 ‘영상 및 채팅 기록의 영구 삭제불가능’이 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신앙이 깊고 직분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기독교적 인간 이해의 관점에서 인간의 성적 도구화, 비인간화가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들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간 인식 차이는 온라인 매체에 익숙한 세대에게 어떠한 성교육과 윤리의식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하는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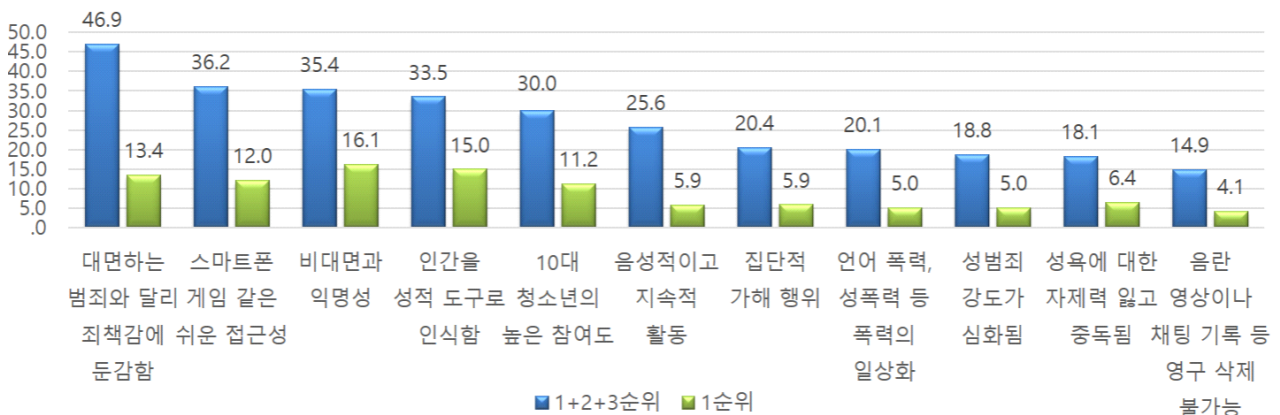


그림 8. 온라인 성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

▶ 동성애자 축복한 목사의 징계 여부는 목사의 축복권과 동성애 혐오 인식으로 양분된 경향

마지막으로, 작년 8월 성소수자 축복식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에 회부된 목사의 징계여부에 관해 질문했다. 시행되는 재판에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지지와 한 영혼에 대한 목사의 축복권에 대한 논쟁이 오가는 가운데, 목사 징계 여부에 대한 개신교인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축복은 목사의 권한이므로 누구를 축복하든 징계해서는 안된다’ 29.5%, ‘축복은 목사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동성애자를 축복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므로 목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27.3%, ‘축복은 목사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동성애자를 축복한 것은 잘못이므로 목사 자격은 유지하되 징계는 해야 한다’ 25.3% 등으로 의견이 분산된 형태를 보였다.

‘목사의 축복권 인정과 징계 비허용’의 응답률은 40대(38.3%), 비정규직(38.1%), 교회 출석하지 않고 층(45.4%), 직분이 낮고, 신앙 정도가 낮을수록(직분없는 성도 34%, 기독교 입문층 38.7%)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반면, ‘목사의 축복권보다는 축복의 수혜자가 동성애자’라는 점에 주목하여 목사 자격 박탈을 선택한 응답률은 60대(41.3%), 중직자(40.3%) 신앙이 높을수록(40.8%)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에는 ‘동성애자를 축복한 것은 잘못이나 목사 자격은 유지해야한다’는 의견과 ‘잘 모르겠다’는 판단 유보적 성향의 의견이 40% 이상 차지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성애자를 용납하지 않는 의견과 목사 축복권의 보편성의 원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교회 전체가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 혐오에 앞장 선다는 사회 보편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결과는 동성애 혐오가 개신교인 다수의 압도적 의견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동성애 혐오 인식만큼이나 교회가 성소수자를 떠나 누구든 포용적이 되어야 하며 축복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한다는 입장 역시 다수 개신교인의 의견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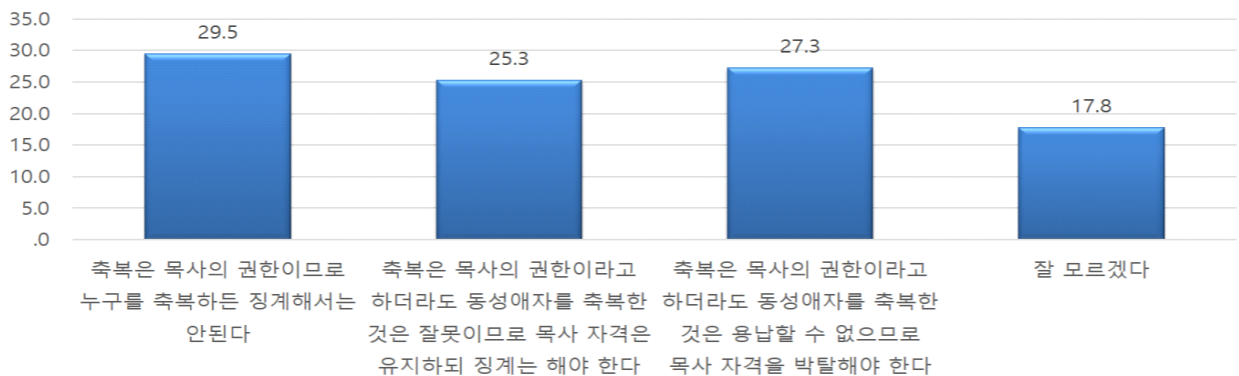


그림 9. 동성애자 축복한 목사의 징계 여부

마치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침체는 물론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평등을 넘어 파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노인, 장애인,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 더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나아가 보이지 않는 노동 현장, 여성에게 편중된 가사와 돌봄, 열악한 외부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우선적으로 경제 활동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20~30대 여성과 경제 취약계층의 자살률이 2019년에 비해 13.6~17.9%나 증가했다고 전한다.²⁾ 올해 택배 노동자가 8명이 노동 현장에서 과중한 업무를 이기지 못해 사망했다. 위기는 그간 잠재되었던 불평등과 차별을 드러내고 이를 가속화시킨다. 또한 우리라는 내적 집단의 동력을 강화함으로써 경계를 설정하고 타인, 타집단에 대한 배제와 혐오는 심화된다.

물론 위기 속에서 공존과 상생 그리고 협력의 기독교적 가치가 발현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정책, 안전 조치, 그리고 복지 제도 등 사회 경제 정치라는 다층적 구조가 교차하는 가운데 강력한 국가를 요청하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물리적 제도를 넘어서는 기독교적 가치관과 윤리의식의 실현일 것이다. 생존을 위해 너 없는 나를 선택하는 자기중심적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해 나를 내어준 그리스도의 삶을 품고 사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이다. 시대의 끝에서 실현하고자했던 하나님 나라는 현실에서의 도피나 위안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사회적 동력이자 실천이다.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사랑과 구원의 동력이 마지막을 사는 이들을 위한 시민적 역량으로 거듭나야 하는 때이다.

2) “심상찮은 코로나 블루, 수도권 2030 여성 극단 선택 급증.” 2020.9.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87129>

코로나19 이후의 개신교 신앙 지형

이 민 형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책임연구원)

1. 들어가며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은 ‘뉴노멀’(new normal), ‘비대면’(untact), ‘거리두기’(distancing) 등과 같은 개념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던 ‘일상’의 면면들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종교의 영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많은 종교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고,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종교적 공간에 모이는 것 자체를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권고가 내려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회에는 최소한의 인원만이 출입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교인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다. 일부는 정부의 조치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고, 집단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으나,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이미 교회의 ‘뉴노멀’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지금껏 특정한 공간에 모이는 것을 종교적 제의의 형태로 삼아왔던 개신교인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상당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가? 앞으로 교회의 의미와 역할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2020년 7월에 실시한 ‘2020년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중 신앙 분야의 설문 결과 일부를 바탕으로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한다.

2.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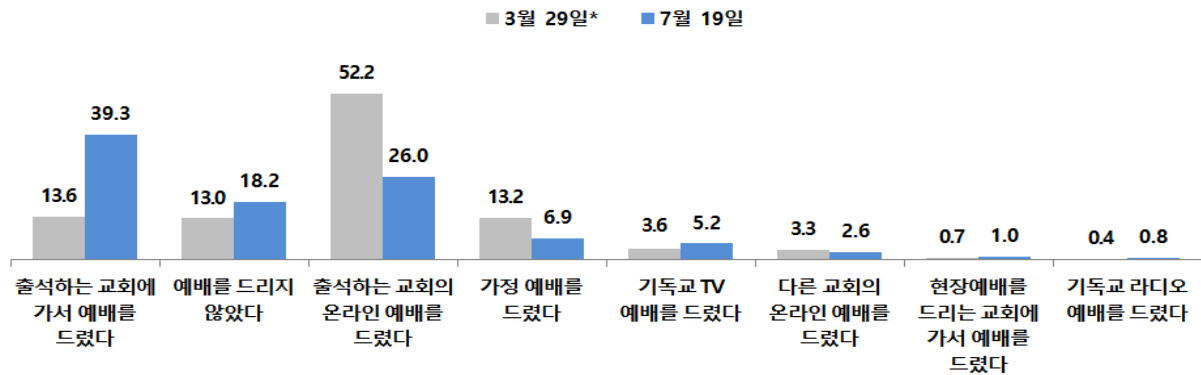
2020년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가 진행되었다. 크게 여섯 분야(정치, 경제, 생태, 한반도와 국제관계, 젠더, 그리고 신앙)로 진행된 위의 조사 중, 신앙 분야에서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한국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교회와 개신교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총 15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그 중 개신교인의 신앙생활을 살펴보기 위해 구성된 질문은 총 11개 문항이었다. 특히 11개의 문항 중 6개의 문항은 지난 3월 29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언론포럼에서 실시한 공동조사와 질문의 형태를 같이 하여, 코로나19의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개신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생겨났는지를 살펴보는 척도로 삼았다. 이후로 이어진 설문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배’가 아닌 ‘신앙’ 활동에 대한 질문을 통해 비대면 예배가 점차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성숙시킬 수 있는가에 관해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종교집회 자제 권고와 여론에 반영된 교회의 이미지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생각,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의 활동 및 역할 등을 묻는 질문을 통해 개신교인 공동체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3.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신앙생활

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예배

우선적으로 살펴본 내용은 설문 조사 직전의 일요일(주일)에 참여한 예배의 형태에 관한 것이었다. 아래의 <그림 1>이 보여주듯, 설문이 이루어질 당시(7월 중순-말)만 해도 4월 말부터 이어진 대면 예배 재개의 여파로 인해 많은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가 예배를 드렸다. 코로나19 상황의 초기라 할 수 있는 3월 말에 이루어진 조사 결과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가 예배를 드렸으며,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반으로 줄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조사가 이루어진 약 2주 후, 일부 개신교인들의 무모한 집단행동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강화되었기에, 이 설문의 결과만으로 개신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대면 예배 자제 권고 조치가 약화된 4월 말 이후부터 많은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가 예배를 드렸다는 결과를 통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교인들의 열망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코로나19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었을 때, 많은 개신교인들은 교회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 출처 : 코로나 19로 인한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보고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국기독교언론포럼, 2020.04 (전국 만 18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대상 온라인 조사)

그림 1. 지난 주일(7월 19일) 예배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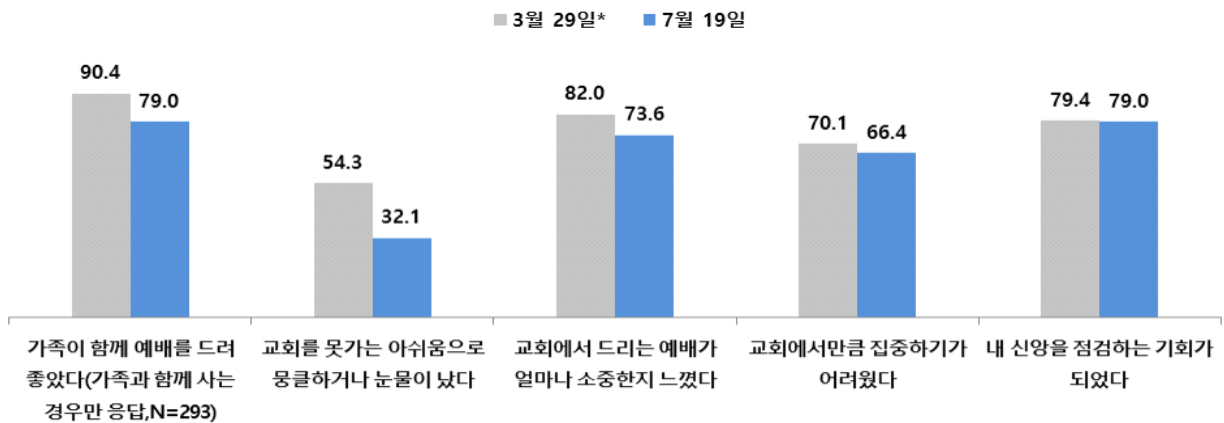
이 설문 문항에서 더불어 주목할 지점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개신교 인구의 증가이다. 대면 예배의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개신교인들이 증가했다는 것은 ‘매주 드리는 주일예배’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 의미가 약해졌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 글에는 신지 않았지만) 이번 설문조사의 세부 분석에 따르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인구의 상당수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이들이거나,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이들이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절대다수의 교인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규칙적인 주일예배에서 이탈하는 개신교 인구가 많아지리라고 전망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교회에 모여 드리는 예배가 가지고 있던 일종의 구속력이 상실되었다는 의미이며, 향후 개신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주일예배 중심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 온라인 예배의 활성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전히 많은 개신교인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상황에서 새롭게 나타난 신앙적 변화는 ‘온라인 예배의 활성화’라고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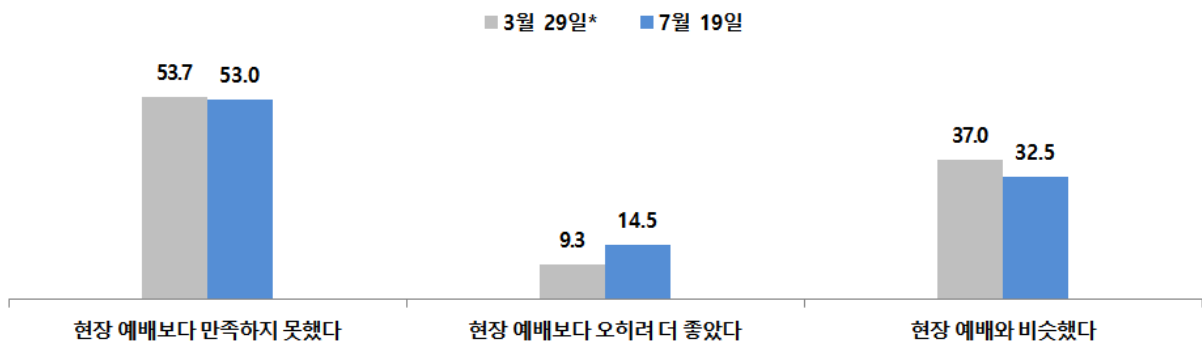
수 있다.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시작된 온라인 예배였기에 ‘활성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의 초기와는 달리 지금의 온라인 예배는 일시적인 대안을 넘어 새로운 예배의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배경에는 단지 기술의 발전만이 아니라 많은 교인들의 참여와 호응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림 2>와 <그림 3>에 나타난 설문조사의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 3월에 실시한 조사에 비해 상당수의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를 가지 못하는 아쉬움’이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으며<그림 2>,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비교했을 때에도 만족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그림 3>. 이는 대면 예배가 잠정적으로 재개된 시기에 조사된 개신교인들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직접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온라인 예배를 선호한다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약 1,500여 년간 이어져 내려온 기독교의 제의 형태, 즉 ‘한 공간에 물리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전통에 균열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대안이나 부차적인 예배 수단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개신교의 새로운 종교적/신앙적 활동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 출처 : 코로나 19로 인한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보고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국기독교언론포럼, 2020.04 (전국 만 18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대상 온라인 조사)

그림 2. 현장 예배 대체 경험으로 느낀 점



* 출처 : 코로나 19로 인한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보고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국기독교언론포럼, 2020.04 (전국 만 18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대상 온라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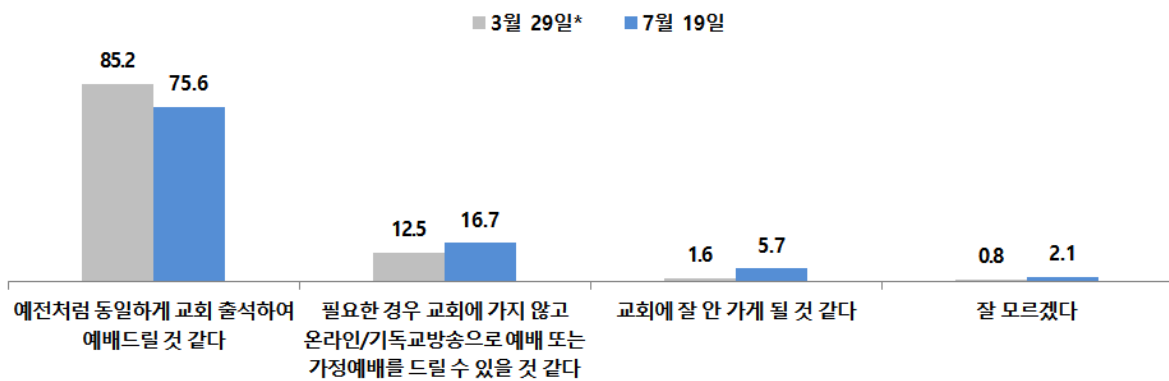
그림 3. 온라인 예배/기독교방송 예배와 현장 예배 비교

한편 <그림 2>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 좋았다’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이 낮아진 것을 두고 온

라인 예배의 한계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온라인 예배에 대한 불만족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온라인 예배가 점차 세대별로 세분화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의 대안으로 급하게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온 가족이 모여 하나의 예배 콘텐츠를 수용해야 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회에서도 세대별로 각기 다른 온라인 예배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굳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결국 이는 온라인 예배가 오늘날 교인들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맞춰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4. 코로나19 이후로 두드러지는 개신교 신앙의 변화와 의미

결국 위의 설문을 통해 밝혀진 바는 코로나19 발생 이후로도 상당수의 개신교인들은 여전히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점차 비대면/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고 있으며, 일부의 개신교인들은 그마저도 참여하지 않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열망은 개신교인들이 지금까지 가져온 기본적인 태도였으니 차치하더라도, 교인들의 주일 예배 이탈 증가와 온라인 예배 선호 현상은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주목할 만 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이후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에 관한 설문 답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이후에(다시 말해서 현장 예배가 전면 허용된다 해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응답자는 3월에 비해 줄어든 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응답자와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자의 숫자는 증가했다. 이번 설문조사가 비대면 예배가 어느 정도 허용된 7월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했을 때, 이러한 응답의 변화는 예배의 형태가 변해가고 있다는 반증일 뿐 아니라 신앙의 형태 자체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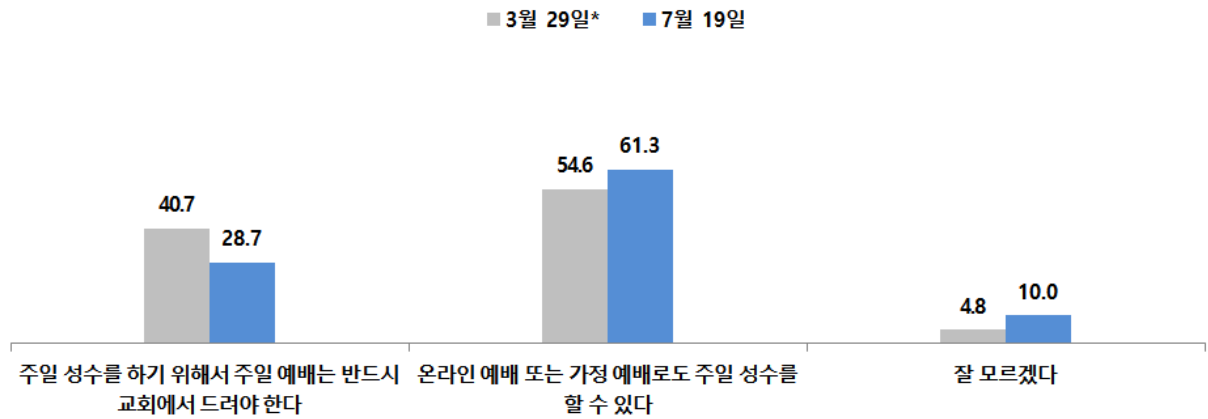


* 출처 : 코로나 19로 인한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보고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국기독교언론포럼, 2020.04 (전국 만 18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대상 온라인 조사)

그림 4. 코로나19 종식 이후 예배 형태 예상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신앙 태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는 주일 성수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인식 변화이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 일요일을 “주일”이라는 종교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하루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주일 성수)로 보냈던 개신교인들에게 종교적 공간의 제약 및 변화는 결국 종교적 규율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하루(주일)에 종교적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생각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진행될수록, 다시 말해서 비대면/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시기가 길어질수록 더욱 확고해 지고 있다. 이는 교회에 가고 싶다는 개인적인 열망과 자발적인 참여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개

신교인들을 일주일에 하루 (또는 그 이상) 동안 교회에 머물도록 권유했던 종교적 서사가 가지고 있던 설득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 출처 : 코로나 19로 인한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보고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국기독교언론포럼, 2020.04 (전국 만 18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대상 온라인 조사)

그림 5. 주일 성수에 대한 의견

이와 같은 결과는 결국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의미 즉, 시공간을 공유하는 신앙 공동체성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개신교인의 종교성에 대한 척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동안 ‘예배’(그중에서도 설교)에 과한 무게중심을 두었던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신앙인’ 혹은 ‘신앙 공동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주일예배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의 응집력이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교인들의 신앙의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제부터라도 교회 바깥의 장소에서 지속적인 신앙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시작된 것처럼 신앙의 정도가 낮은 이들에게 점차적으로 (하지만 급격하게) 교회에서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오늘날 한국 개신교가 처한 상황은 주일예배와 목회자의 설교를 지나치게 중요시한 교회의 과오가 만들어낸 결과이자 동시에 이에서 벗어난 새로운 신앙 훈련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5. 신앙 공동체로 가는 길

과연 주일예배에 집중된 교회의 신앙 형태가 코로나19 이후 바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신앙적 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교회는 예배 중심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신앙 활동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가? 기실 기독교의 다른 종파에 비해 지금까지 개신교 교회는 목사의 설교에 무게가 실린 (주일)예배를 신앙의 핵심으로 강조해왔다. 교인들은 언어라는 매개를 통한 성서의 해석과 적용이 반복적으로 주입되는 (학습의) 과정을 통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예배를 포함한 신앙 활동에서 능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신앙의 성숙을 위한 개인적 훈련이나 활동 경험이 지극히 적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교인들의 이러한 신앙적 특징은 종교적 격리를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는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하는 듯하다. 먼저 장점은 설교 중심의 온라인 예배를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

는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다른 종파의 예배나 미사에 비해 개신교의 예배는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순서가 월등히 적으며 예배의 초점은 목사의 설교에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온라인 예배의 구성에서도 가장 단순한 형식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이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거칠게 비유하자면, 코로나19 전후의 예배는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가, 온라인 강의를 듣는가의 차이이다. 그래서인지 온라인 예배가 필연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는 참여자들의 수동성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이를 현상황의 필연적인 변화로 여기며 받아들이는 듯하다.

<그림 6>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코로나19 이후 교회에서 강화해야 할 영역으로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꼽은 응답자들이 46.9%로 월등하게 많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이들은 온라인 예배를 넘어 온라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도 그리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설교가 아니라 온라인 시스템 및 콘텐츠 자체라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행해진 다양한 설문조사에서 “설교력 강화”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던 목회자들의 생각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비대면/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개신교인들은 언어를 매개로 하던 기존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이미지와 소리, 그리고 다양한 영상 효과를 통해 다채로운 체험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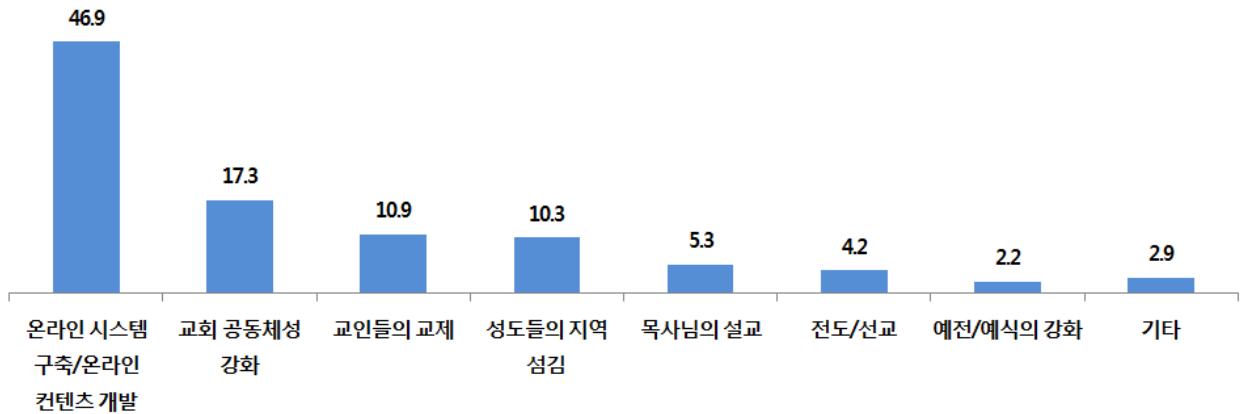


그림 6.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강화해야 할 사항

하지만 신앙생활의 미디어를 중점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다양한 감각적 체험을 제공한다고 해도 온라인 시스템과 콘텐츠를 통한 종교 생활은 이전보다 더욱 수동적인 신앙 태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교회라는 공유된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모니터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를 통해 신앙 활동을 한다는 것은 신앙의 주도권이 신자 개인이 아닌 콘텐츠를 제공하는 쪽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개인 맞춤형 콘텐츠가 개발되어 개별적으로 서비스되지 않는 한, 각자의 상황을 온전히 반영한 신앙 담론이 제공될 수가 없다. 물론 교회에 모인다고 해도 일대 다수의 관계라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들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소극적으로라도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예배 후에는 목회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제한적인 온라인 신앙생활보다는 주도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니, 결국 개인의 신앙 성숙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신앙생활의 실천방안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예배’ 공동체보다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말은 이런 의미이다.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교인들은 개인의 신앙을 어떻게 훈련하고 성숙시키는지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해볼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부족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전통에 따른

기도나 종교적 이미지를 활용한 묵상, 상징물들을 통한 신앙 성찰 등은 개인의 신앙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오래된 영성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교인들에게는 낯선 방식이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설교’나 ‘제자훈련’과 같은 언어적 학습에 집중되어 있다(<그림 7> 참조). 물론 이러한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필연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수동성)가 분명하고, 그 한계는 온라인이라는 방식에서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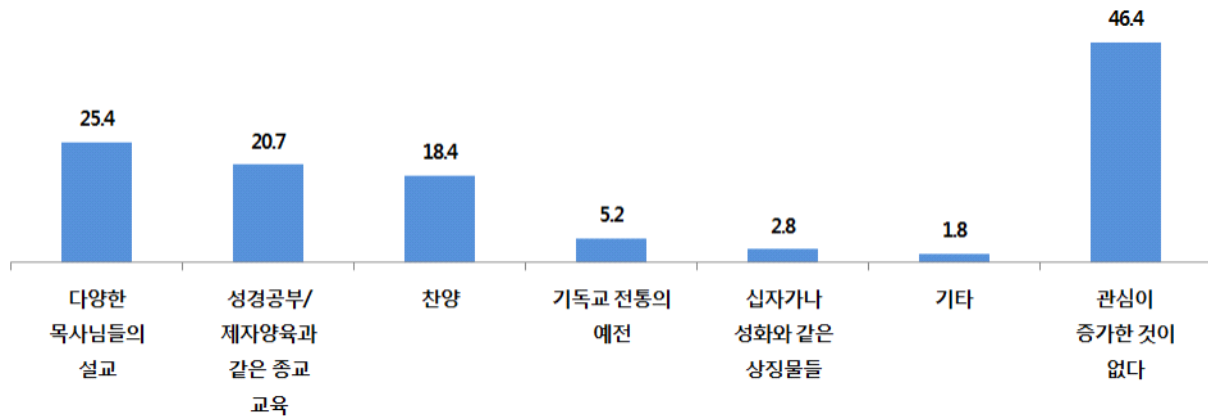


그림 7.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신앙생활 관련 관심 사항

따라서 교회는 교회의 시스템과 교회 구성원을 안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온 예배 중심의 공동체성을 벗어나 교인 개개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 경험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제안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느냐이기 때문이다.

6. 나가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이후 한국 개신교인들의 신앙 형태에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미 온라인 예배의 가/부에 대한 논의는 끝난 지 오래이며, 많은 교인들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졌다. 비대면/온라인 예배로 주일 성수와 같은 오랜 종교적 관습마저 대신하려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교회라는 공간과 주일이라는 시간은 가정과 일상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인구 역시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 개신교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상황에 알맞은 대안의 제시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개신교인들의 요구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로 귀결하고 있을 뿐,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 이상으로 자발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코로나19 상황의 종식을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바, 작금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여전히 일방적인 전달 방식의 온라인 예배보다는 참여형 콘텐츠의 개발, 교회 중심의 신앙보다는 가정 중심의 혹은 일상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권장한다면, 이전보다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며 글을 마친다.

부록 1. 설문응답 및 그래프



1. 정치 분야

1) 정치적 성향

Q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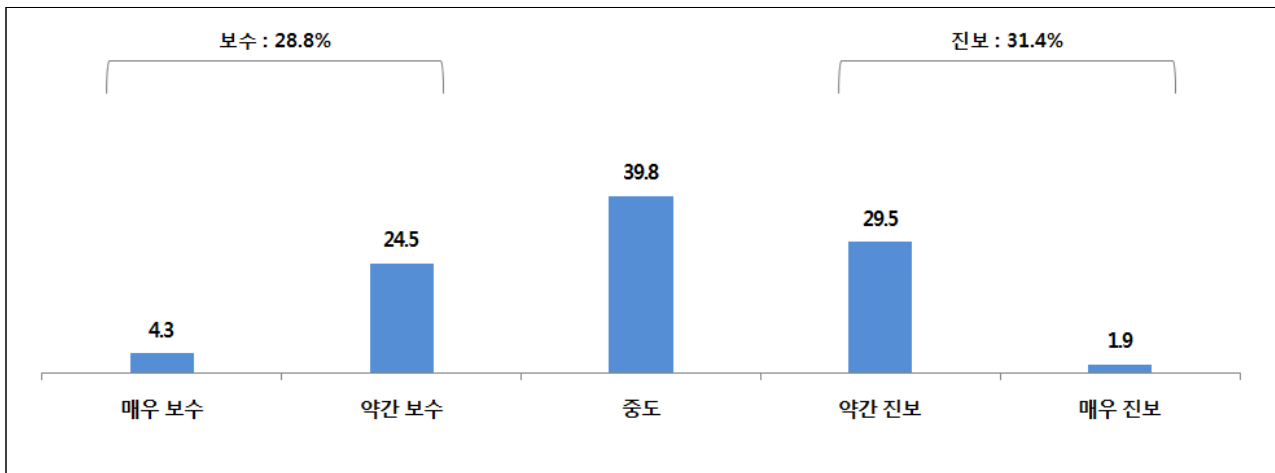


정치적 성향에 대해 개신교인의 39.8%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고 응답함.
'진보'라고 응답한 비율은 31.4%, '보수'라고 응답한 비율은 28.8%임.

'남성'과 '60대', '대구/경북' 그리고 '종직자'와 '신앙의 정도'가 높을수록 '보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40대'와 '광주/전라', '700만원 이상 소득자', '교회 비출석자'에서 '진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정치적 성향

(Base=전체, N=1000, %)



2)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의 권리'와 '정부의 권한/통제' 중 강해지는 것

Q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더 커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부의 권한과 통제가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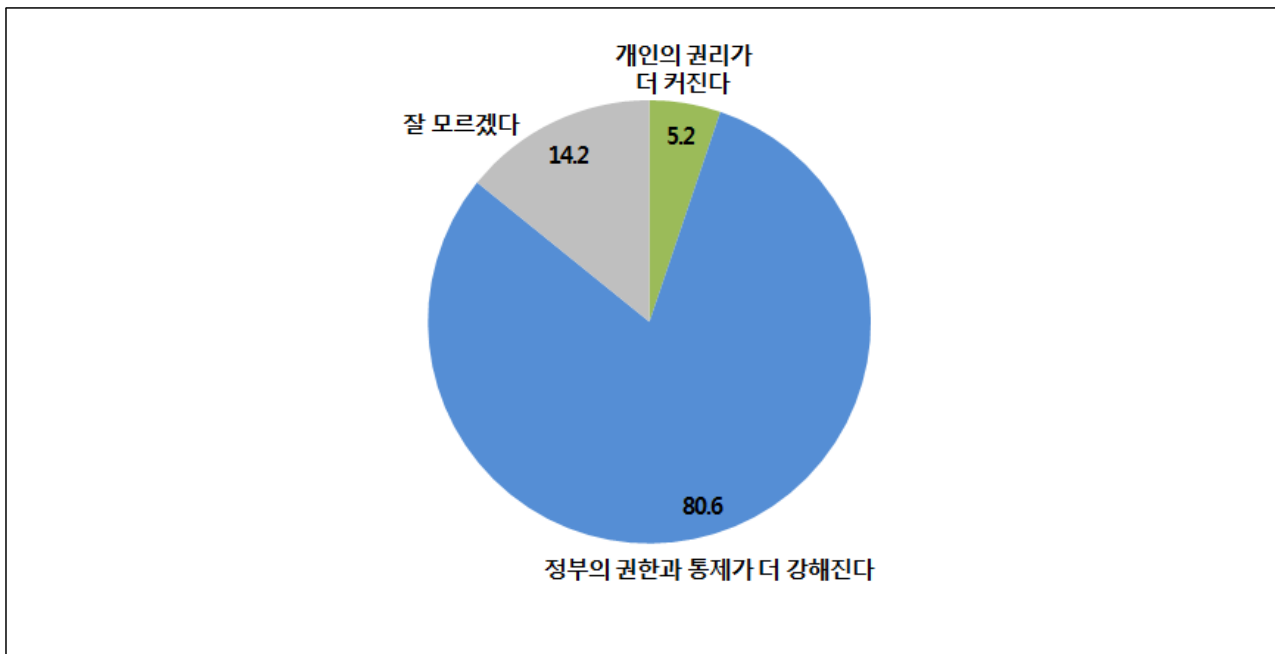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의 권리와 정부의 권한/통제 중 어떤 것이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정부의 권한과 통제가 더 강해진다'는 응답률이 80.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정부의 권한과 통제가 더 강해진다'는 응답률은 '교회 출석자'와 '중직자', 그리고 신앙의 정도가 깊은 '그리스도 중심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수록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교회에 내려진 다양한 규제 및 통제를 더 직접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라고 보여짐.

[그림]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의 권리'와 '정부의 권한/통제' 중 강해지는 것

(Base=전체, N=1000, %)



3)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 상충 시 추구 방향

Q

귀하의 이익과 귀하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 상충되었을 때 귀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상충되었을 때, 개신교인의 절반 이상(57.4%)은 '집단에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나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응답함.

그 다음으로는, '나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집단의 이익을 추구' 27.9%, '나에게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집단의 이익을 추구' 12.6%, '집단에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나의 이익을 추구' 2.1%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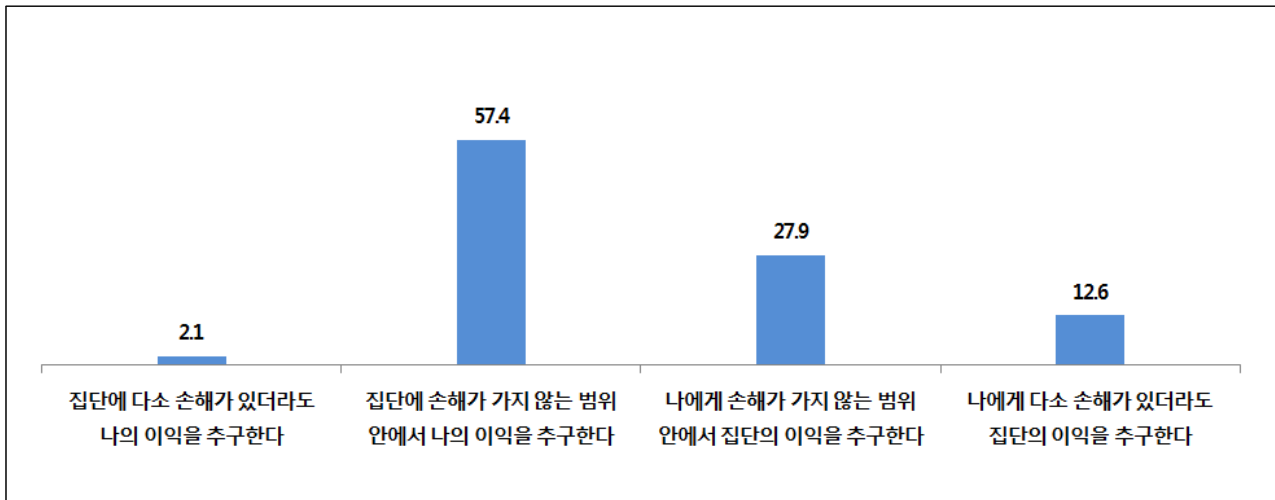
'집단에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연령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고,

'나에게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연령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아, 이익 추구 방향은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또한 '집단 이익 추구' 응답률은 직분이 높은 '중직자'일수록, '나의 이익 추구' 응답률은 직분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그림]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 상충 시 추구 방향

(Base=전체, N=1000, %)



4) 풋볼 집회 참가 횟수

Q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풋볼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참여 횟수를 써 주세요.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으면 '0'번이라고 써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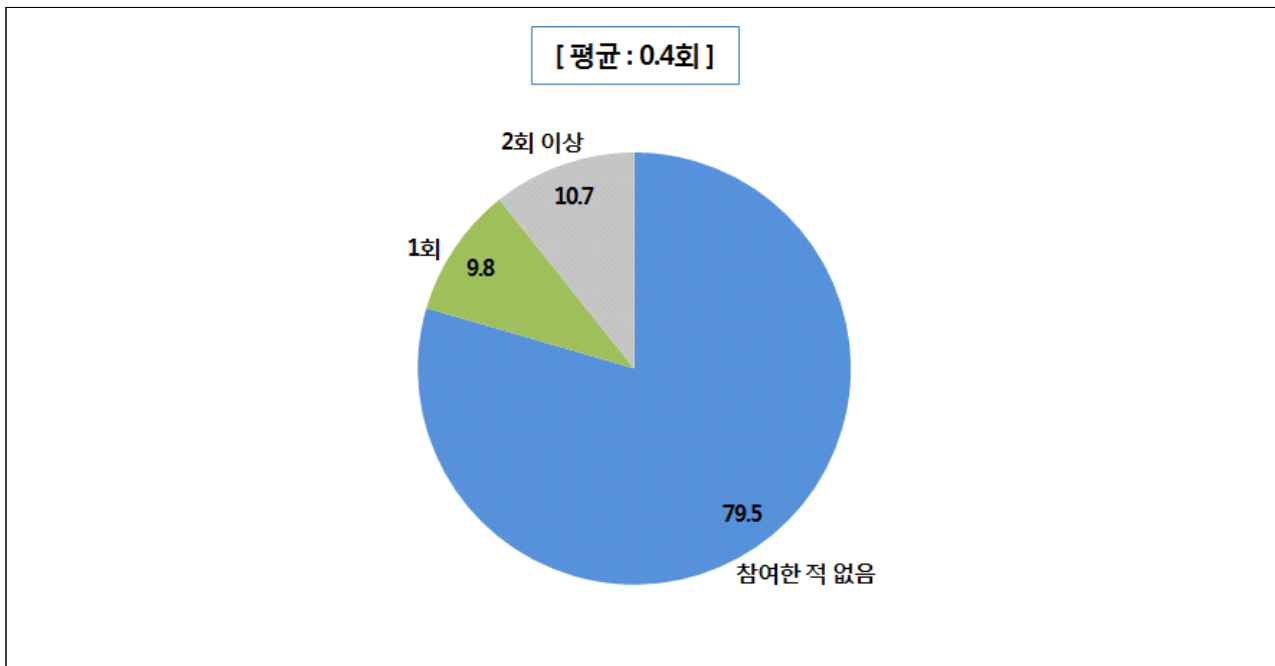


개신교인의 79.5%는 풋볼 집회에 '참가한 적 없다'고 응답했으며, 9.8%는 '1회 참여', 10.7%는 '2회 이상 참여'했다고 응답함. 평균 참가 횟수는 0.4회로 나타남.

평균 참가 횟수는 '남성'과 '학생' 및 '화이트칼라'에서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음.

[그림] 풋볼 집회 참가 횟수

(Base=전체, N=1000, %)



5) 태극기부대 집회 참가 횟수

Q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태극기부대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참여 횟수를 써 주세요.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으면 '0'번이라고 써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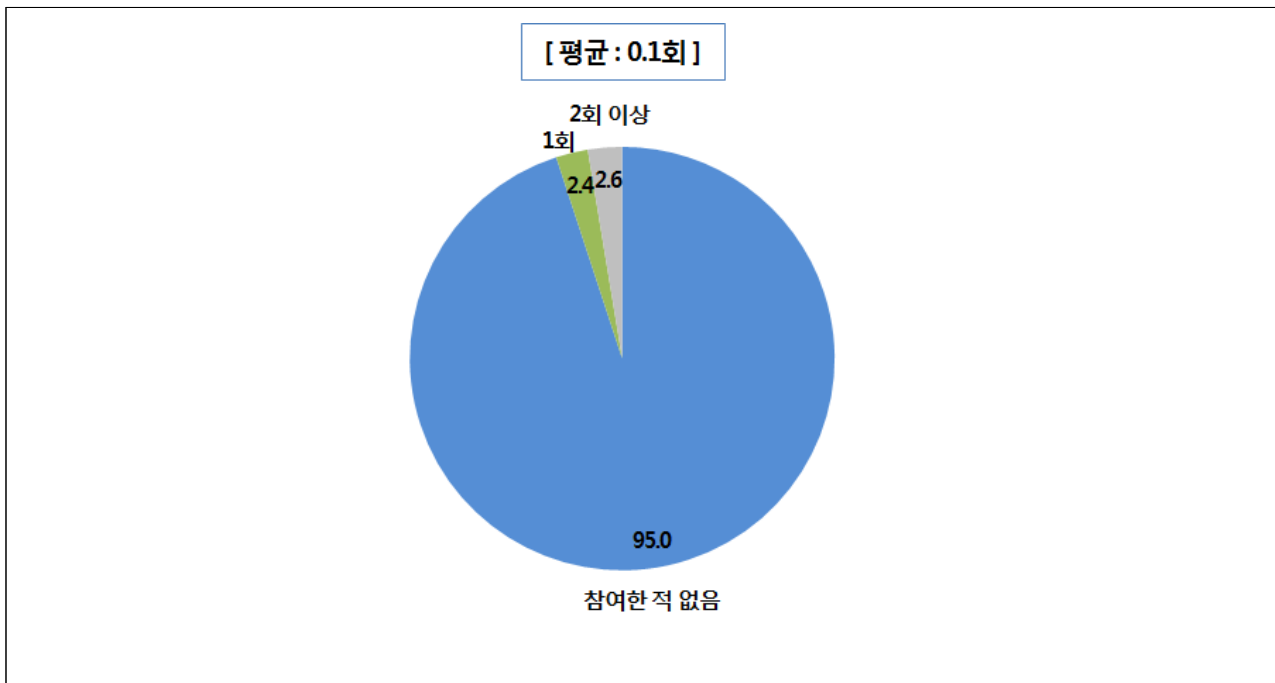


태극기부대 집회에는 95.0%가 '참여한 적 없다'고 응답했으며, '1회 참여'는 2.4%, '2회 이상 참여'는 2.6%로 나타남. 평균 참가 횟수는 0.1회임.

평균 참가 횟수는 '60대'와 '블루컬러'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음.

[그림] 태극기부대 집회 참가 횟수

(Base=전체, N=1000, %)



6) 마스크를 쓰는 이유

Q

코로나19 이후로 사회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귀하께서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스크를 쓰는 이유에 대해 두명 중 한명은 '내가 감염되지 않기 위해'라고 응답함.(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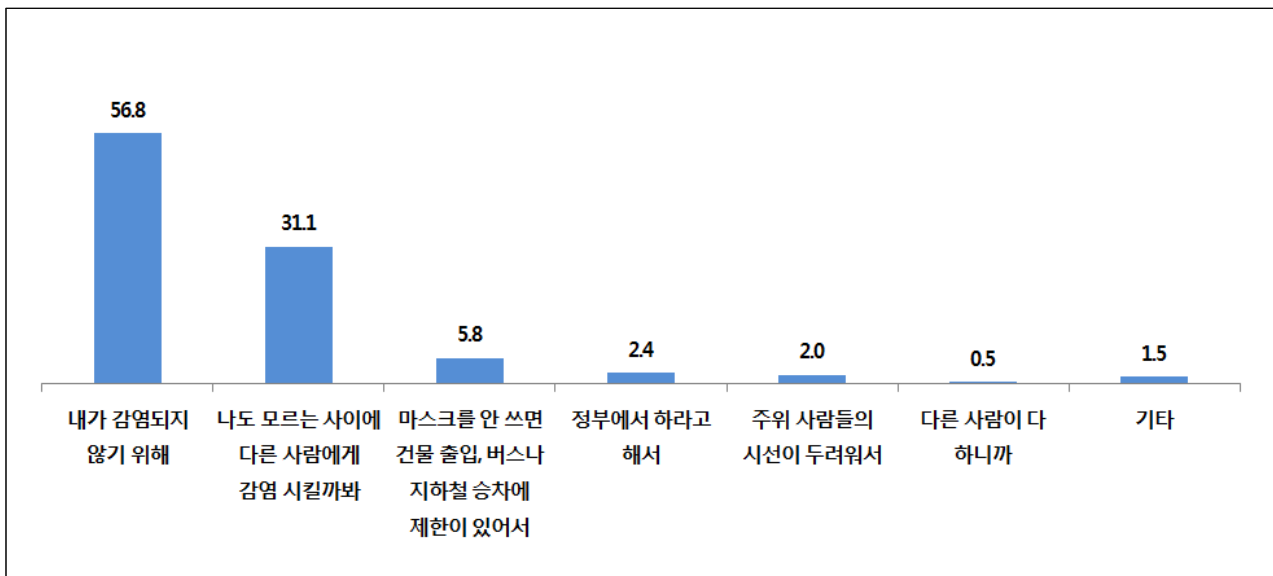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감염 시킬까봐' 31.1%, '마스크를 안 쓰면 건물 출입, 버스나 지하철 승차에 제한이 있어서' 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내가 감염되지 않기 위해' 응답률은 '여성'과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까봐'는 '남성'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직자'와 '교회 비출석자'와 '신앙의 정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마스크를 쓰는 이유

(Base=전체, N=1000, %)



7)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생각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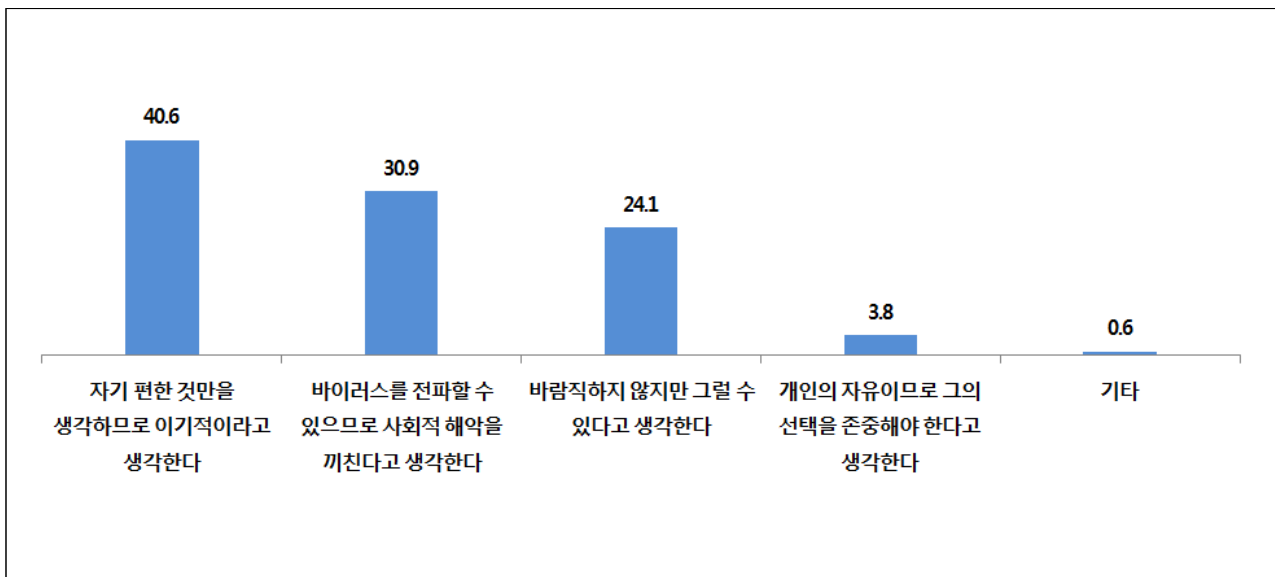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선 40.6%가 '자기 편한 것만을 생각하므로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함.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한다'는 30.9%,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24.1% 응답됨. 즉, 응답자의 71.5%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부정적 생각(이기적, 사회적 해악)을 가지고 있으며, 27.9%는 이해 또는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생각

(Base=전체, N=1000, %)



8) 마스크 미착용자 처벌에 대한 의견

Q

코로나 19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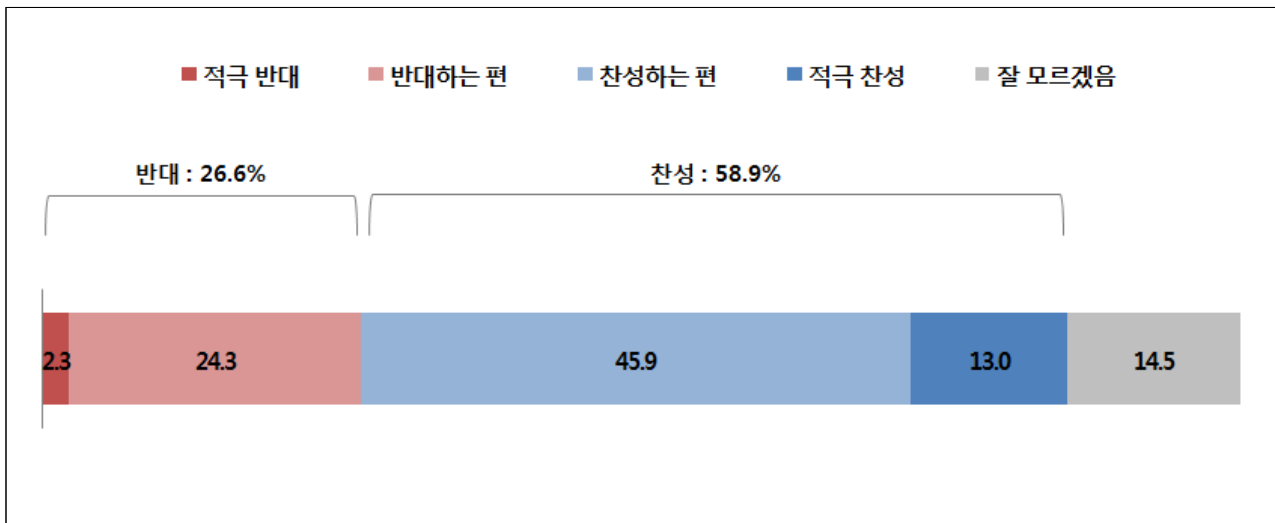


마스크 미착용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58.9%가 '찬성' 의견을 보임.

'찬성' 의견은 '여성'과 '50대' 및 '6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반대' 의견은 '남성'과 '블루컬러'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직분'이 높을수록 법적 처벌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그림] 마스크 미착용자 처벌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000, %)



9)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

Q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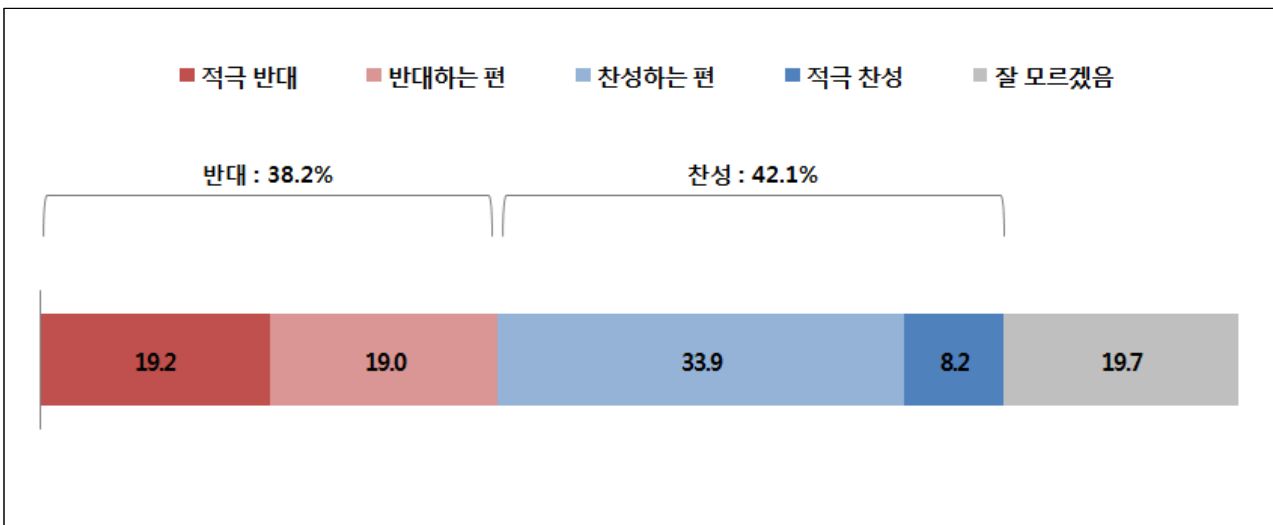
차별금지법에 대해 응답자의 42.1%는 '찬성', 38.2%는 '반대' 의견을 보임.

'반대' 비율은 '60대'와 '교회 출석자', 그리고 '중직자', '주3회 이상 예배 참석자', '500명 이상 중대형교회'에서 더 높고, '신앙의 정도'가 높을수록 '반대' 비율이 높아짐.

'찬성' 비율은 '40대'와 '직분없는 성도', '교회 비출석자', '월 3회 이하 예배 참석자'에서 높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음.

[그림]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000, %)



10)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한 각 항목에 대한 의견

Q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자국민 안전과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가 가장 높은 동의율(96.8%)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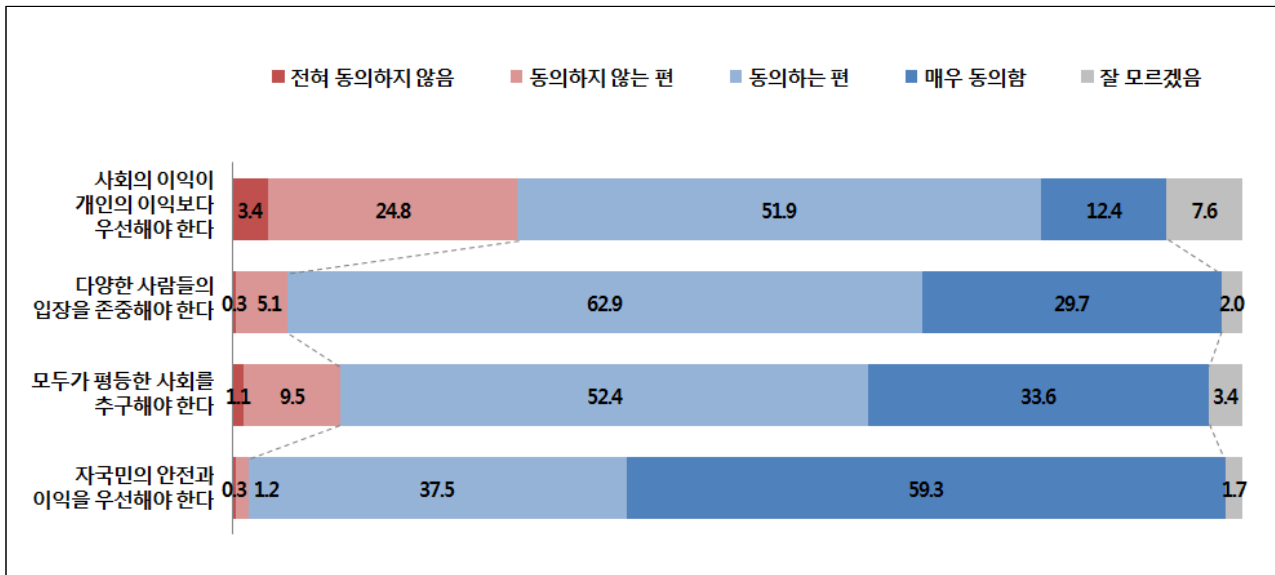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92.6%,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86.0%, '사회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한다' 6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사회의 이익이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와 '60대' 그리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은 '신앙의 정도'에서 '입문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한 각 항목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000, %)



2. 경제 분야

1) 장로가 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

Q

귀하께서는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데에 다음 항목이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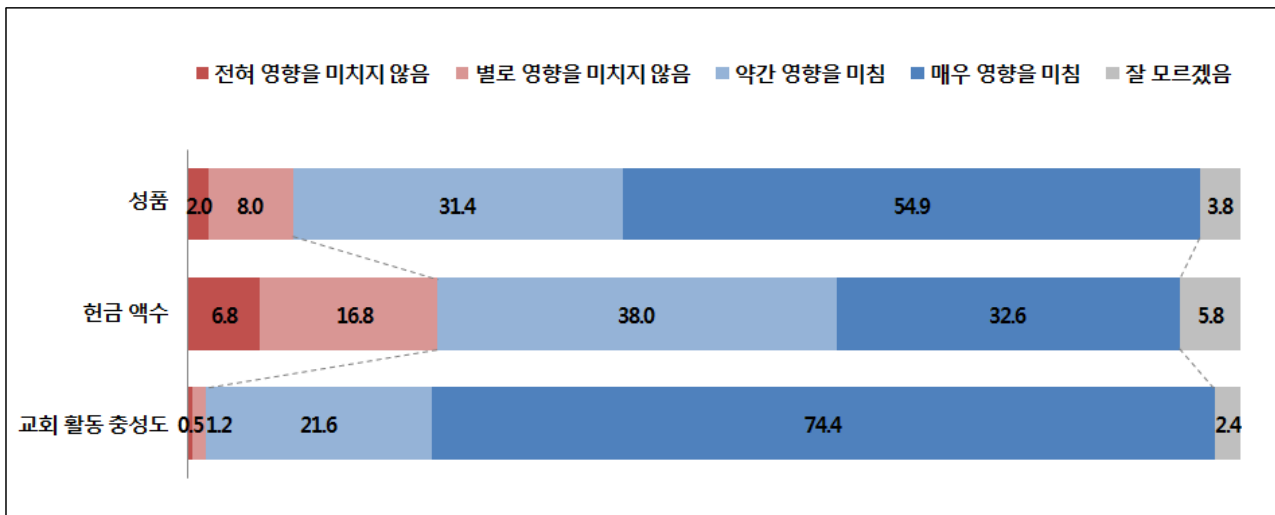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교회 활동 충성도'가 96.0%로 가장 높은 긍정률('영향을 미친다' 응답률)을 보임.

'성품'은 86.2%, '헌금 액수'는 70.6%의 긍정률을 나타냄.

'교회 활동 충성도'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헌금 액수'는 '직분없는 성도' 다 '서리집사/권찰', '중직자' 등 '직분자'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음.

[그림] 장로가 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

(Base=전체, N=1000, %)



2) 가난의 책임에 대한 의견

Q

사람이 가난해지는 데에는 개인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의 책임에 대해 '개인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은 45.2%, '사회적 책임이 크다'는 의견은 35.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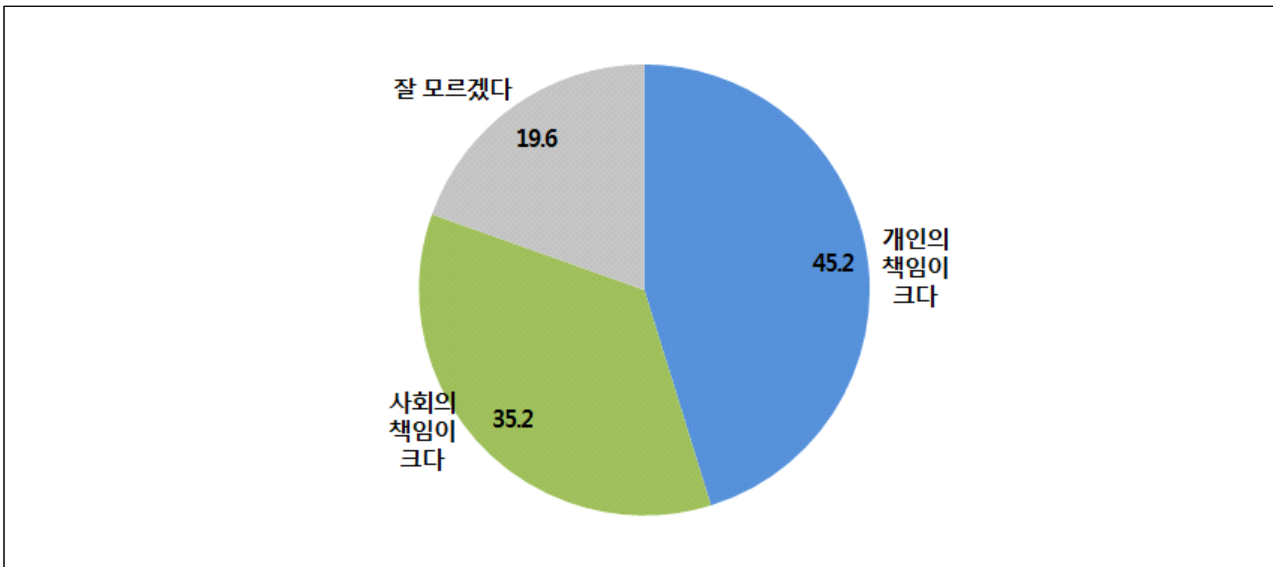
'개인의 책임이 크다'는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사회적 책임이 크다'는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정규직'은 '개인의 책임', '비정규직'은 '사회적 책임'을 꼽을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특징을 보이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의 책임' 응답률이,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 책임' 응답률이 높은 특징을 보임.

또한 '직분이 높을수록' 그리고 '대형교회'일수록 '개인의 책임'을, '직분이 낮을수록' '사회적 책임'을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짐.

[그림] 가난의 책임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000, %)



3)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Q

다음 중에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3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3가지 중복 필수 응답)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는 '근면/성실한 노력'이 61.6%로 가장 많이 꼽힘. 그 다음으로, '자기 계발' 51.8%, '공정한 조세 제도 마련' 44.9%, '복지정책 확대' 43.9%, '비정규직 문제 해결' 33.6% 등의 순으로 응답됨.

'근면/성실한 노력' 응답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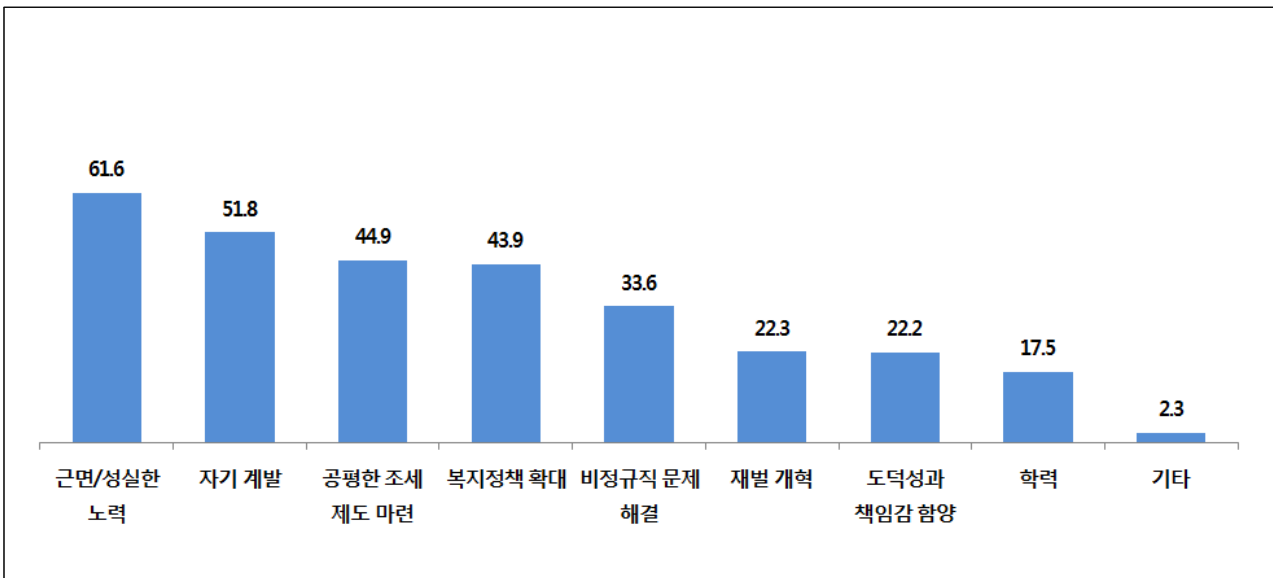
'공정한 조세 제도 마련'은 '40대 이하' 특히 '30대'에서 주로 언급하고 있으며, '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언급함.

'복지정책 확대'는 '20대'와 '비정규직', 그리고 '300만원 미만 소득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재벌 개혁'은 '4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응답을 함.

[그림]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Base=전체, N=1000, %, 3가지 중복응답)



4)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의견

Q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가 기본소득제도입니다. 한국사회에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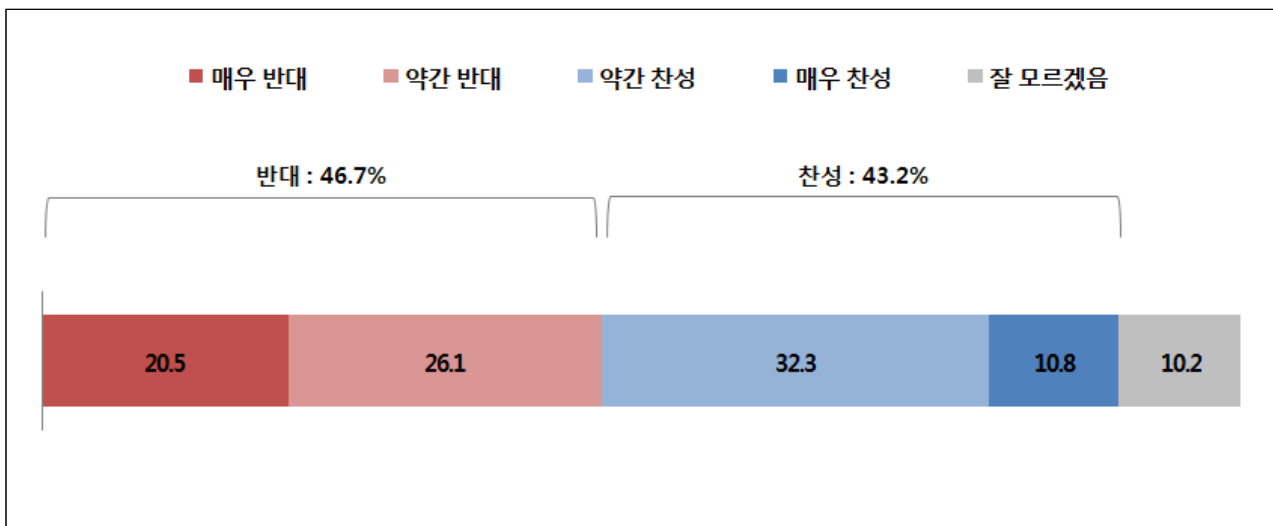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대해 46.7%가 '반대', 43.2%가 '찬성' 의견을 나타내서 반대 의견이 3.4%p 더 높음.

'반대' 의견은 '여성', '30대', '대구/경북', '전업주부', '정규직'과 '교회 출석자'와 '예배 참석빈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반대'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찬성' 의견은 '남성', '50대', '자영업자', '비정규직'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또한 '중직자'와 '예배 출석 빈도'가 적을수록 '찬성' 응답을 더 많이 하는 경향임.

[그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000, %)



5)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이유

Q

귀하께서 기본소득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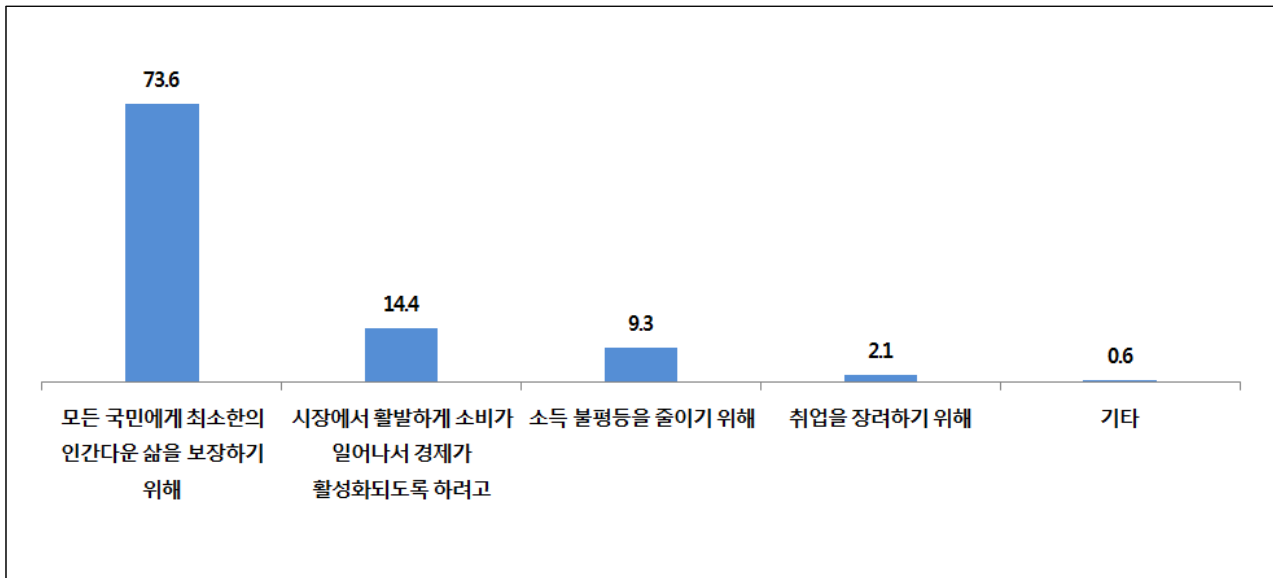
기본소득제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3/4 정도가(73.6%)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를 꼽음.

'시장에서 활발하게 소비가 일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려고'는 14.4%,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는 9.3% 응답됨.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라는 응답은 '40대'와 '60대', 그리고 '자영업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시장에서 활발하게 소비가 일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려고'는 '대구/경북', '전업주부', '비정규직'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응답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이유

(Base=기본소득제 도입 찬성자, N=432, %)



6)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 중 더 필요한 것

Q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명령금지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인해 경제활동이 줄어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더라도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두 가지 주장 가운데 현재 시점에서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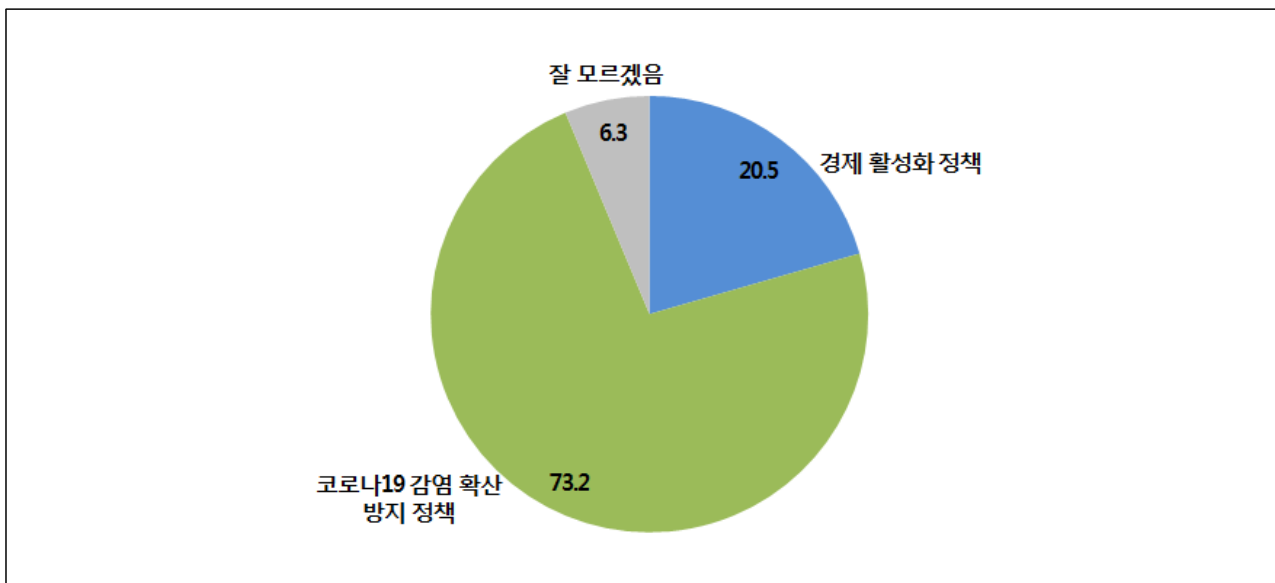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과 경제 활성화 정책 중, 현 시점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73.2%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함. 경제 활성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5%임.

'경제 활성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0대'와 '비정규직'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대'와 '정규직', 그리고 '중직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그림]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 중 더 필요한 것

(Base=전체, N=1000, %)



7) 정부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대한 의견

Q

한국 정부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전염이 세계적으로 본격화하여 감지되기 시작한 지난 1월 중순에서 2월 사이에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귀하께서는 한국 정부의 이러한 초기 대응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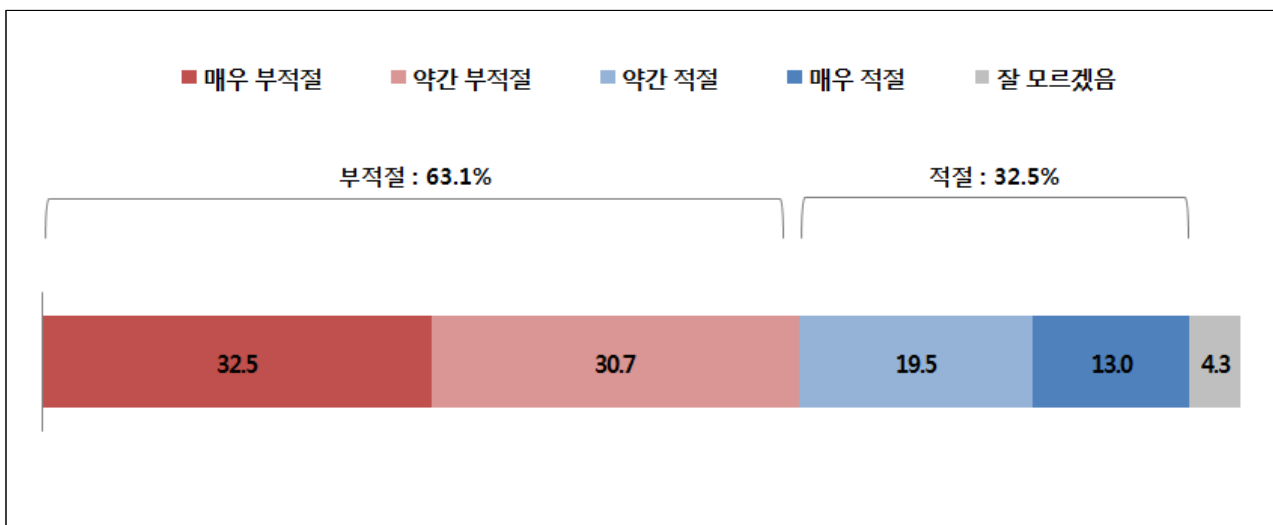


정부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대해 응답자의 2/3 정도가(63.1%) '부적절했다'고 응답했으며, '적절했다'는 응답률은 32.5%임.

'부적절했다'는 응답률은 '60대'와 '전업주부' 그리고 '예배참석빈도 주3회 이상' 응답자가, '적절했다'는 응답률은 '40대'와 '50대', '광주/전라', '교인 수 99명 이하' 소형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정부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000, %)



8) 정부가 코로나19 초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이유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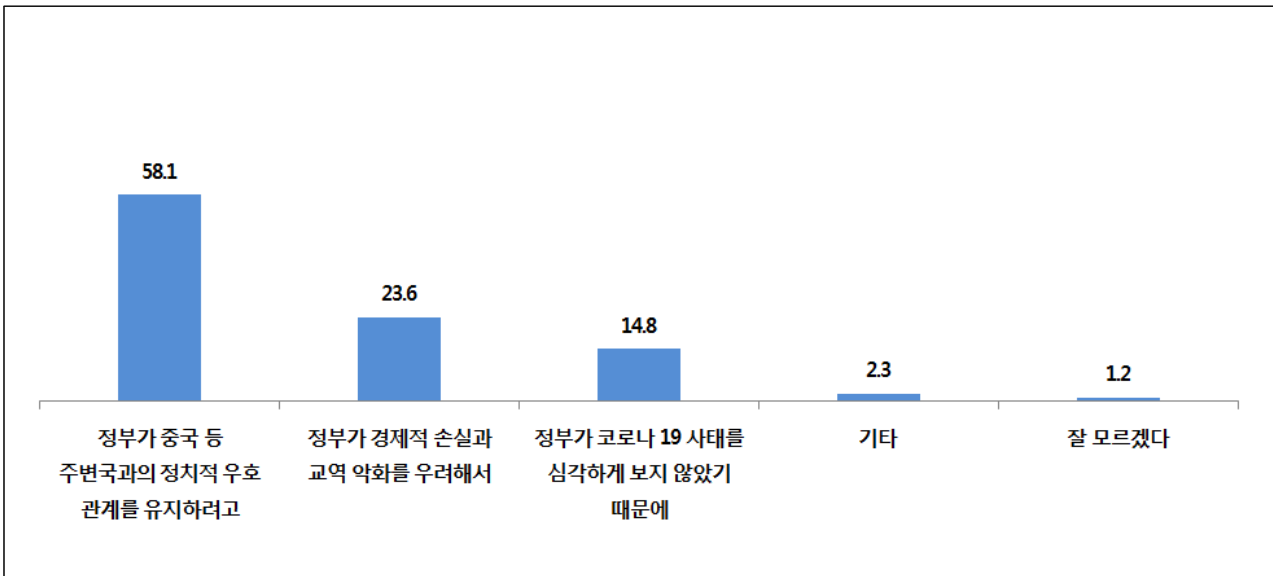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왜 정부가 코로나 19 초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정부가 그렇게 대응한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절반 이상(58.1%)이 '중국 등 주변국과의 정치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라고 응답함. '경제적 손실과 교역 악화를 우려해서'는 23.6%, '코로나 19 사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는 14.8%로 나타남.

'중국 등 주변국과의 정치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려고'는 '50대'와 '60대', '부산/울산/경남', '자영업자'와 '정규직' 그리고 '직분'과 '예배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99명 이하'의 소형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응답하였으며, '정부가 경제적 손실과 교역 악화를 우려해서'는 '여성', '직분없는 성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하였음.

[그림] 정부가 코로나19 초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이유 (Base=코로나19 초기 대응 '부적절' 응답자, N=631, %)



9) 남북한 평화적 관계 개선의 필요성

Q

올해는 한국전쟁이 일어난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귀하께서는 남한과 북한의 평화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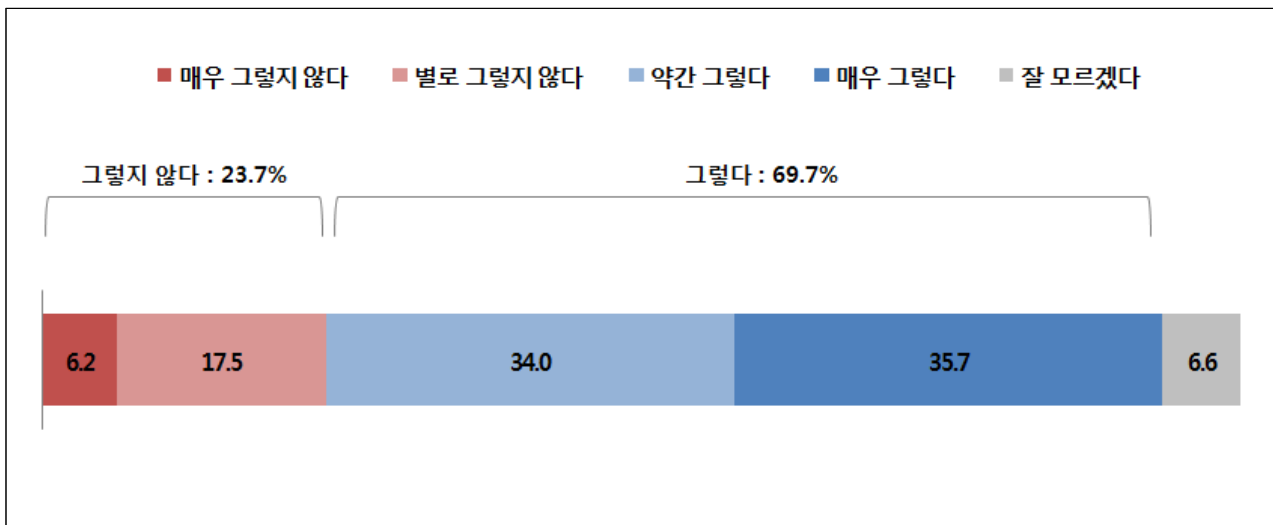


남한과 북한의 평화적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69.7%가 '그렇다'(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다'(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률은 23.7%로 나타남.

남북한 평화적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남성'과 '50대', '광주/전라', '자영업'과 '블루칼라'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남북한 평화적 관계 개선의 필요성

(Base=전체, N=1000, %)



10) 남북한 평화적 관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

Q

귀하께서 남한과 북한의 평화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북한 평화적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묻은 결과, '남한의 안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가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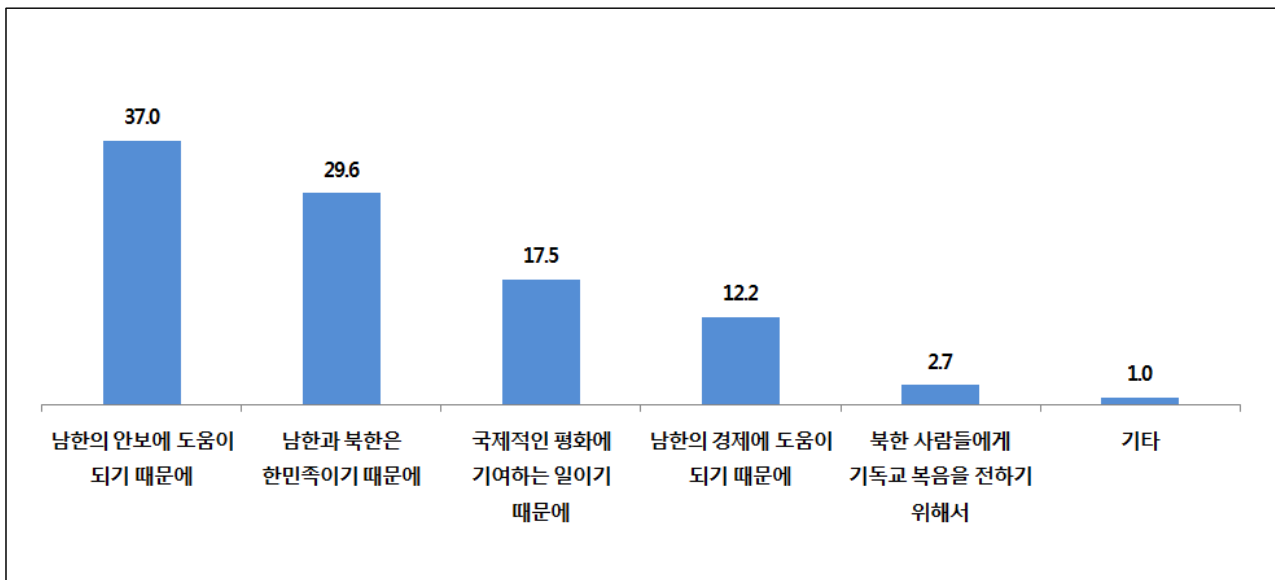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29.6%, '국제적인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17.5%, '남한의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12.2% 등의 순으로 응답됨.

'남한의 안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라는 국가 이익적 관점의 응답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과 같은 중부지방에서, '자영업자'와 '화이트칼라' 및 '학생', 그리고 '교회 출석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이기 때문에'라는 민족 정서적 이유는 '여성', '50대'와 '60대'의 장년층, '광주/전라', '정규직', '자영업'과 '전업주부', 그리고 '교회 비출석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함.

[그림] 남북한 평화적 관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

(Base=남북한 평화적 관계 개선 '필요함' 응답자, N=697, %)



11)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

Q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귀하께서는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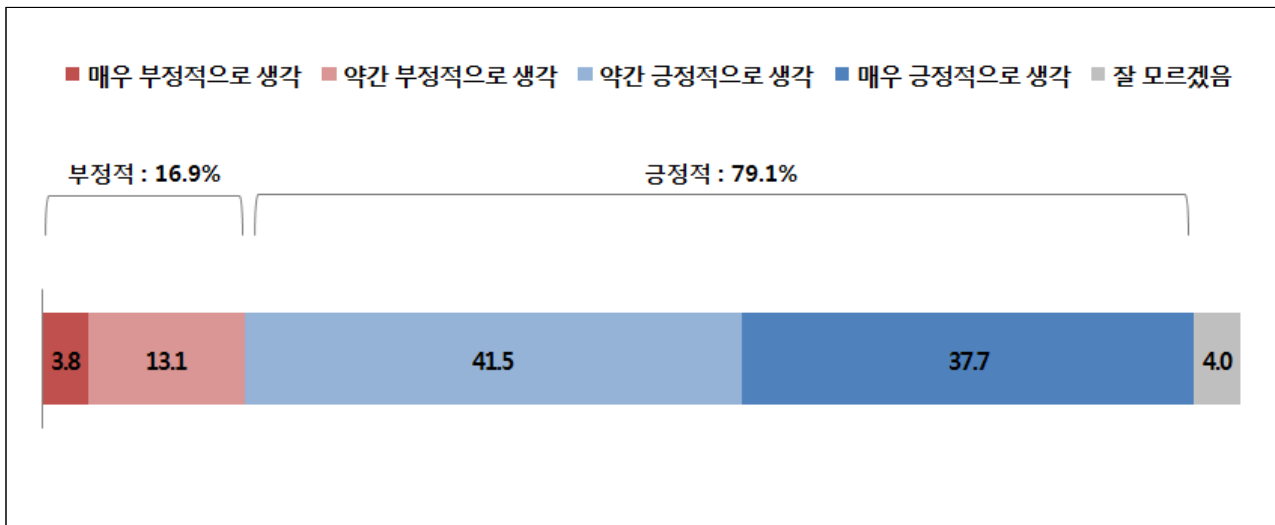


재난지원금에 대해 79.1%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은 16.9%임.

'긍정적' 비율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그림]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000, %)



12) 기본소득제 시행 시 비용 마련에 대한 의견

Q

귀하께서는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 제도를 위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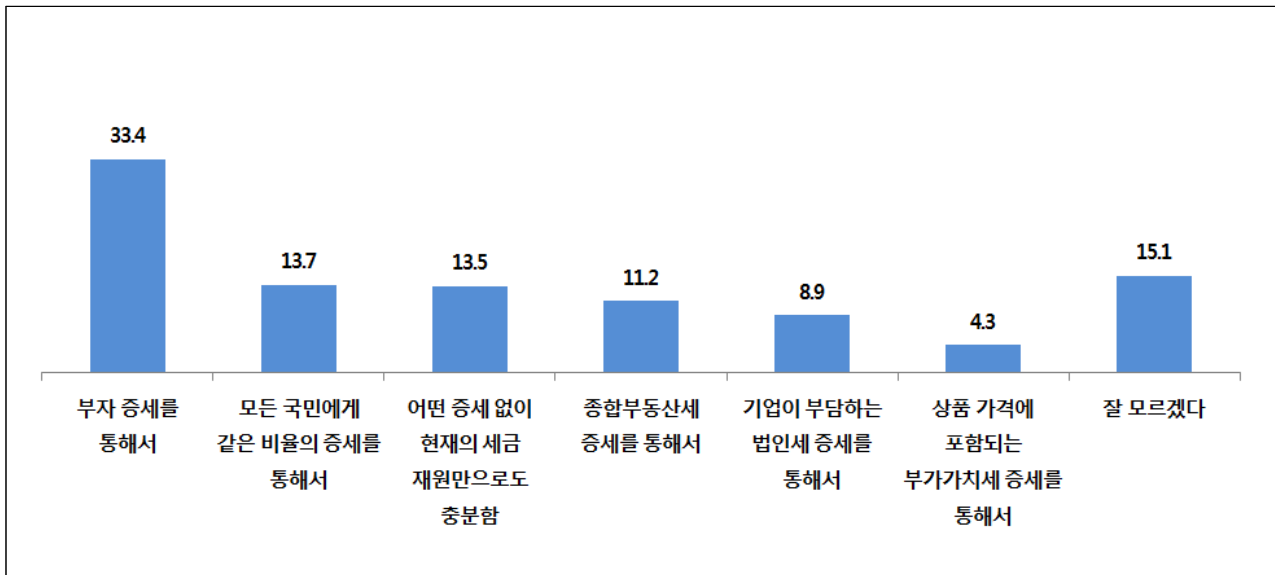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할 경우 제도를 위한 비용 마련은 '부자 증세를 통해'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잘 모르겠다'가 15.1%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나, 기본소득제도 비용 마련에 대한 의견은 분산되어 있고 명확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여짐.

'부자 증세를 통해서'는 '40대'와 '자영업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했음.

[그림] 기본소득제도 시행 시 비용 마련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000, %)



13)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의견

Q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의 소득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제보다는 고용보험에 가입 자격이 없어서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시·일용직 노동자 등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모든 노동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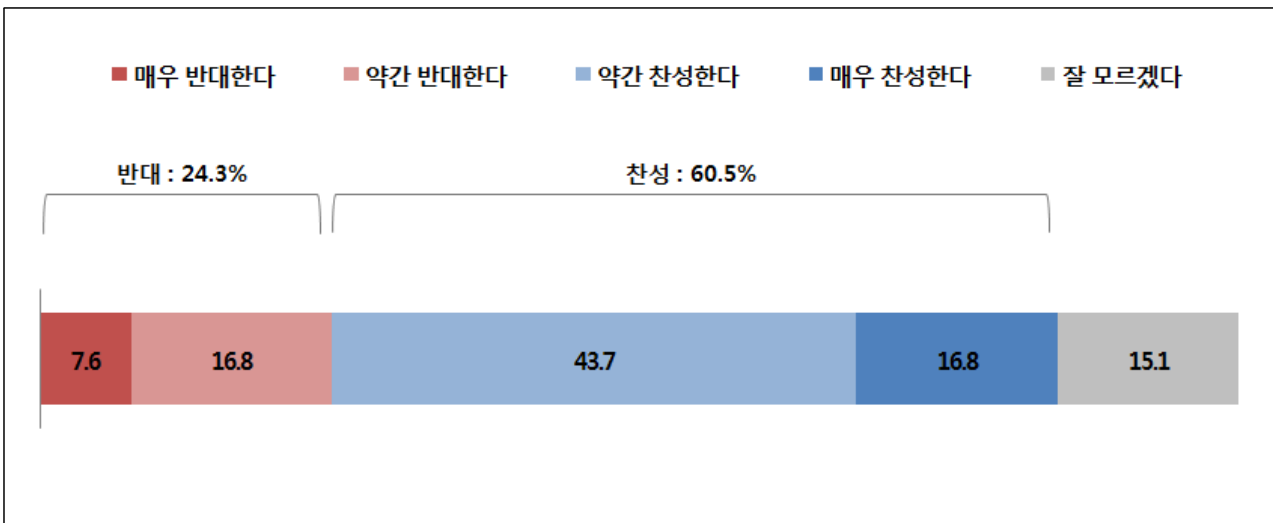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 60.5%가 '찬성', 24.3%가 '반대' 의견을 보임.

'찬성' 비율은 '40대'와 '50대', '자영업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특징을 보임.

'반대'는 '남성', '30대', '7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그림]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000, %)



14) 전국민 기본소득제와 전국민 고용보험제 중 우선 도입될 것

Q

귀하께서는 전국민기본소득제도와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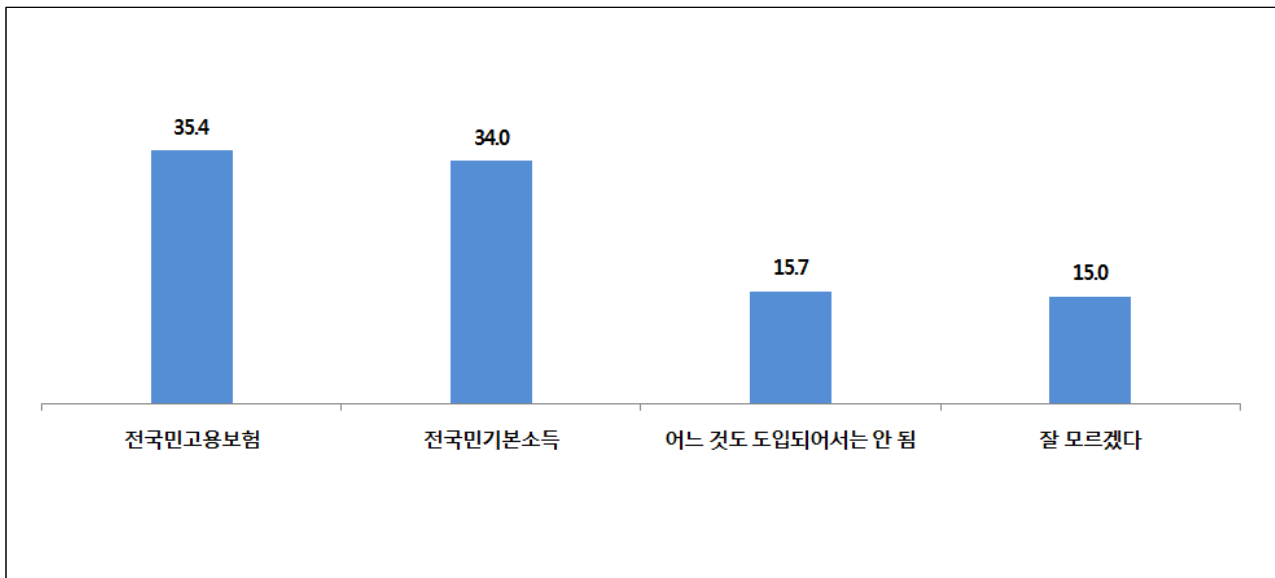
전국민 기본소득제와 전국민 고용보험제 중 먼저 도입되어야 할 것을 조사한 결과, '전국민 고용보험' 35.4%, '전국민 기본소득' 34.0%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15.7%는 '어느 것도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함.

'전국민 고용보험'은 '대구/경북', '화이트칼라'와 '학생', '500~700만원 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

'전국민 기본소득'은 '50대', '광주/전라', '자영업자',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응답을 하는 경향임.

[그림] 전국민 기본소득제와 전국민 고용보험제 중 우선 도입될 것

(Base=전체, N=1000, %)



15) 한국의 빈부 격차 수준

Q

귀하께서는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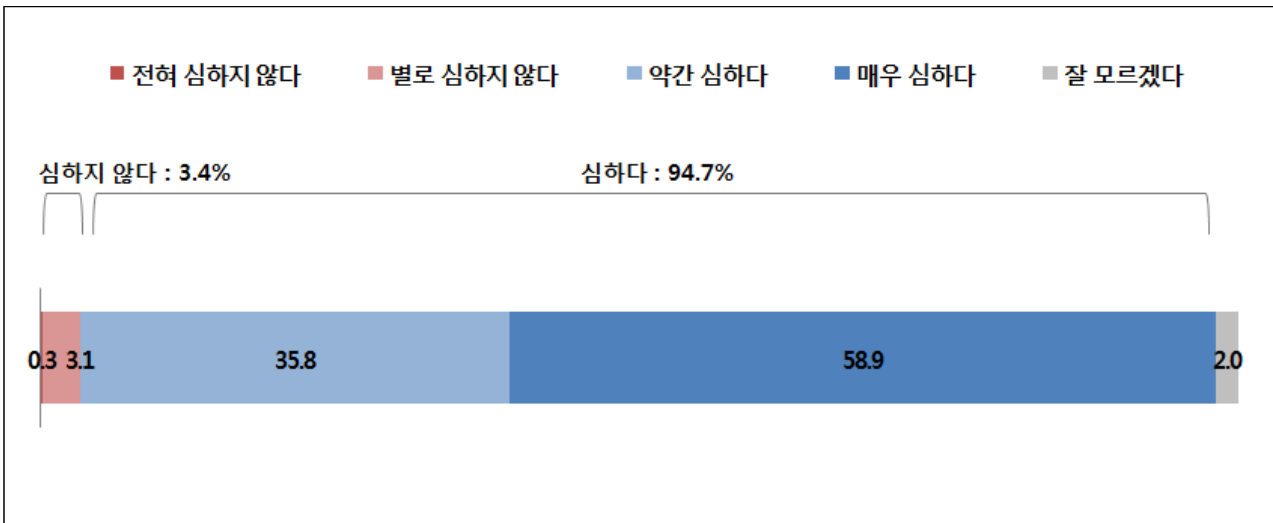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심하다'고 느끼고 있음.(94.7%)

응답자 특성별로 구분 없이 '심하다'는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으나, '19~29세'와 '60대', 그리고 '학생'에서 '심하지 않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그림] 한국의 빈부 격차 수준

(Base=전체, N=1000, %)



3. 생태/환경 분야

1) 대기오염과 코로나19 사망자 비례 관계에 대한 의견

Q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대기오염이 심할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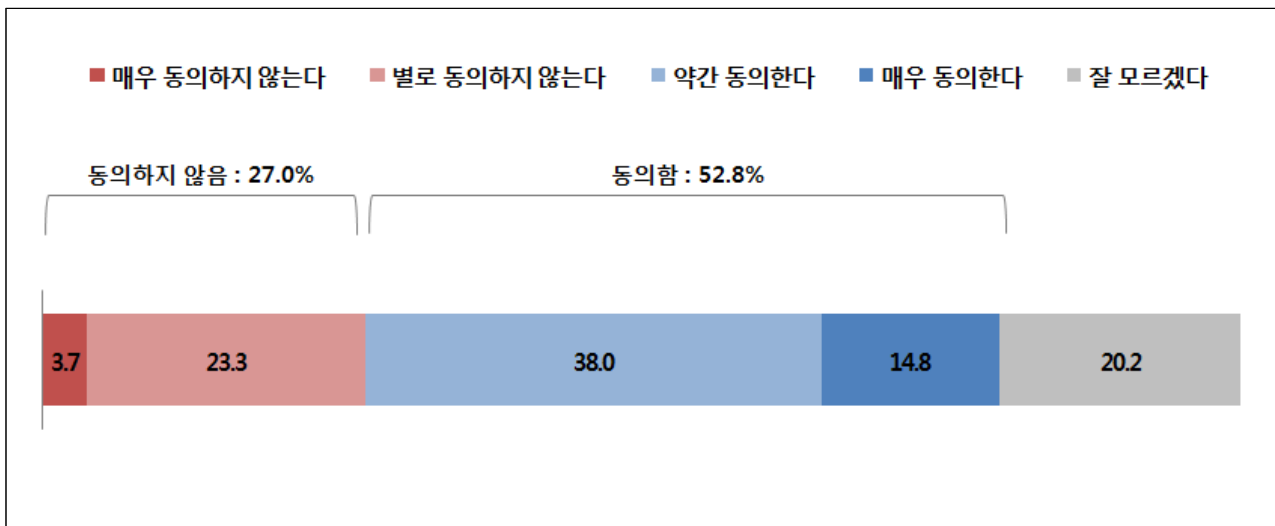
대기오염이 심할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정도(52.8%)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7.0%이며, 1/5 가량은(20.2%)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동의한다'는 응답률은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그림] 대기오염과 코로나19 사망자 비례 관계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000, %)



2) 코로나19의 원인

Q

귀하께서는 코로나19의 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가운데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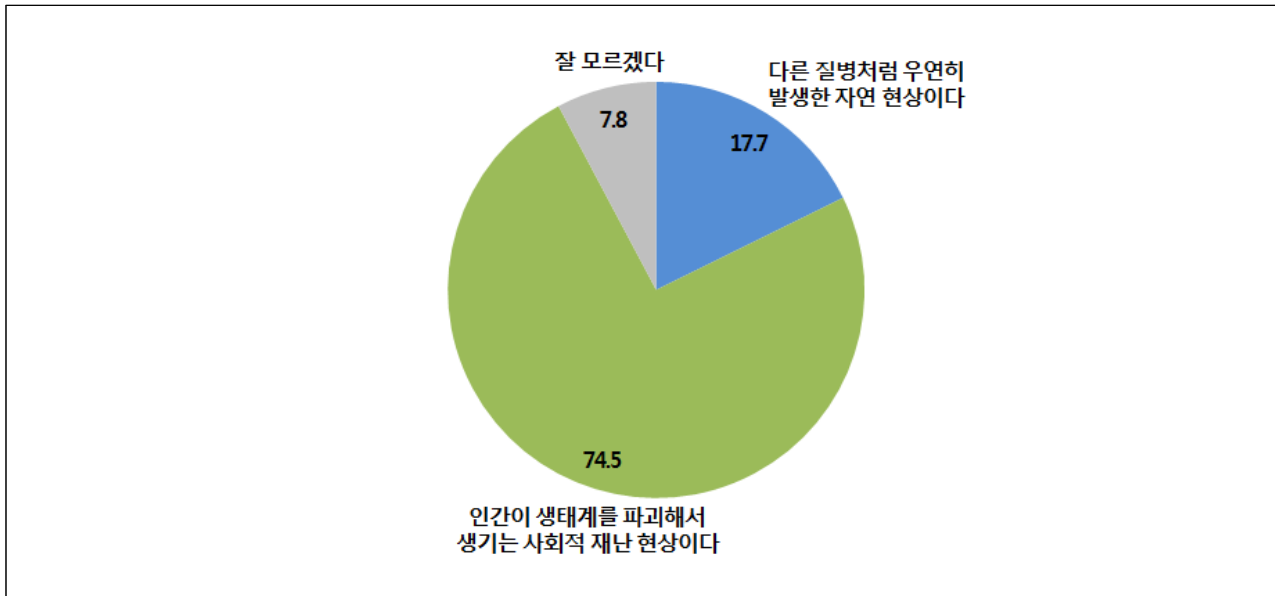
응답자의 3/4는(74.5%) 코로나19의 원인에 대해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해서 생기는 사회적 재난 현상'이라고 응답함. '다른 질병처럼 우연히 발생한 자연 현상'이라는 응답률은 17.7%로 나타남.

'생태계 파괴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라는 응답률은 '여성'에서 더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또한 '자영업자'와 '전업주부' 그리고 '중직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

'우연히 발생한 자연 현상'이라는 응답률은 '남성'에서 더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그림] 코로나19의 원인

(Base=전체, N=1000, %)



3) 지구온난화의 전염병 증가 영향에 대한 의견

Q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증가에 지구온난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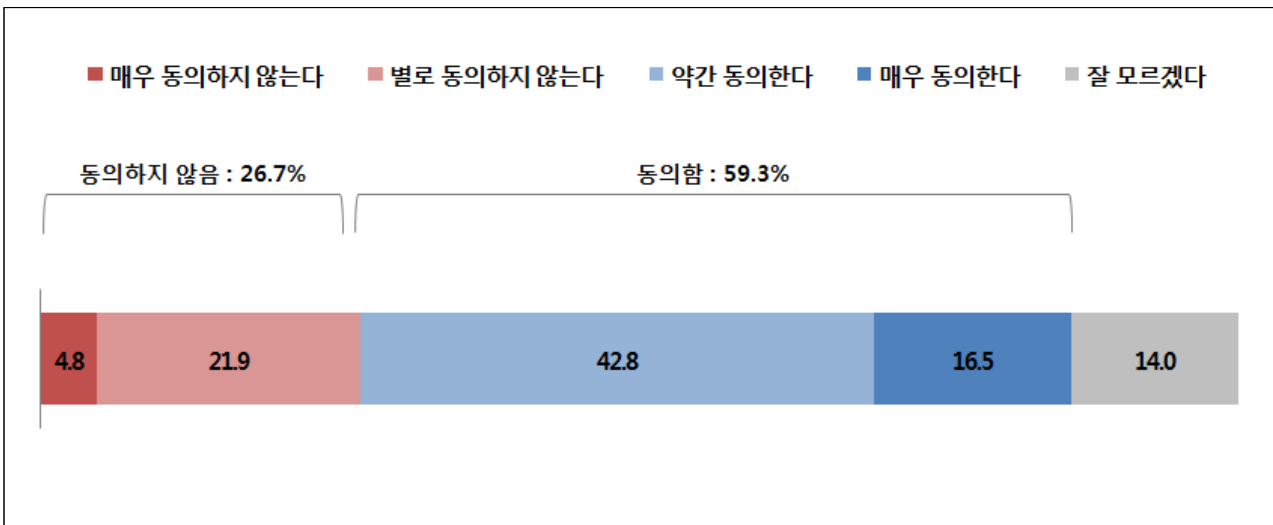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증가에 지구온난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 59.3%가 '동의한다'고 응답함.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6.7%임.

'동의한다'는 응답은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전업주부'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성'과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생'에서 더 높게 나타남.

[그림] 지구온난화의 전염병 증가 영향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000, %)



4) 코로나19로 지구온난화 완화에 대한 의견

Q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지구온난화가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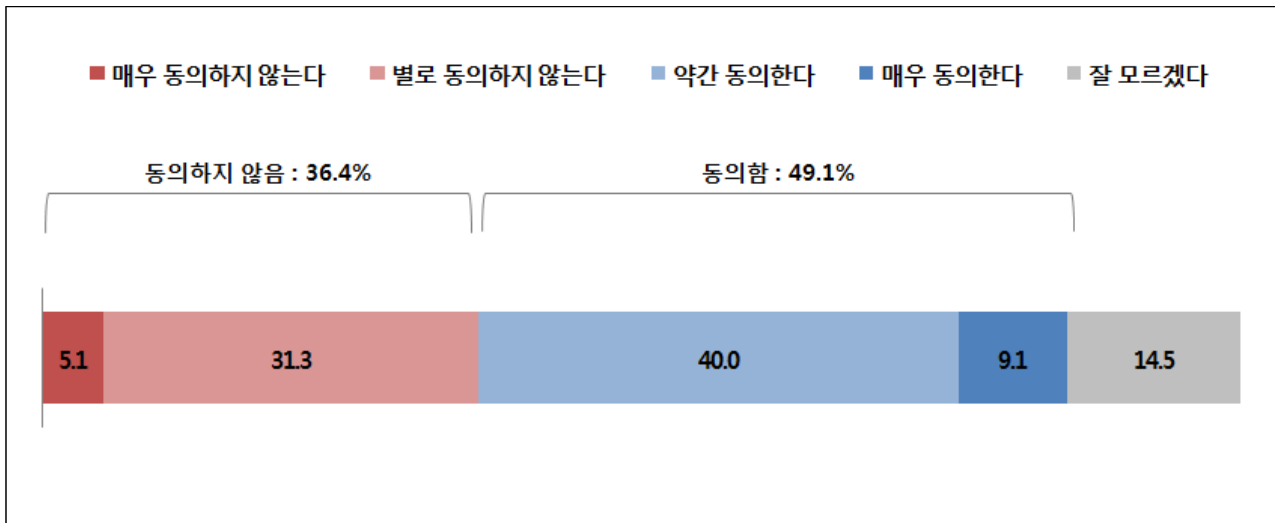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지구온난화가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49.1%가 '동의'를 보였으며, 36.4%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동의한다'는 비율은 '여성'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남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그림] 코로나19로 지구온난화 완화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000, %)



5) 지구온난화 완화될 것이라 보는 이유

Q

지구온난화가 완화될 것이라고 동의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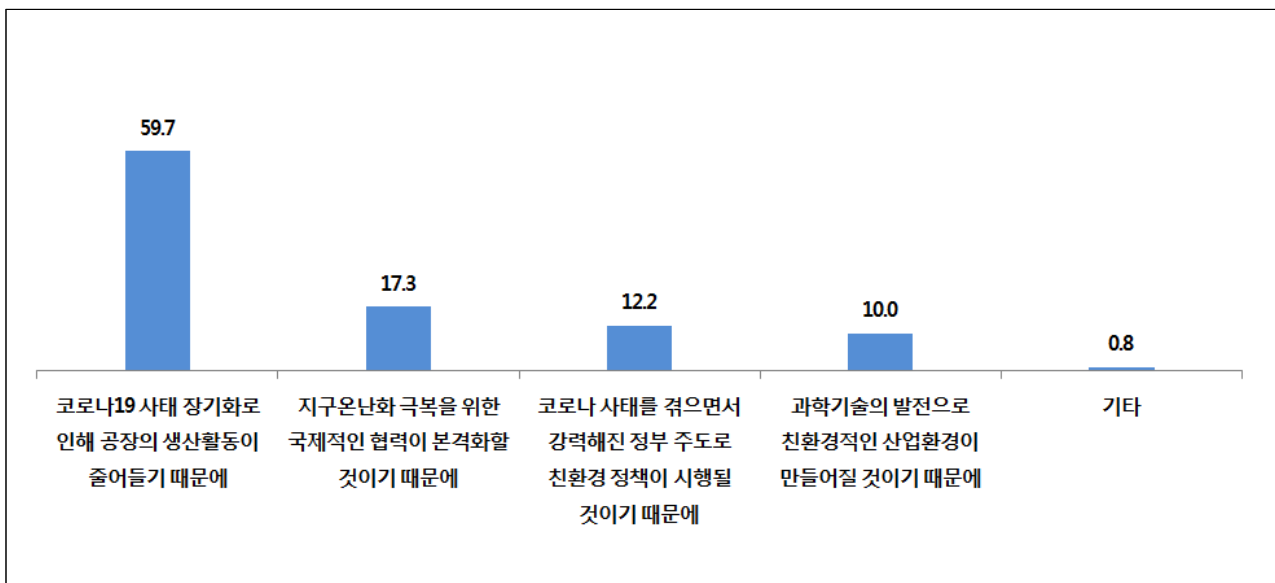
코로나19를 계기로 지구온난화가 '완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묻은 결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공장의 생산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가 59.7%로 가장 많이 꼽힘.

그 다음으로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에' 17.3%,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강력해진 정부 주도로 친환경 정책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12.2%,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친환경적인 산업환경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10.0% 등의 순으로 응답됨.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공장의 생산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20대'와 '30대', '학생'과 '화이트칼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지구온난화 완화될 것이라 보는 이유

(Base=지구온난화 '완화될 것' 응답자, N=491, %)



6) 지구온난화 심각성

Q

귀하께서는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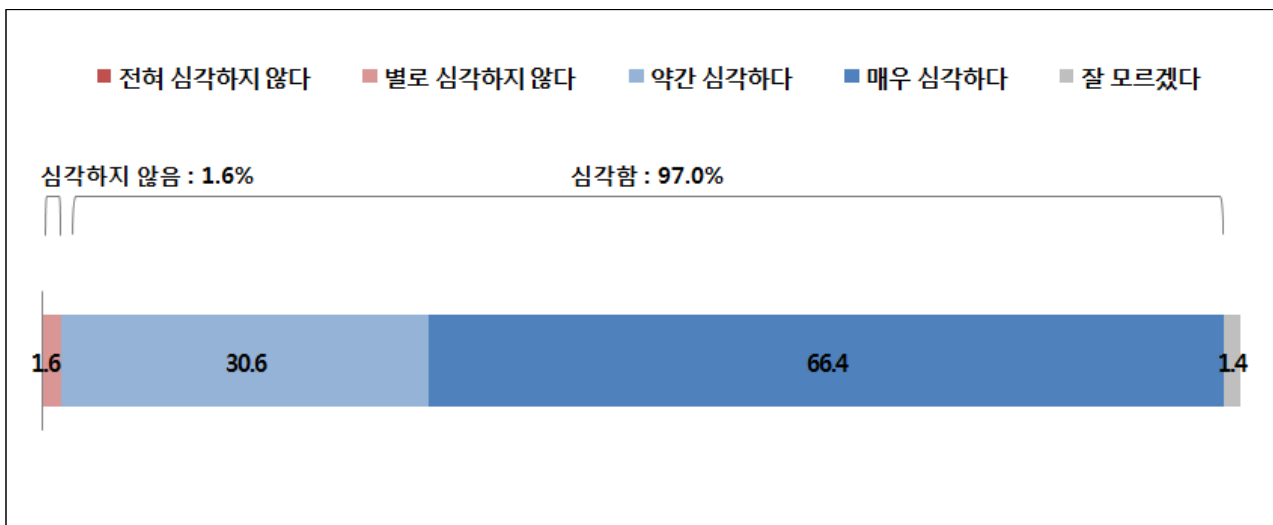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음.(97.0%)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률은 1.6%로 매우 적게 나타남.

앞선 조사 결과들과 경향성을 살펴보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더 민감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지구온난화 심각성

(Base=전체, N=1000, %)



7)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남은 시간

Q

귀하께서는 인류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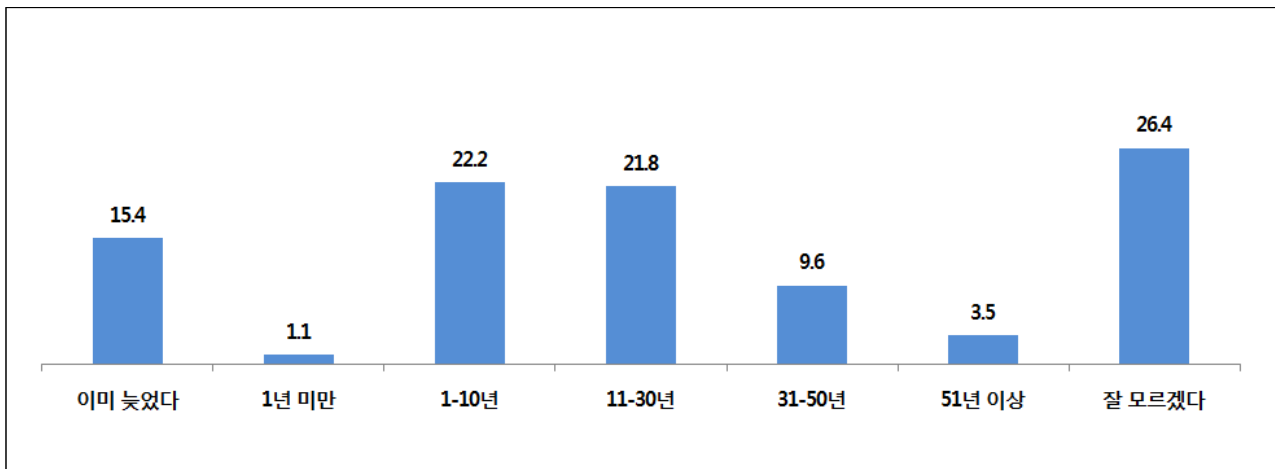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럼 인류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이미 늦었다' 15.4%, '1~10년'이 22.2%로 지구온난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응답이 37.6%로 나타났음.

'이미 늦었다'는 '60대'와 '광주/전라',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했음.

[그림]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남은 시간

(Base=지구온난화 '심각함' 응답자, N=970, %)



8) 경제 성장과 지구온난화 방지 중 우선되어야 할 것

Q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석유와 석탄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하고 기업의 생산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는 등 경제성장을 양보해야 하는 반면,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그만큼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귀하께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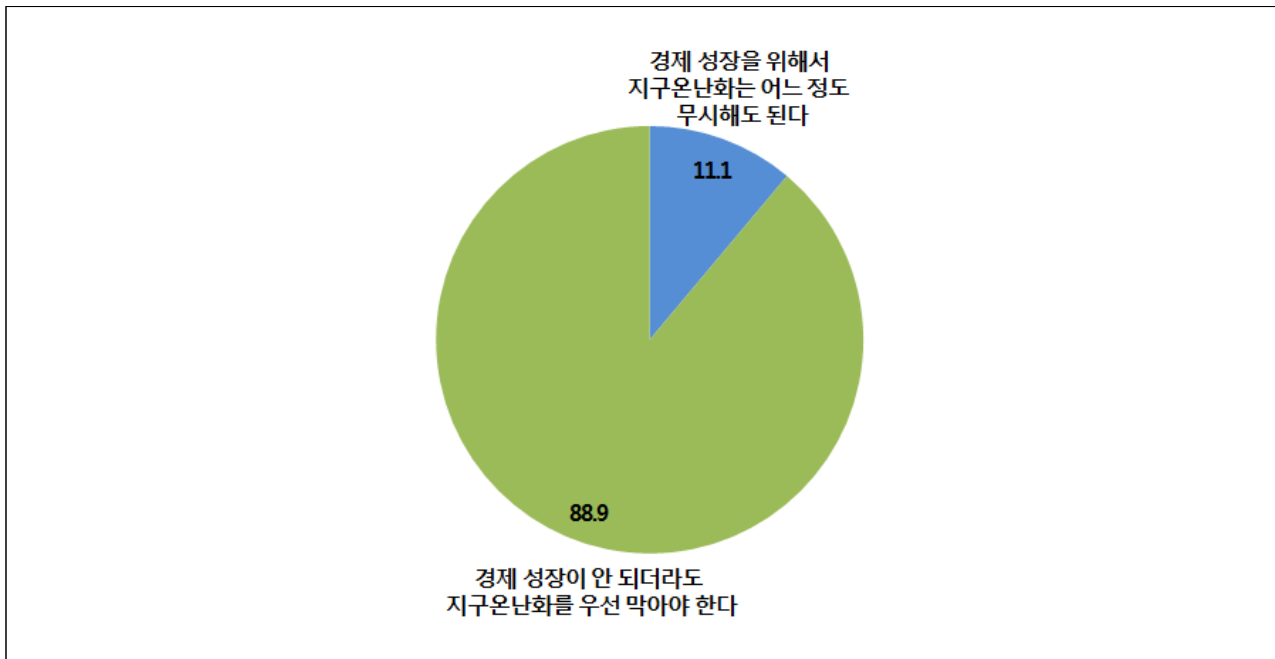
경제 성장과 지구온난화 방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응답자의 대부분인 88.9%가 '경제 성장이 안 되더라도 지구온난화를 우선 막아야 한다'고 응답함.

'경제 성장을 위해서 지구온난화는 어느 정도 무시해도 된다'는 응답률은 11.1%임.

'지구온난화 우선 방지' 응답률은 '여성'과 '광주/전라'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고, '경제 성장 우선' 응답률은 '남성'과 '20대' 및 '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경제 성장과 지구온난화 방지 중 우선되어야 할 것

(Base=전체, N=1000, %)



9) 경제 성장 우선을 택한 이유

Q

귀하께서는 왜 '경제 성장'을 선택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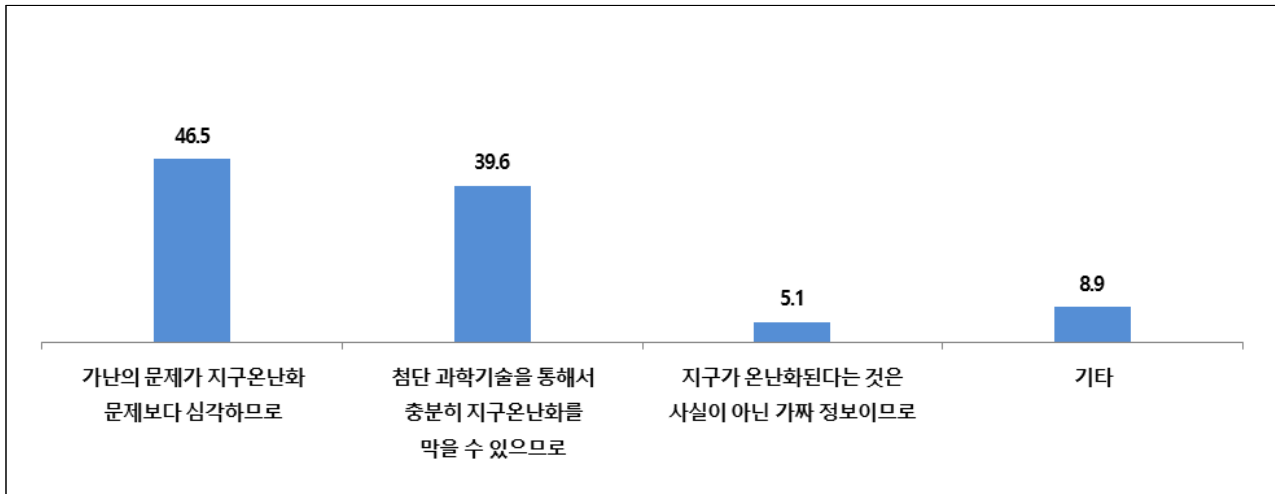


경제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가난의 문제가 지구온난화 문제보다 심각하므로'가 46.5%로 가장 높았으며,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으므로' 39.6%, '지구가 온난화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가짜 정보이므로' 5.1% 등의 순으로 응답됨.

'가난의 문제가 지구온난화 문제보다 심각하므로'는 '남성', '60대', '부산/울산/경남', '블루칼라', '비정규직', '500만원 미만' 소득자, '중직자'와 '예배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으므로'는 '여성', '40대', '서울', '화이트칼라'와 '전업주부', '정규직', '500만원 이상' 소득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그림] 경제 성장 우선을 택한 이유

(Base='경제 성장 우선' 응답자, N=111, %)



10) 지구온난화 방지 우선을 택한 이유

Q

귀하께서는 왜 '지구온난화를 우선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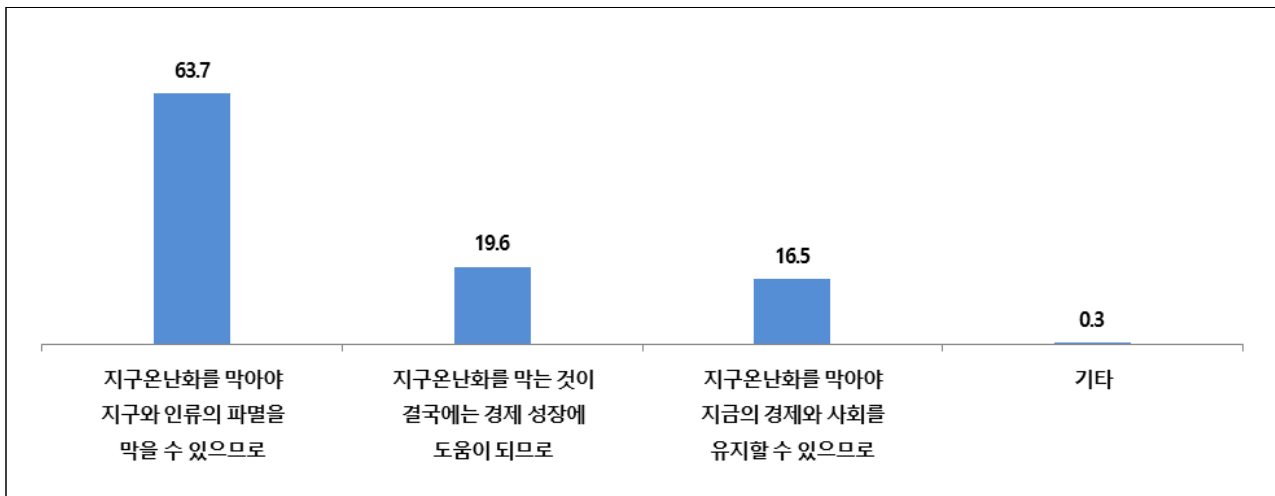
지구온난화 방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묻은 결과,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지구와 인류의 파멸을 막을 수 있으므로'가 63.7%로 가장 많이 꼽힘.

'지구온난화를 막는 것이 결국에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므로'는 19.6%,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지금의 경제와 사회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는 16.5% 응답됨.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지구와 인류의 파멸을 막을 수 있으므로'는 '20대', '학생' 등 미래 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을 했음.

[그림] 지구온난화 방지 우선을 택한 이유

(Base='지구온난화 방지 우선' 응답자, N=889, %)



11)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관점

Q

귀하께서는 다음 중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2/3가(66.3%) '인간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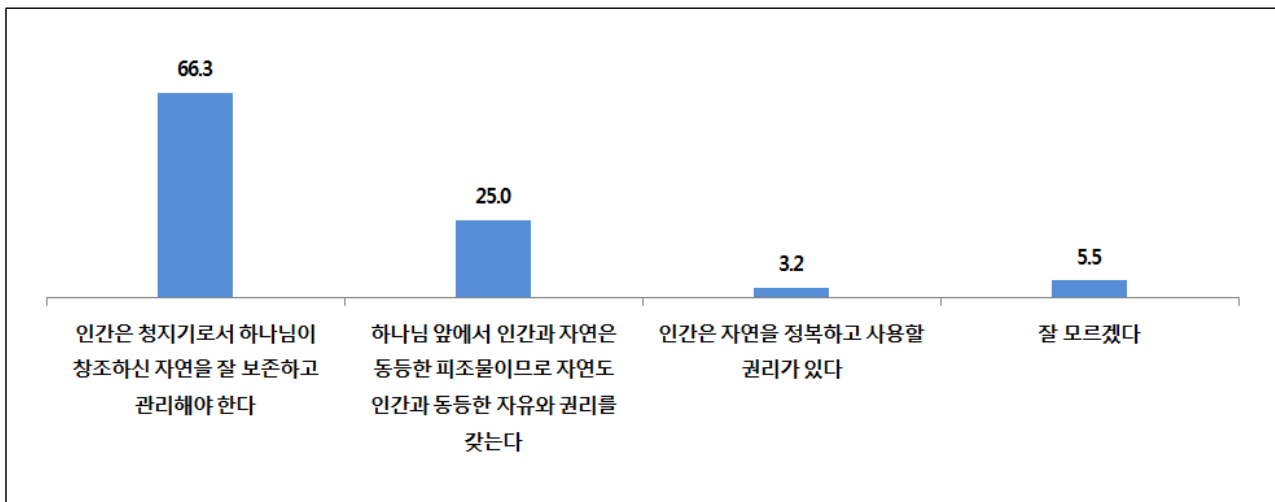
'하나님 앞에서 인간과 자연은 동등한 피조물이므로 자연도 인간과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갖는다'는 25.0%,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3.2%로 응답됨.

'청지기로서 자연을 보존/관리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직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동등한 피조물로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는 응답률은 '직분'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교회 비출석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음.

[그림]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관점

(Base=전체, N=1000, %)



12)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

Q

귀하께서는 다음 중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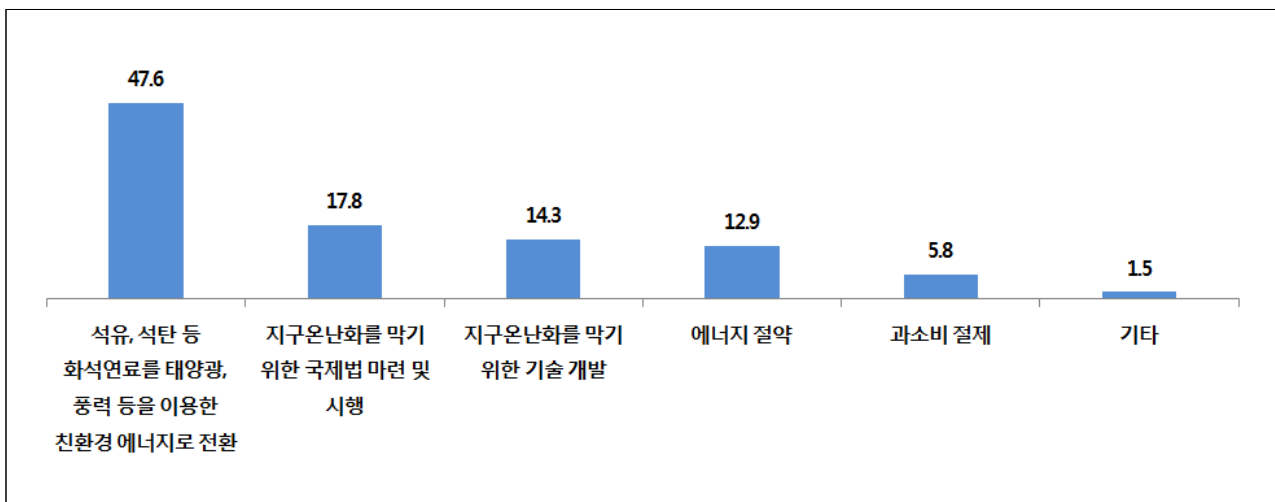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이 47.6%로 가장 높게 응답됨.

그 다음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법 마련 및 시행' 17.8%,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 14.3%, '에너지 절약' 12.9%, '과소비 절제' 5.8% 등의 순으로 응답됨.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은 '50대'와 '60대' 등 장년층, '광주/전라', '블루칼라', "700만원 이상" 소득자, '예배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그림]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

(Base=전체, N=1000, %)



13) 교회가 지구온난화 관련하여 시급하게 해야 할 일

Q

귀하께서는 교회가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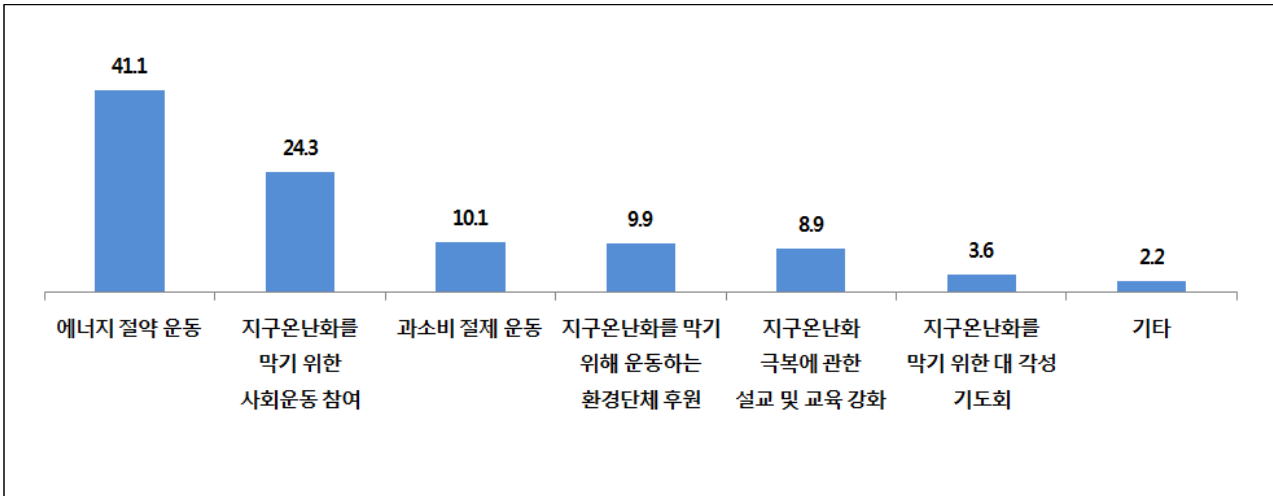


교회가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로는 '에너지 절약 운동'이 41.1%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사회운동 참여'가 24.3%, '과소비 절제 운동'이 10.0% 등으로 나타남.

'에너지 절약운동'은 '연령'이 낮을수록, '직분없는 성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했음.

[그림] 교회가 지구온난화 관련하여 시급하게 해야 할 일

(Base=전체, N=1000, %)



14) 교회가 지구온난화를 위해 해야 하는 사회운동

Q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한 사회운동이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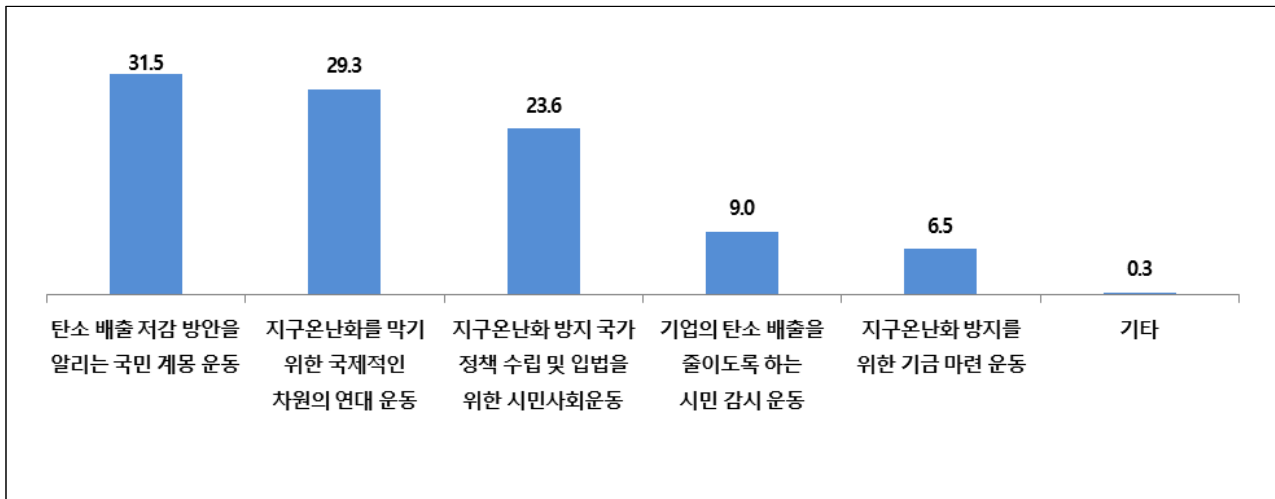
교회가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로 '사회운동'을 꼽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운동을 해야 하는지 조사한 결과, '탄소 배출 저감 방안을 알리는 국민 계몽 운동'(31.5%),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차원의 연대 운동'(29.3%)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그 다음은 '지구온난화 방지 국가 정책 수립 및 입법을 위한 시민사회운동'(23.6%)을 응답함.

'탄소 배출 저감 방안을 알리는 국민 계몽 운동'은 '광주/전라', '전업주부', '직분'이 높을수록, '예배참석 주 3회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차원의 연대 운동'은 '30대'와 '40대', '대구/경북', '학생', '500~700만원' 소득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그림] 교회가 지구온난화를 위해 해야 하는 사회운동

(Base='사회운동 가장 시급' 응답자, N=243, %)



4. 한반도 및 국제관계 분야

1)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의 심각성

Q

귀하께서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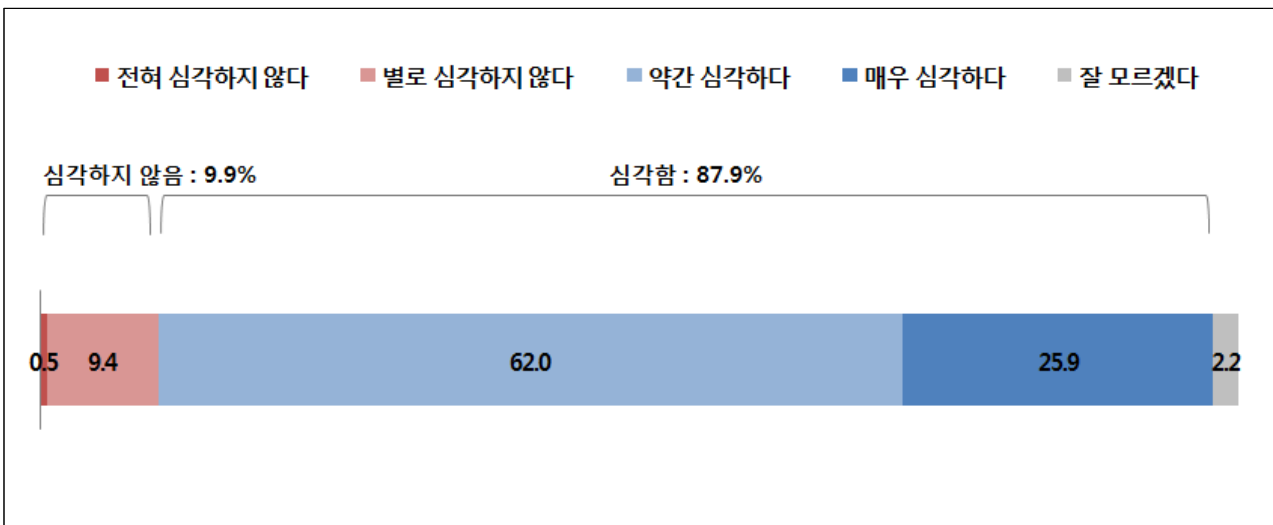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상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87.9%)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은 9.9%에 불과함.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률은 '남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의 심각성

(Base=전체, N=1000, %)



2)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위험성 인지 정도

Q

귀하께서는 요즘 코로나19 감염증에 내가 걸릴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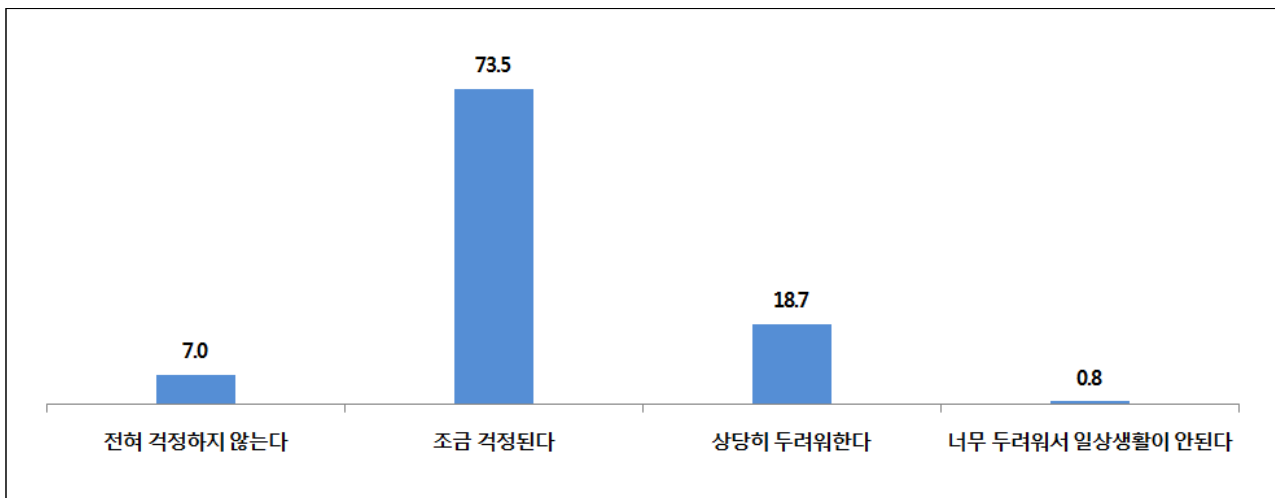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73.5%가 '조금 걱정된다'고 응답하였으며, 18.7%는 '상당히 두려워한다고 응답함.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7.0%, '너무 두려워서 일상생활이 안된다'는 0.8%로 나타남.

'상당히 두려워 한다'는 '60대'와 '블루칼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그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위험성 인지 정도

(Base=전체, N=1000, %)



3)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

Q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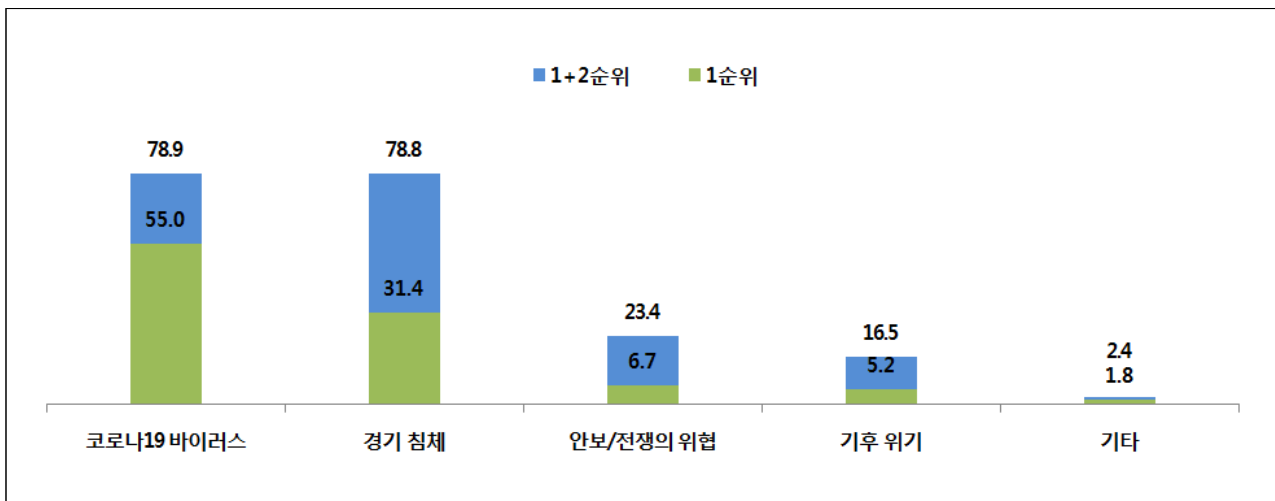


현재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는, 1+2순위 기준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경기 침체'가 각각 78.9%, 7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순위 기준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55.0%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문제를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1+2순위 응답 기준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응답률은 '여성'과 '30대', '정규직'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경기 침체' 응답률은 '50대', '직분'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음.

[그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

(Base=전체, N=1000, %, 2순위 중복응답)



4) 코로나19 관련 현 정부 신뢰도

Q

귀하께서는 코로나19 대처능력과 관련하여 현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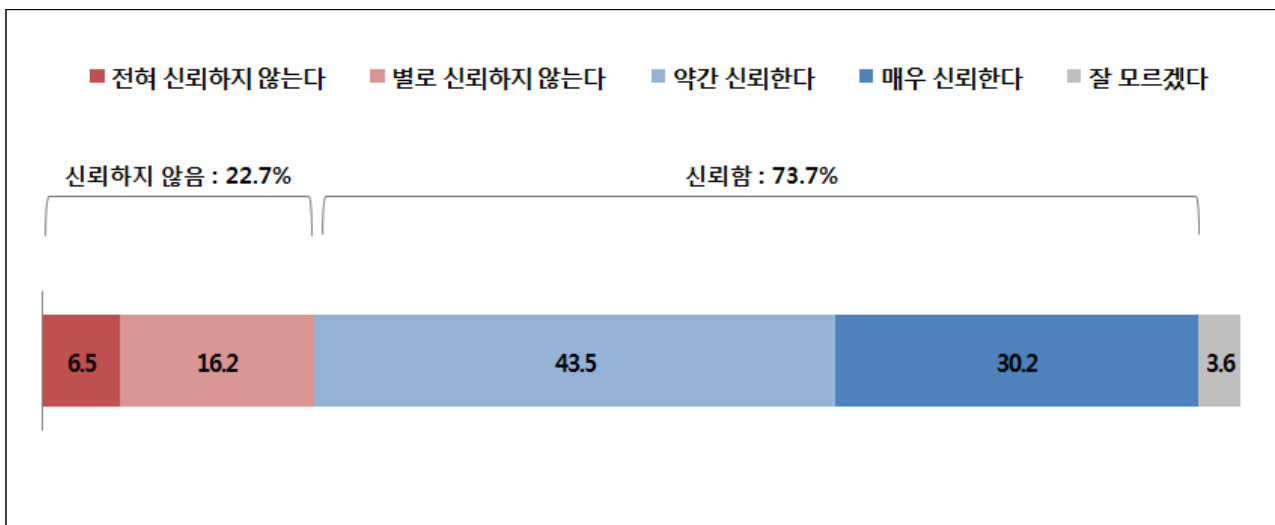


코로나19 대처능력과 관련하여 현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률은 73.7%,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22.7%로, '신뢰' 비율이 3배 이상 높게 응답됨.

'신뢰한다'는 비율은 '여성', '40대', '광주/전라' 지역과 '교회 비출석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남성', '대구/경북', '교회 출석자', '신앙의 정도'에서 '그리스도 중심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코로나19 관련 현 정부 신뢰도

(Base=전체, N=1000, %)



5)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 의료/방역 시스템 평가

Q

귀하께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나라의 의료 및 방역 시스템에 대하여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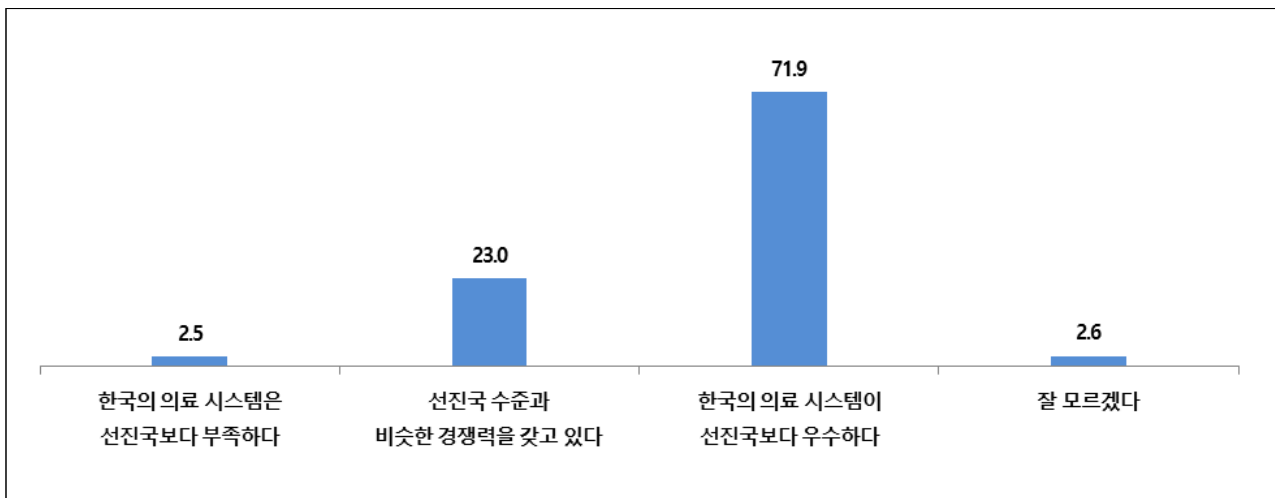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료 및 방역 시스템에 대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선진국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71.9%로 가장 많음. '선진국 수준과 비슷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23.0%이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선진국보다 부족하다'는 의견은 2.5%로, 대부분이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선진국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함.

'선진국보다 우수하다'는 응답률은 '여성'과 '광주/전라', '정규직'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음.

[그림]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 의료/방역 시스템 평가

(Base=전체, N=1000, %)



6)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상에 미친 영향

Q

귀하께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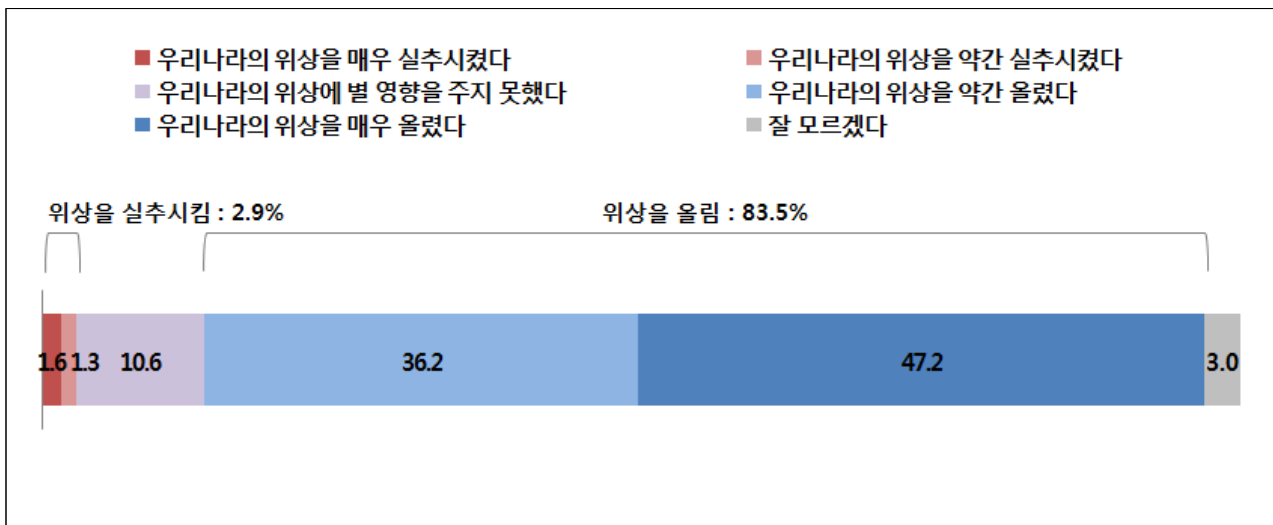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인 83.5%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올렸다'고 응답함.

'위상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10.6%,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2.9%에 불과하여,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및 국가 위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위상을 올림'은 '40대', '300~500만원' 소득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응답함.

[그림]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상에 미친 영향

(Base=전체, N=1000, %)



7) 향후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방안

Q

귀하께서는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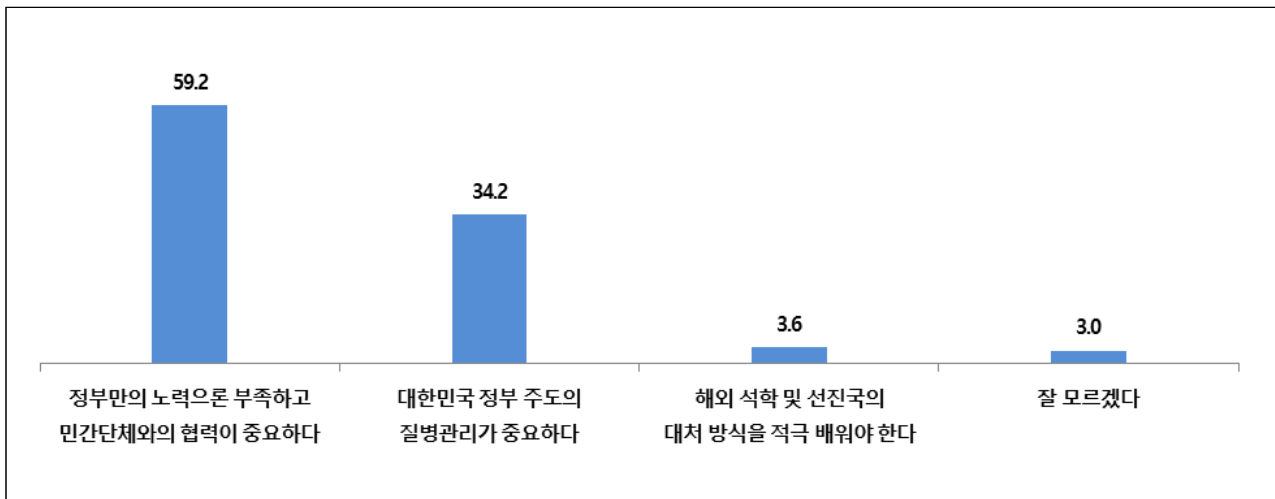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에 대처하는 방안으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부족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대한민국 정부 주도의 질병관리가 중요하다'는 34.2%, '해외 석학 및 선진국의 대처 방식을 적극 배워야 한다'는 3.6%로 나타남.

'정부만의 노력으로 부족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층청', '자영업자', '300~500만원' 소득자, '교회 출석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대한민국 정부 주도의 질병관리가 중요하다'는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700만원 이상' 소득자, '교회 비출석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그림] 향후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방안

(Base=전체, N=1000, %)



8)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Q

귀하께서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북한 통일에 대해 64.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8.6%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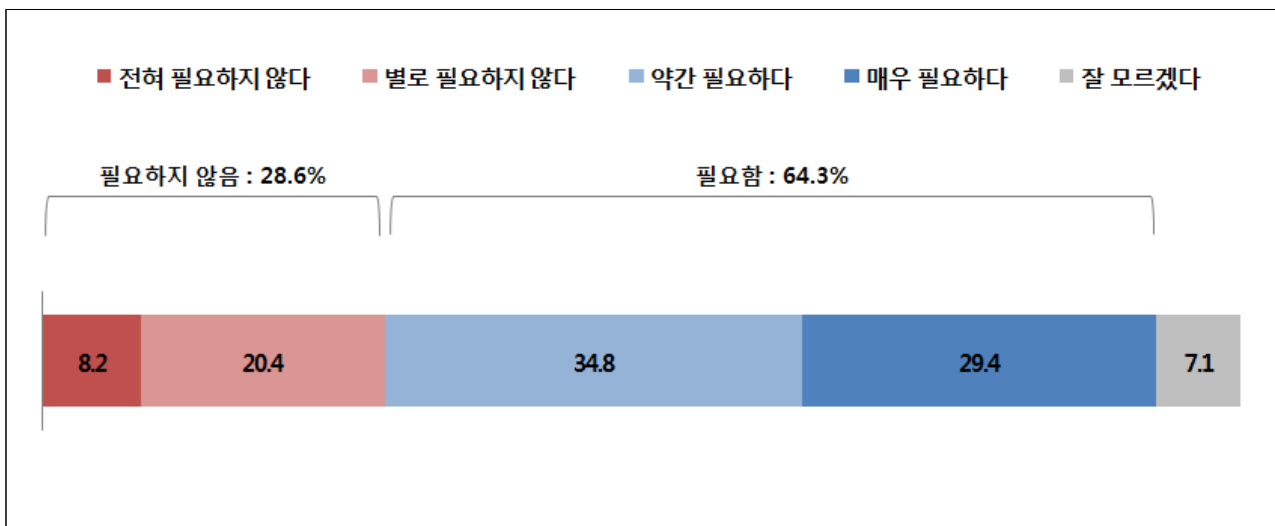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남성'과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률은 '여성'과 '20대'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필요함'은 '남성', '40대', '부산/울산/경남', '블루칼라', '주3회 이상 예배 참석자', '신앙의 정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불필요함'은 '여성', '20대'와 '30대', '신앙의 정도'가 낮을수록 더 높아짐.

[그림]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Base=전체, N=1000, %)



9) 통일에 대한 의견

Q

통일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깝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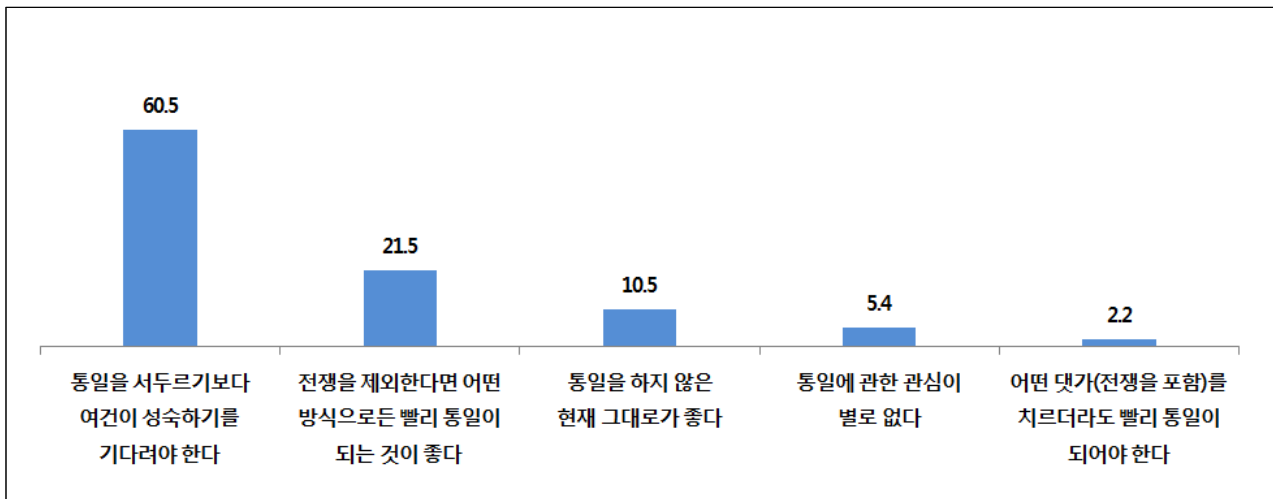
통일에 대해서는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하기를 기다려야 한다'가 60.5%로 가장 높게 응답됐으며, '전쟁을 제외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 21.5%, '통일을 하지 않은 현재 그대로가 좋다' 10.5%, '통일에 관한 관심이 별로 없다' 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어떤 댓가(전쟁을 포함)를 치르더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2.2% 응답됨.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50대', '부산/울산/경남', '비정규직', '기혼자', '직분이 높을수록, '예배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신앙의 정도'가 더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전쟁을 제외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는 '40대 이하' 젊은층에서 더 높으며, '통일을 하지 않은 현재 그대로가 좋다'는 '20대'와 '30대', '서울'과 '대구/경북', '직분없는 성도', '교회 비출석자', '기독교 입문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음.

[그림] 통일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000, %)



10)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시급한 문제

Q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문제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한 순서대로 3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1~3순위 응답률 기준으로 '북한 비핵화'가 52.5%로 절반을 차지함. 그 다음으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 43.9%, '군사적 긴장 해소' 41.7%, '남북한 경제 협력' 35.7%, '평화협정 체결' 29.6%,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25.8% 등의 순으로 응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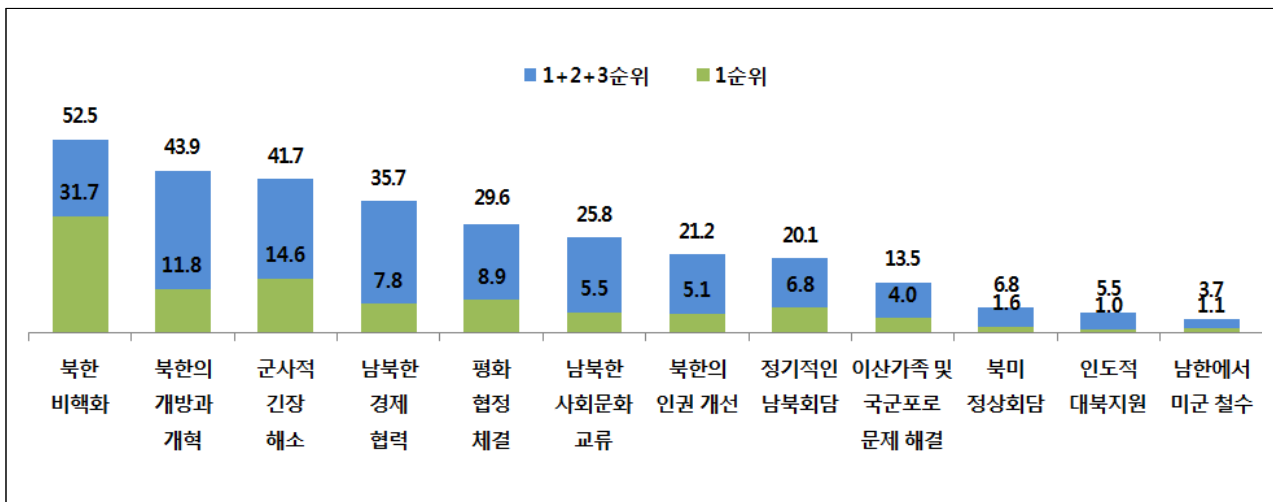
'북한 비핵화'는 '60대', '대구/경북', '학생', '중직자', '예배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신앙의 정도'가 높을수록 더 높아짐.

'북한의 개방과 개혁'은 '60대', '자영업자', '예배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경향이 있으며,

'군사적 긴장 해소'는 '학생', '직분'이 낮을수록, '교회 출석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그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시급한 문제

(Base=전체, N=1000, %, 3순위 중복응답)



11) 현 정부의 통일 및 대북 관련 정책 평가

Q

귀하께서는 현 정부의 통일 및 대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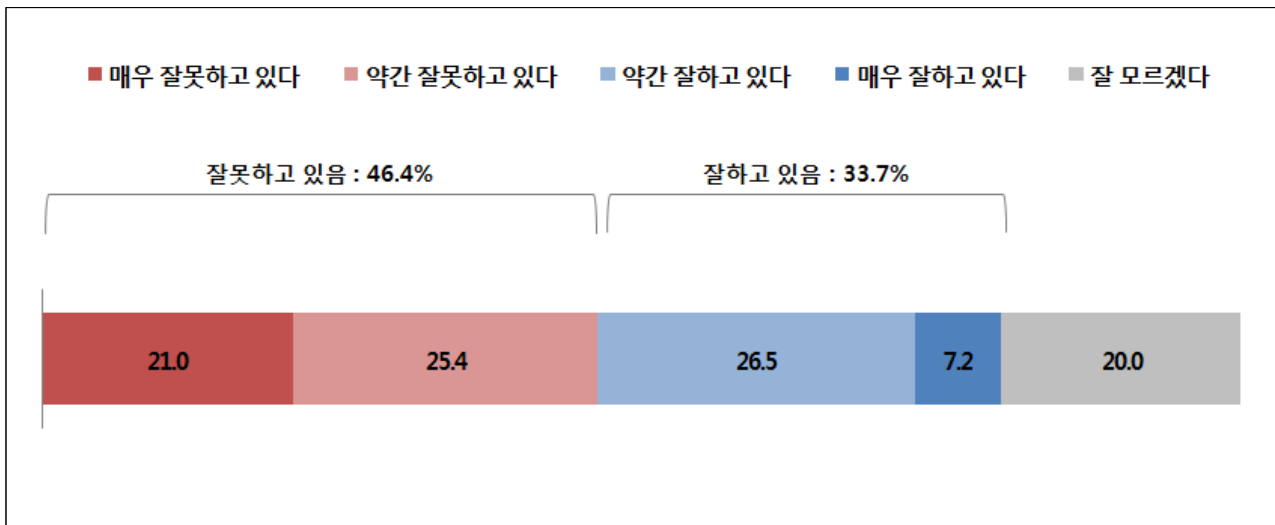


현 정부의 통일 및 대북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음'이 46.4%, '잘하고 있음'이 33.7%로 부정적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남.

'잘못하고 있음' 응답률은 '60대', '대구/경북', '전업주부', '중직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고, '잘하고 있음' 응답률은 '남성', '40대'와 '50대', '광주/전라', '블루칼라'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음.

[그림] 현 정부의 통일 및 대북 관련 정책 평가

(Base=전체, N=1000, %)



12) 일부 단체의 대북 비난 전단 유포에 대한 의견

Q

지난 6월 초, 일부 대북단체들이 북한으로 김정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풍선에 달아 보내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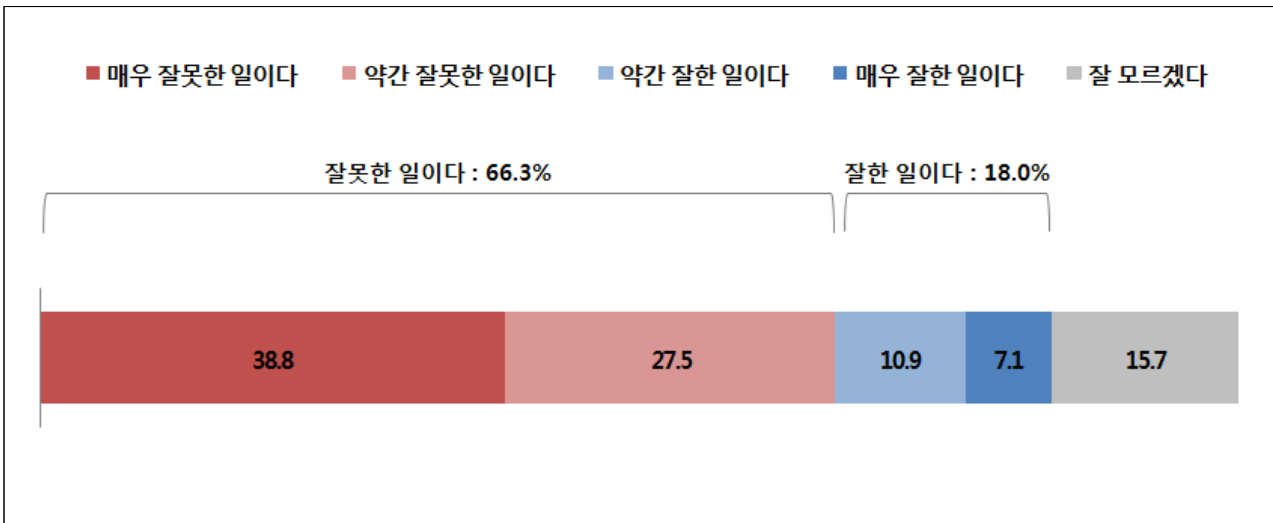


일부 대북단체들이 북한으로 김정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풍선에 달아 보낸 일에 대해, 응답자의 2/3는 (66.3%)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함. '잘한 일'이라는 응답률은 18.0%임.

'잘못한 일' 응답률은 '40대', '광주/전라', '화이트칼라', '기독교 입문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고, '잘한 일' 응답률은 '남성', '60대', '대구/경북', '자영업자', '중직자', '교인 수 99명 이하' 소형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그림] 일부 단체의 대북 비난 전단 유포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000, %)



13) 대북 비난 전단 유포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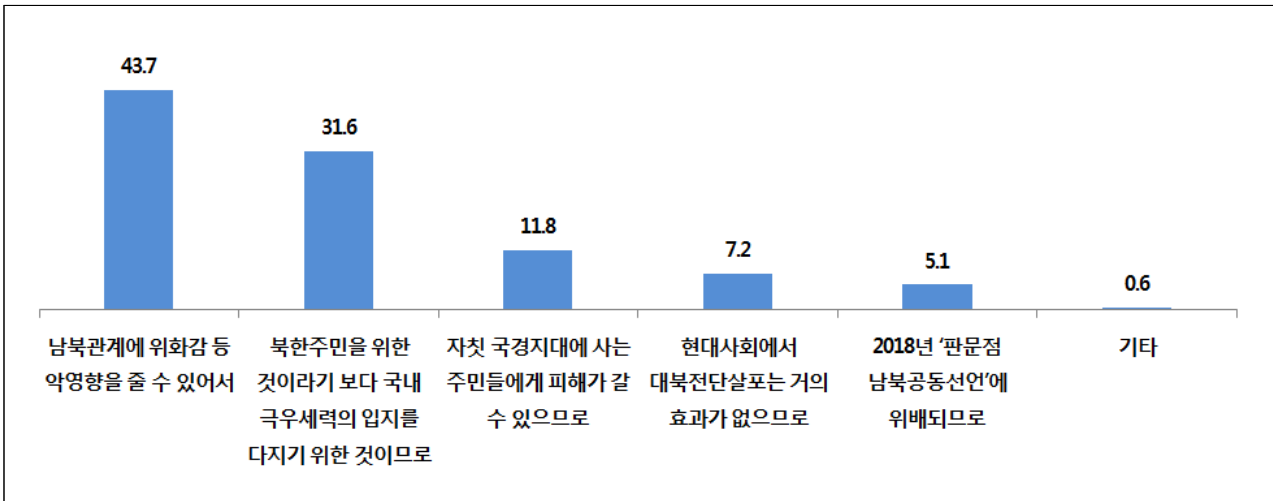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북 비난 전단 유포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남북관계에 위화감 등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가 43.7%로 가장 높게 응답됐으며, '북한주민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국내 극우세력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31.6%, '자칫 국경지대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11.8% 등으로 응답됨.

'남북관계에 위화감 등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는 '여성', '20대'와 '30대', '부산/울산/경남', '교인 수 1000명 이상' 대형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북한주민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국내 극우세력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는 '남성', '50대'와 '40대', '기혼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그림] 대북 비난 전단 유포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Base=대북 비난 전단 유포 '잘못한 일' 응답자, N=663, %)



14) 대북 비난 전단 유포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Q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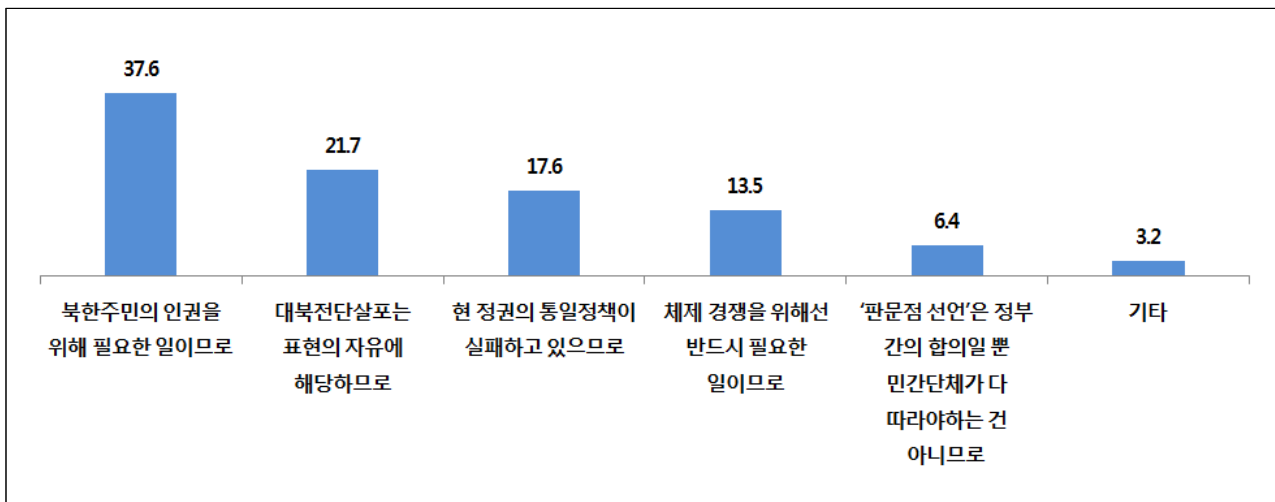
대북 비난 전단 유포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 필요한 일이므로'가 37.6%로 나타났으며,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21.7%, '현 정권의 통일정책이 실패하고 있으므로' 17.6%, '체제 경쟁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일이므로' 13.5% 등으로 응답됨.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 필요한 일이므로'는 '여성', '50대', '블루칼라'와 '전업주부', '비정규직', '기혼자', '서리 집사/권찰'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는 '남성', '30대', '광주/전라', '전업주부', '300만원 미만' 소득자, '교인 수 1000명 이상' 대형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대북 비난 전단 유포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Base=대북 비난 전단 유포 '잘한 일' 응답자, N=180, %)



15)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

Q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귀하의 입장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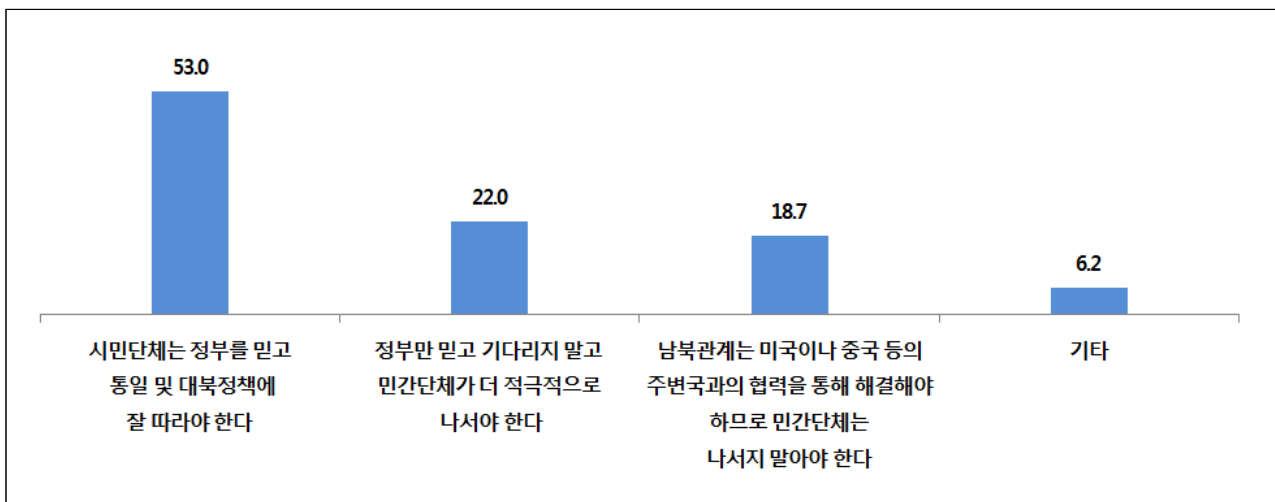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응답자의 과반(53.0%)은 '시민단체는 정부를 믿고 통일 및 대북정책에 잘 따라야 한다'고 응답함. '정부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민간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22.0%, '남북관계는 미국이나 중국 등의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민간단체는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18.7%로 나타남.

'시민단체는 정부를 믿고 통일 및 대북정책에 잘 따라야 한다'는 '여성'과 '40대', '광주/전라'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정부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민간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남성', '대구/경북'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그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

(Base=전체, N=1000, %)



16) 현 남북 및 북미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

Q

남북한 관계, 북미 관계가 활발했다가 현재는 모두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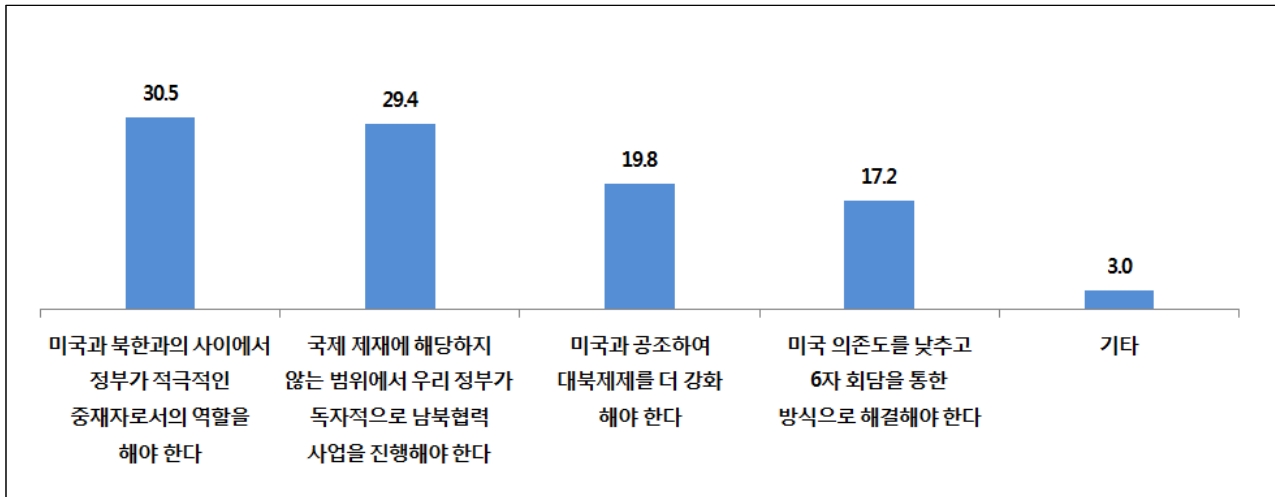
현재의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 '미국과 북한과의 사이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와 '국제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남북협력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가 각각 30.5%, 29.4%로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과 공조하여 대북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19.8%,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6자 회담을 통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17.2%로 나타남.

'미국과 북한과의 사이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30대', '미혼', '직분'이 낮을수록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국제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남북협력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50대',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음.

[그림] 현 남북 및 북미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

(Base=전체, N=1000, %)



5. 젠더 및 사회 취약계층 분야

1) '코로나19 중 직장에서 여성이 더 불리해짐'에 대한 의견

Q

아래 문장을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장에서의 감봉, 무급휴직, 실업에서 여성이 남성과 비교해 더 불리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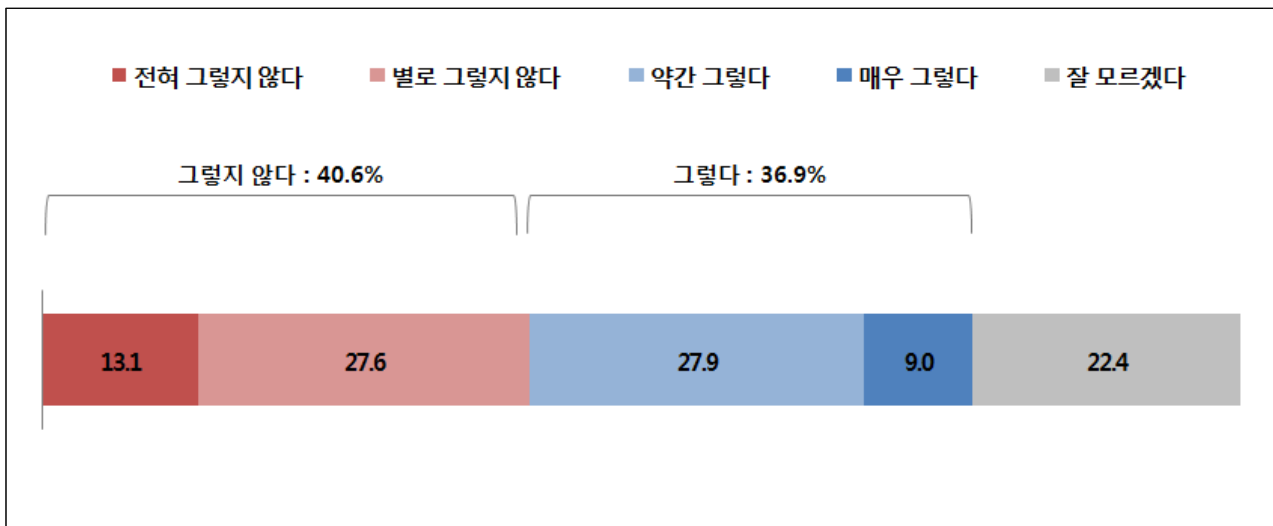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장에서의 감봉, 무급휴직, 실업 등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불리해졌다는 의견에 대해 40.6%가 '그렇지 않다', 36.9%가 '그렇다'고 응답함.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남성', '30대'와 '40대', '자영업자'와 '화이트칼라', '정규직', '500만원이사' 소득자, '교인 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그렇다'는 응답률은 '여성', '40대 이후' 연령대, '전업주부', '비정규직', '기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그림] '코로나19 중 직장에서 여성이 더 불리해짐'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000, %)



2) '코로나19 중 여성의 가사 노동 부담이 커짐'에 대한 의견

Q

아래 문장을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 노인, 장애인을 돌보기 위한 여성의 가사 노동 부담이 더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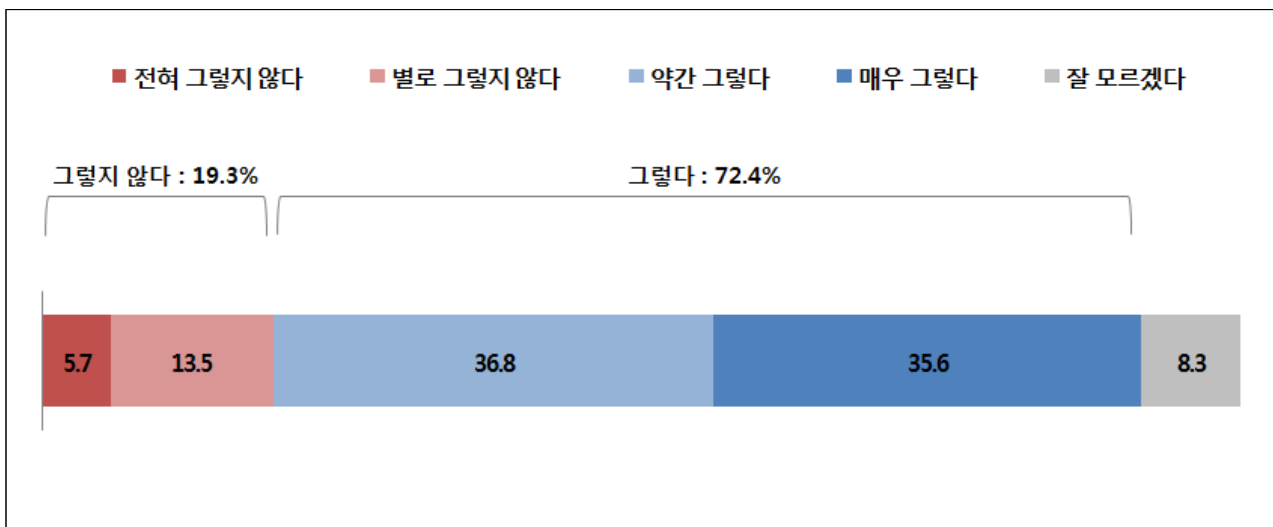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 노인, 장애인을 돌보기 위한 여성의 가사 노동 부담이 더 커졌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72.4%가 '그렇다', 19.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전업주부', '기혼자'는 '그렇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그렇지 않다' 비율은 '남성', '20대', '학생', '미혼'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음.

[그림] '코로나19 중 여성의 가사 노동 부담이 커짐'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000, %)



3) 육아, 노인, 장애인 돌봄 정책 중 시급한 것

Q

가정 내 육아, 노인, 장애인 돌봄에 대해 어떤 대책이 더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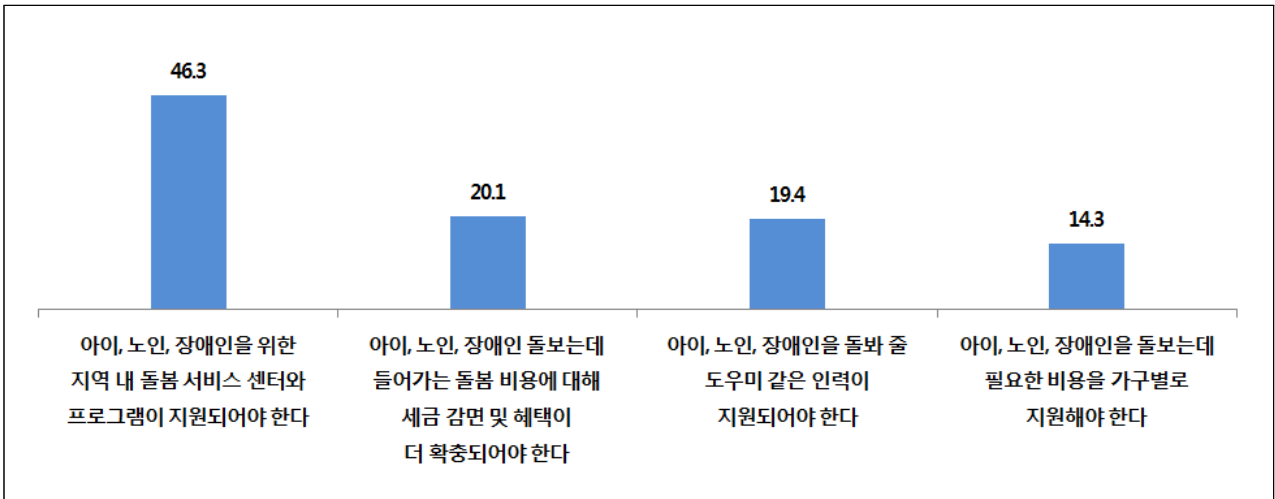
가정 내 육아, 노인, 장애인 돌봄에 대한 대책 중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는 ‘아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센터와 프로그램’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이, 노인, 장애인 돌보는데 들어가는 돌봄 비용에 대해 세금 감면 및 혜택 확충’이 20.1%, ‘아이, 노인, 장애인을 돌봐 줄 도우미 같은 인력 지원’이 19.4%로 응답됨. ‘아이,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비용을 가구별로 지원’은 14.3%로 나타남.

돌봄 정책은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것보다 서비스 센터 및 프로그램과 같이 믿고 맡김으로써 돌봄 노동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정책 확충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임.

‘아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센터와 프로그램’은 ‘여성’, ‘경기/인천’, ‘중직자’, ‘예배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신앙의 정도’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그림] 육아, 노인, 장애인 돌봄 정책 중 시급한 것

(Base=여성의 가사 노동 부담 ‘커짐’ 응답자, N=724, %)



4) 코로나19 감염 두려움의 이유

Q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의 이유로는 '나의 확진으로 인해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걱정이다'가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의 확진으로 인해 내가 속한 모임, 직장 등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걱정이다'가 33.7%, '나의 확진으로 나도 모르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걱정이다'가 13.5%, '나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염려된다'는 12.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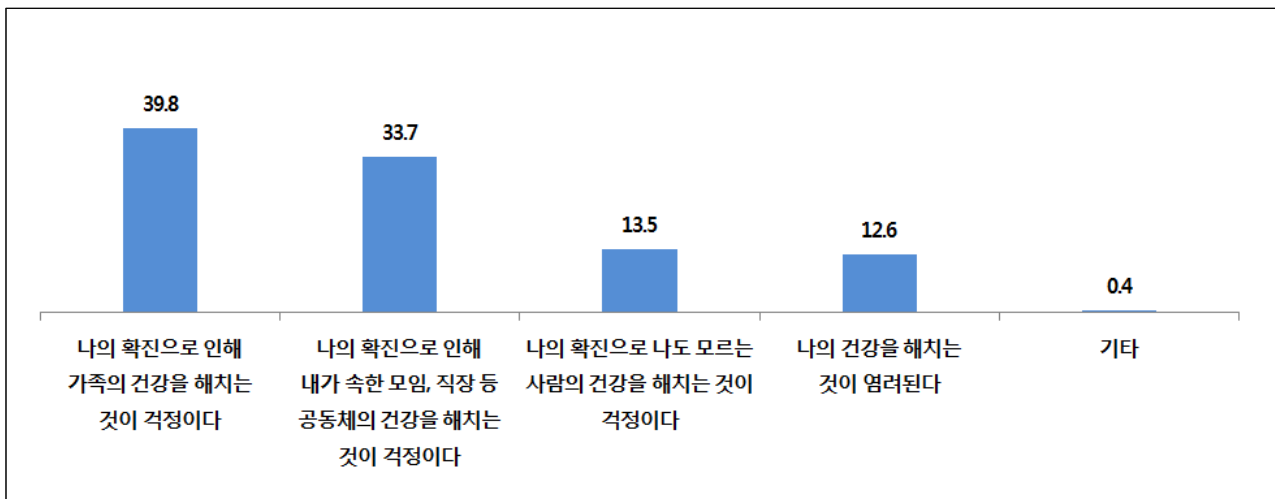
나보다는 나로 인해 가족 및 공동체에 해를 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나의 확진으로 인해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걱정이다'는 '남성', '40대 이하', '학생', '정규직', '직분'이 낮을수록, '교회 비출석자', '신앙의 정도'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나의 확진으로 인해 내가 속한 모임, 직장 등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걱정이다'는 '50대', '700만원 이상 소득자', '서리집사/권찰', '예배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코로나19 감염 두려움의 이유

(Base=전체, N=1000, %)



5)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 감염 후 동성애자에 대한 반감

Q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 감염 이후 동성애자에 대한 반감이 더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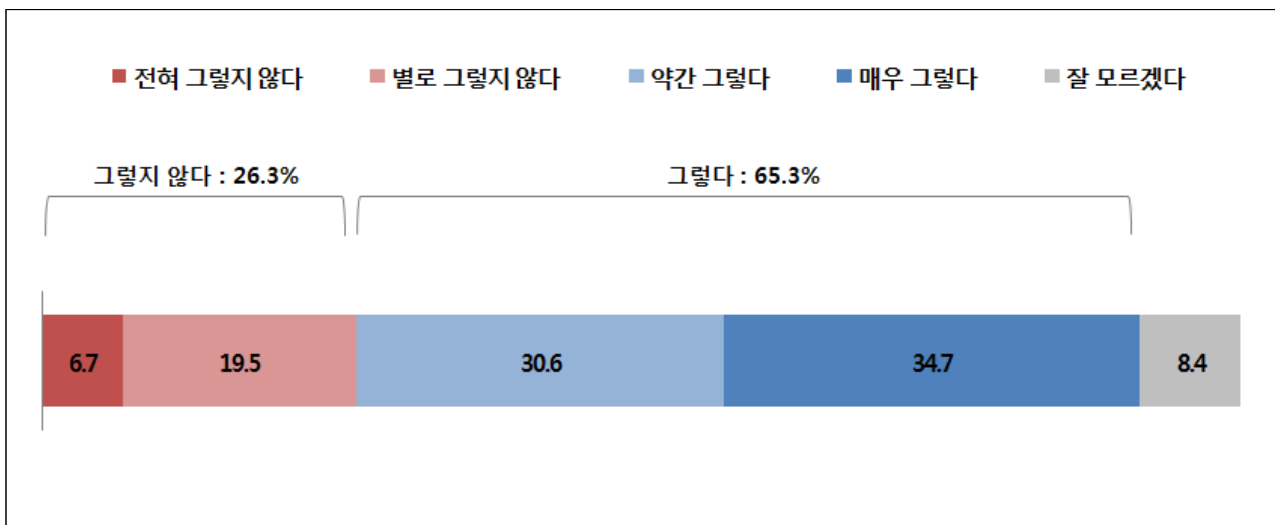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 감염 이후 동성애자에 대한 반감이 커졌는지 대해 65.3%가 '그렇다'(커짐)고 응답했으며, 26.3%가 '그렇지 않다'(커지지 않음)이라고 응답함.

반감이 '커졌다'(그렇다)는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교회 비출석자보다 '출석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고, '서리집사/권찰'과 '신앙의 정도'가 깊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그림]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 감염 후 동성애자에 대한 반감

(Base=전체, N=1000, %)



6) 코로나19 진원지가 된 집단에 대한 경계/혐오 반응

Q

신천지, 해외입국자, 이태원클럽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되었기에 이와 관련된 집단을 경계하고 혐오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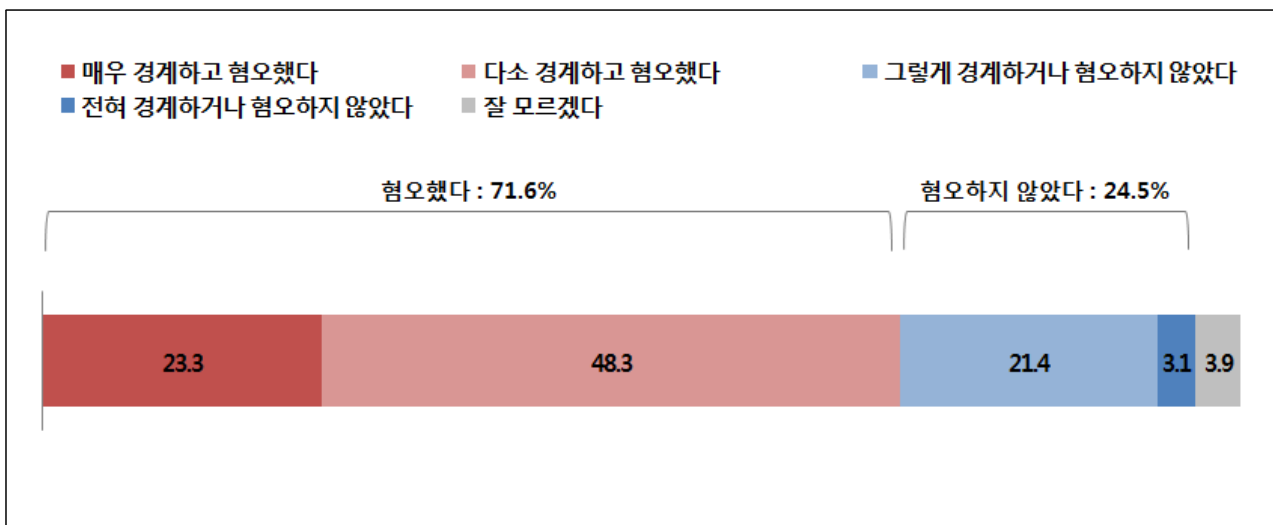
신천지, 해외입국자, 이태원클럽 등 코로나19 진원지가 된 집단에 대해 '경계하거나 혐오했다'는 비율이 71.6%로 나타났으며, '경계하거나 혐오하지 않았다'는 24.5%로 나타남.

'경계하거나 혐오했다'는 응답률은 '20'대가 가장 낮고, '서울'에서 가장 높은 연령대로 나타남.

'경계하거나 혐오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부산/울산/경남'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코로나19 진원지가 된 집단에 대한 경계/혐오 반응

(Base=전체, N=1000, %)



7) '공공의 안전'과 '특정 집단에 대한 불신/경계 극복' 중 더 중요한 것

Q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과 외국인 및 성 소수자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불신과 경계' 극복 중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과 특정 집단에 대한 불신/경계 극복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과반수(54.0%)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특정 집단을 경계하고 불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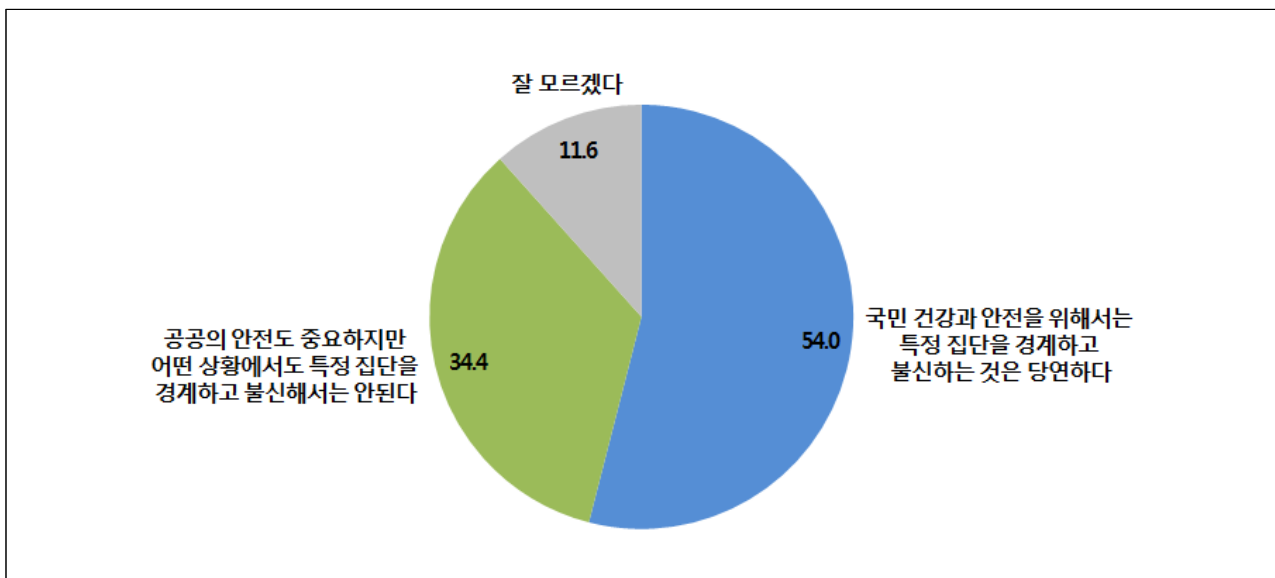
'공공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특정 집단을 경계하고 불신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34.4%로 나타남.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특정 집단을 경계하고 불신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광주/전라'와 '기혼자', 그리고 '직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며, 교회 '출석자'에서 더 높은 특징을 보임.

'어떤 상황에서도 특정 집단을 경계하고 불신해서는 안된다'는 '블루칼라'와 '비정규직', '예배참석 빈도'가 높은 교회 '출석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음.

[그림] '공공의 안전'과 '특정 집단에 대한 불신/경계 극복' 중 더 중요한 것

(Base=전체, N=1000, %)



8) 출석교회의 교회 안팎의 사회적 약자 지원 여부

Q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 내 노약자를 배려하는 예배, 마스크 배부 및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교회 밖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귀하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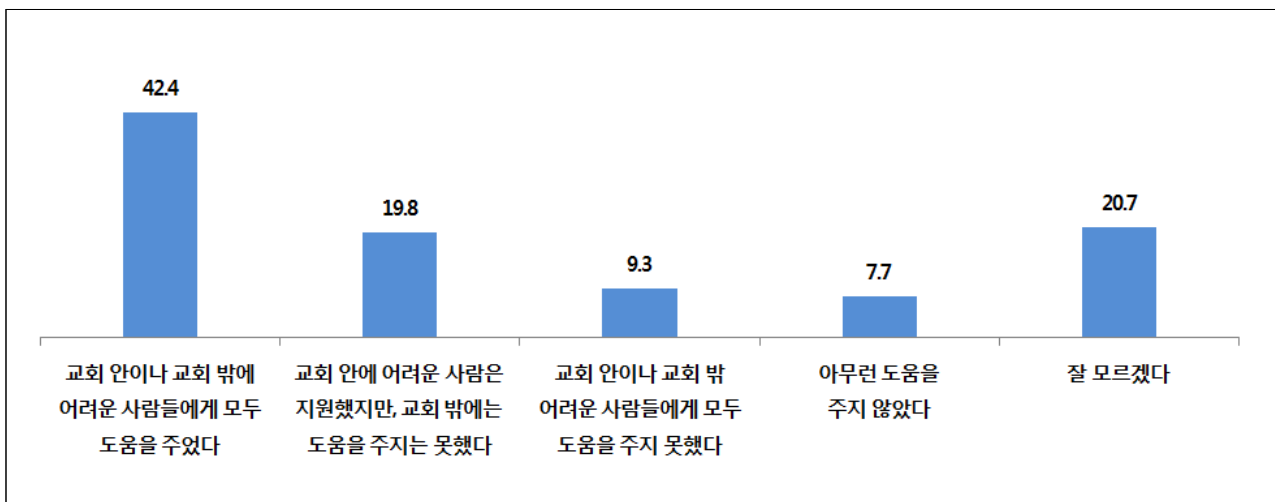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에서 출석 교회의 지원 여부에 대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두 도움을 주었다'가 42.4%,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은 지원했지만, 교회 밖에는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가 19.8%, '교회 안이나 교회 밖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두 도움을 주지 못했다'가 9.3% 등으로 나타남.

'교회 안팎에 모두 도움을 주었다'는 비율은 '교인 수'가 많은 교회일수록 높게 나타나며, '교회 안 어려운 사람만 지원'과 '안팎 모두 도움을 주지 못함'은 '교인 수'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그림] 출석교회의 교회 안팎의 사회적 약자 지원 여부

(Base=교회 출석자, N=849, %)



9) '코로나19로 인한 공동체 의식 강화'에 대한 의견

Q

다음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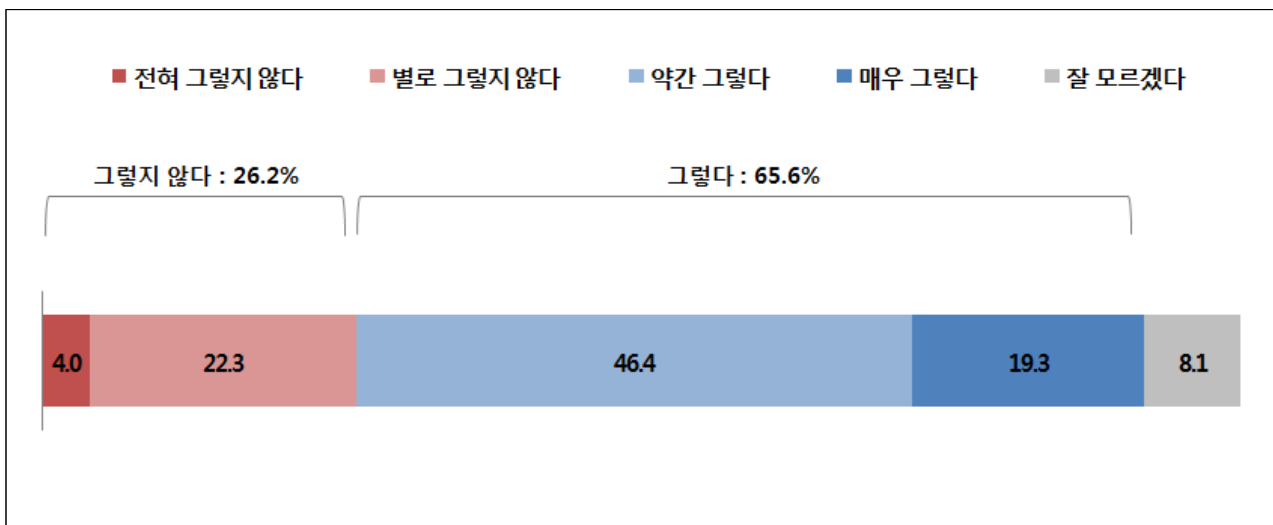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화됐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비율이 65.6%,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26.2%로 나타남.

'그렇다'는 비율은 '40대 이후'와 '자영업자', '기혼자', '중직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20대' 및 '30대', '학생', '미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코로나19로 인한 공동체 의식 강화'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000, %)



10) '외국인에게도 코로나19 관련 서비스 동등 제공'에 대한 의견

Q

다음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유학생, 난민,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의료, 복지, 재정 지원을 우리 국민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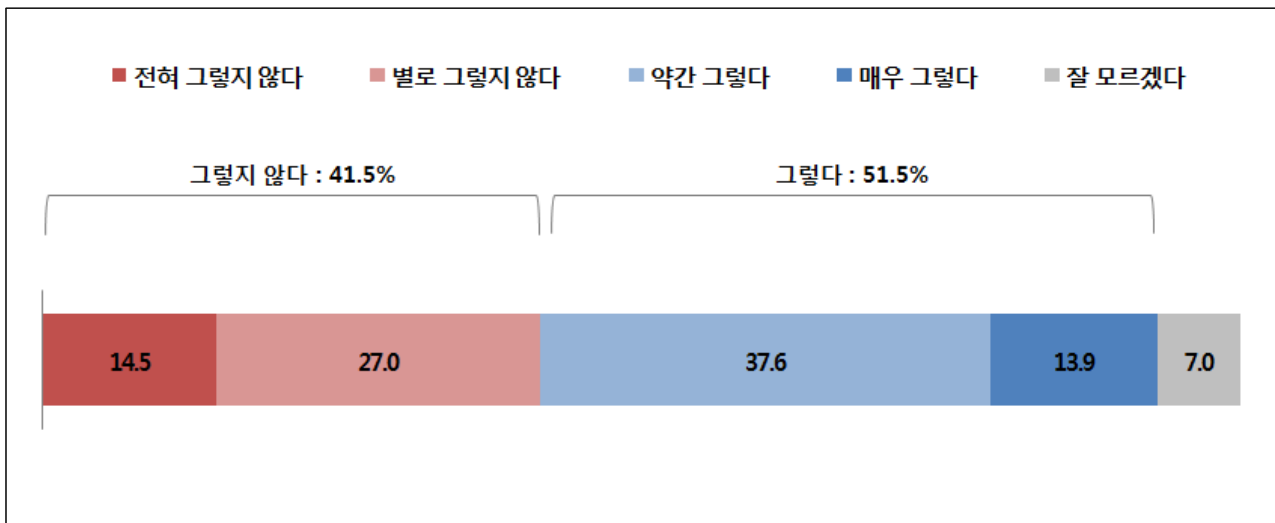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유학생, 난민,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의료, 복지, 재정 지원을 우리 국민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51.5%가 '그렇다', 41.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그렇다'는 응답률은 '남성'과 '40대', '광주/전라', '자영업자', '정규직'에서 높고, '직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은 '여성'과 '30대', '전업주부', '비정규직'에서 높고, '직분'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그림] '외국인에게도 코로나19 관련 서비스 동등 제공'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000, %)



11) '코로나19 후 남녀 동등하게 경제 회복 가능'에 대한 의견

Q

다음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는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일자리와 임금 등 경제 회복이 이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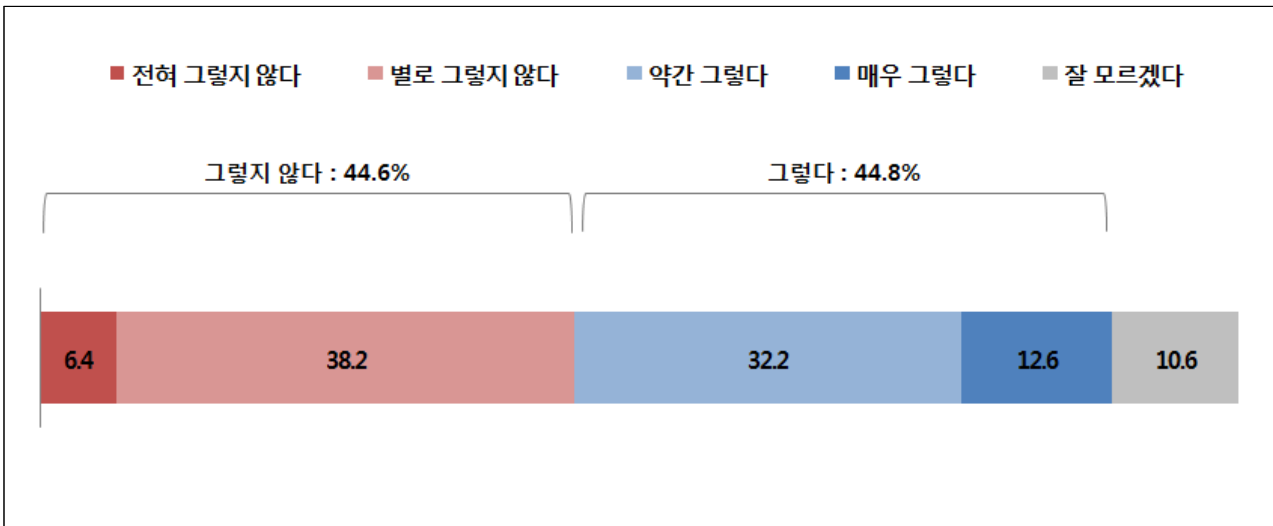


코로나19 동안 직장에서 여성이 더 불리하다는 응답자에게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일자리와 임금 등 경제 회복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44.8%, '그렇지 않다'가 44.6%로 같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렇다'는 응답은 '남성', '60대', '광주/전라', '자영업자', '기혼자', '직분'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회 출석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여성', '부산/울산/경남', '학생', '비정규직', '직분'이 낮고 '교회 비출석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코로나19 후 남녀 동등하게 경제 회복 가능'에 대한 의견 (Base=코로나19로 직장에서 여성이 더 '불리' 응답자, N=369, %)



12) 온라인 불법 음란물 사이트 및 콘텐츠 경험 여부

Q

귀하께서는 온라인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 및 콘텐츠를 본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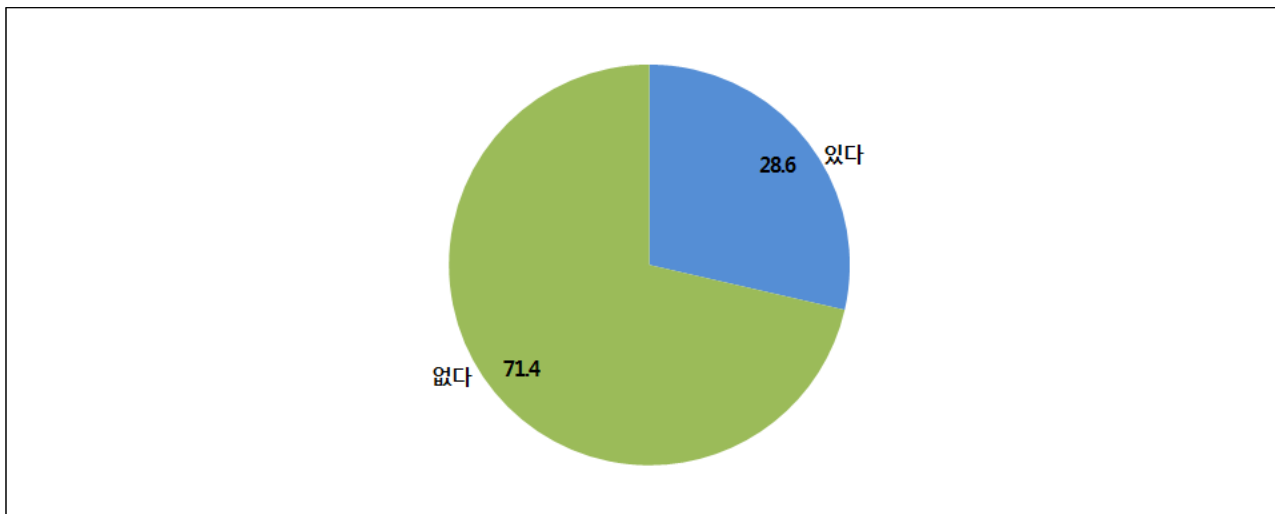


불법 음란물 사이트 및 콘텐츠를 본 경험률은 28.6%로 나타났으며, '남성'에서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블루칼라'와 '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온라인 불법 음란물 사이트 및 콘텐츠 경험 여부

(Base=전체, N=1000, %)



13) 온라인과 현장의 성매매/성폭력 정도 비교

Q

현재 온라인 상의 성매매 및 성폭력(ex. N번방)이 이전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매매나 성폭력과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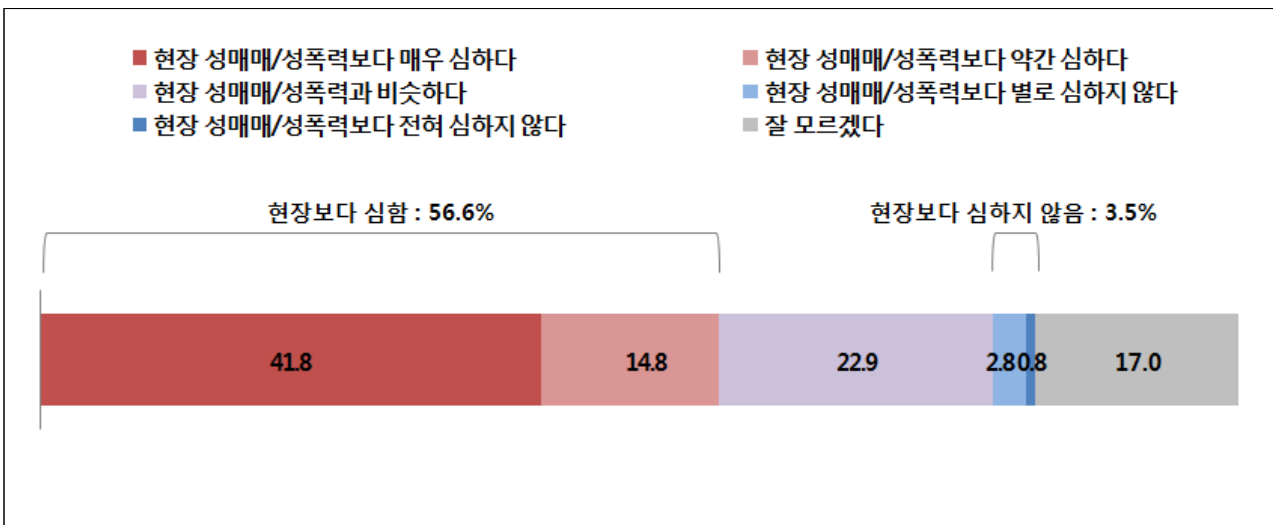


온라인 상의 성매매/성폭력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매매/성폭행에 비해 정도가 어떠한지 묻은 결과, '매우 심하다' 41.8%를 포함하여 '현장보다 심함'이 56.6%이며, '현장보다 심하지 않음'은 3.5%에 불과함. '비슷하다'는 응답은 22.9%로, 온라인 성매매/성폭행이 현장과 비슷하거나 더 심하다는 응답률이 80%에 달함.

'현장보다 심하다'는 응답률은 남성보다 '여성', '40대', '부산/울산/경남', '전업주부', '기혼자', '가구소득'이 높을 수록, '예배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교인 수'가 많을수록 더 높게 나타남.

[그림] 온라인과 현장의 성매매/성폭력 정도 비교

(Base=전체, N=1000, %)



14) 온라인 성폭력/성착취의 가장 큰 문제점

Q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음란물 배포 등의 성폭력과 성착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온라인 성폭력과 성착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1+2+3순위 기준으로 '대면하는 범죄와 달리 죄책감에 둔감함'이 46.9%로 가장 많이 꼽힘. 그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게임 같은 쉬운 접근성' 36.2%, '비대면과 익명성' 35.4%, '인간을 성적 도구로 인식함' 33.5%, '10대 청소년의 높은 참여도' 3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1순위 기준으로는 '비대면과 익명성'이 16.1%로 가장 높게 응답됐으며, '인간을 성적 도구로 인식함' 15.0%, '대면하는 범죄와 달리 죄책감에 둔감함' 13.4%, '스마트폰 게임 같은 쉬운 접근성' 12.0%, '10대 청소년의 높은 참여도' 11.2%로 나타남.

1순위 및 1+2+3순위에서 공통으로 5가지가 상위에 나타나, 이 5가지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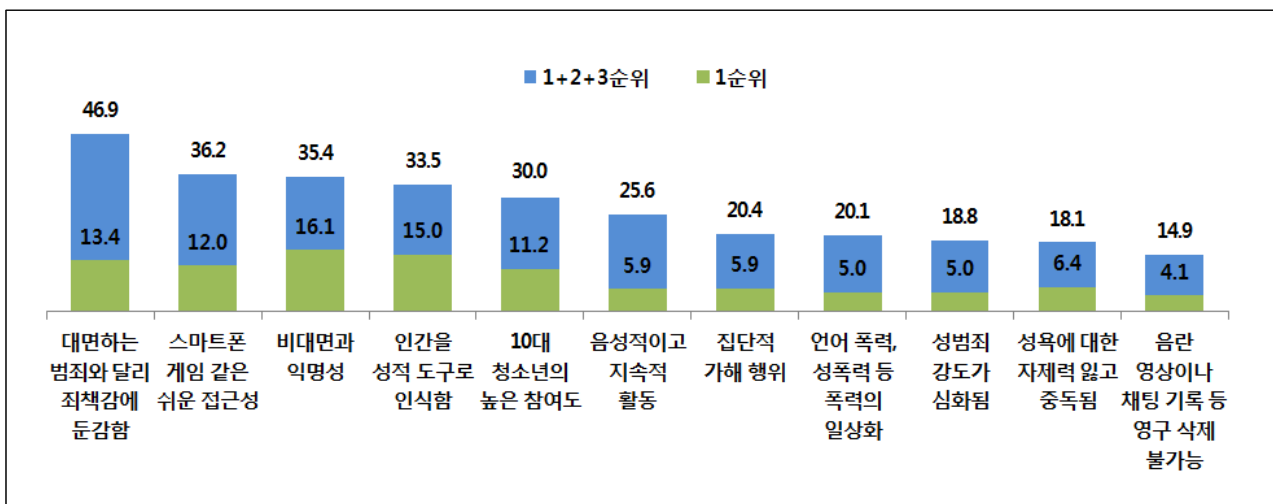
'대면하는 범죄와 달리 죄책감에 둔감함'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스마트폰 게임 같은 쉬운 접근성'은 '여성', '서리집사/권찰'이,

'비대면과 익명성'은 '20대'와 '30대', '자영업자', '미혼자', '직분없는 성도'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온라인 성폭력/성착취의 가장 큰 문제점

(Base=전체, N=1000, %, 3순위 중복응답)



15) 동성애자 축복한 목사 재판에 대한 의견

Q

최근 모 교단에서 목사가 동성애자에게 축복하는 일로 인해서 교단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자에게 축복하는 일로 교단 재판을 받게 된 목사에 대해, '축복은 목사의 권한이므로 누구를 축복하든 징계해서는 안된다' 29.5%, '축복은 목사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동성애자를 축복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므로 목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27.3%, '축복은 목사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동성애자를 축복한 것은 잘못이므로 목사 자격은 유지하되 징계는 해야 한다' 25.3% 등으로 의견이 다소 분산된 형태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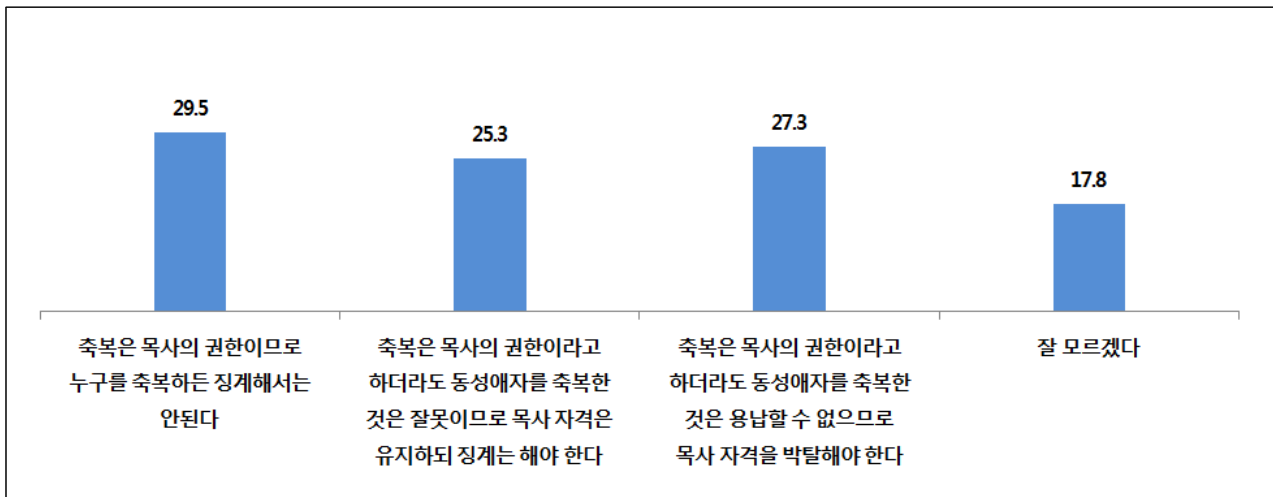
'축복은 목사의 권한이므로 누구를 축복하든 징계해서는 안된다'는 응답률은 직분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축복은 목사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동성애자를 축복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므로 목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직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축복은 목사의 권한이므로 누구를 축복하든 징계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40대', '자영업자', '비정규직', '직분 없는 성도', '교회 비출석자', '신앙의 정도'가 낮을수록 더 높은 경향이 있음.

'축복은 목사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동성애자를 축복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므로 목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응답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 '직분'이 높을수록, '교회 출석자', '예배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신앙의 정도'가 깊을수록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그림] 동성애자 축복한 목사 재판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000, %)



6. 교회 및 신앙관 분야

1) 지난 주일(7월 19일) 예배 형태

Q

귀하께서는 지난 주일(7월 19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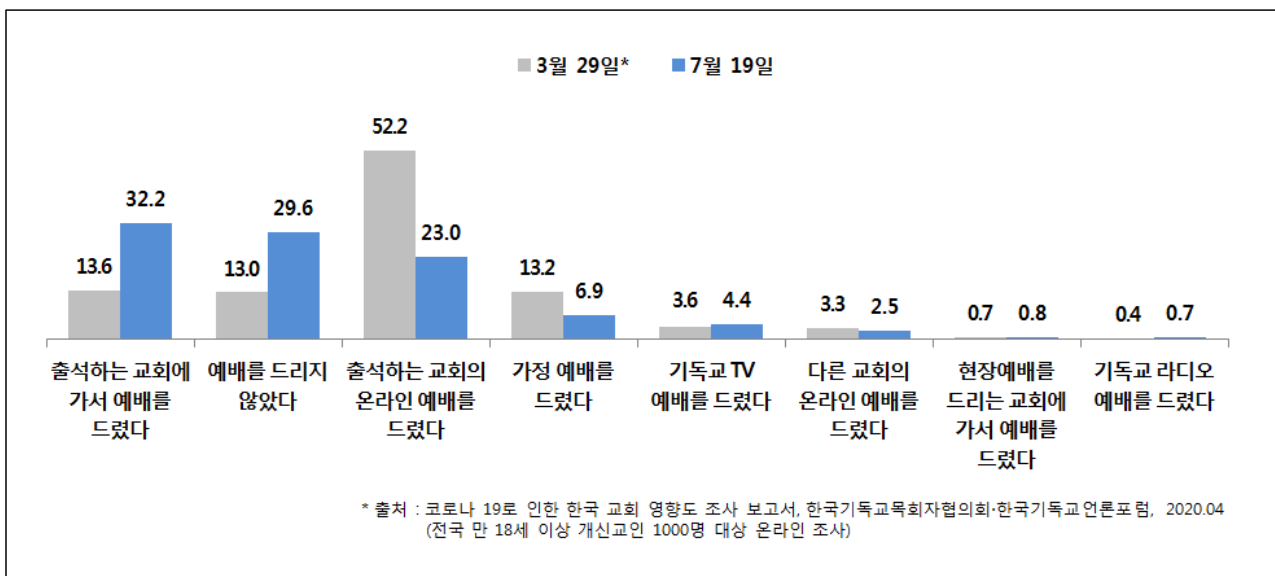
지난 주일(7/19) 예배 형태는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림'이 32.2%, '예배를 드리지 않음'이 29.6%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출석하는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드림' 23.0%, '가정 예배' 6.9%, '기독교TV 예배' 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지난 4월에 시행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의 공동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온라인 예배 비율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 현장 예배 비율이 늘었음. 이는 현장 예배 재개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나, '예배를 드리지 않음'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됨으로써 일어난 특징적 변화로, 앞으로의 예배 형태 변화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주요한 결과임.

'예배를 드리지 않음'은 '20~40대'와 '직분'이 낮을수록, '예배참석 빈도'가 낮을수록, '신앙의 정도'가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보임.

[그림] 지난 주일(7월 19일) 예배 형태

(Base=전체, N=1000, %)



2) 현장 예배 대체 경험으로 느낀 점

Q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기독교방송예배로 대체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예/아니오'로 응답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기독교방송 예배 등으로 예배를 대체한 경험에 대해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려 좋았다' 78.9%, '내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다' 76.6%,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다' 72.0%, '교회에서만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64.6%, '교회를 못가는 아쉬움으로 몽클하거나 눈물이 났다' 29.8% 등의 긍정률(그렇다 응답률)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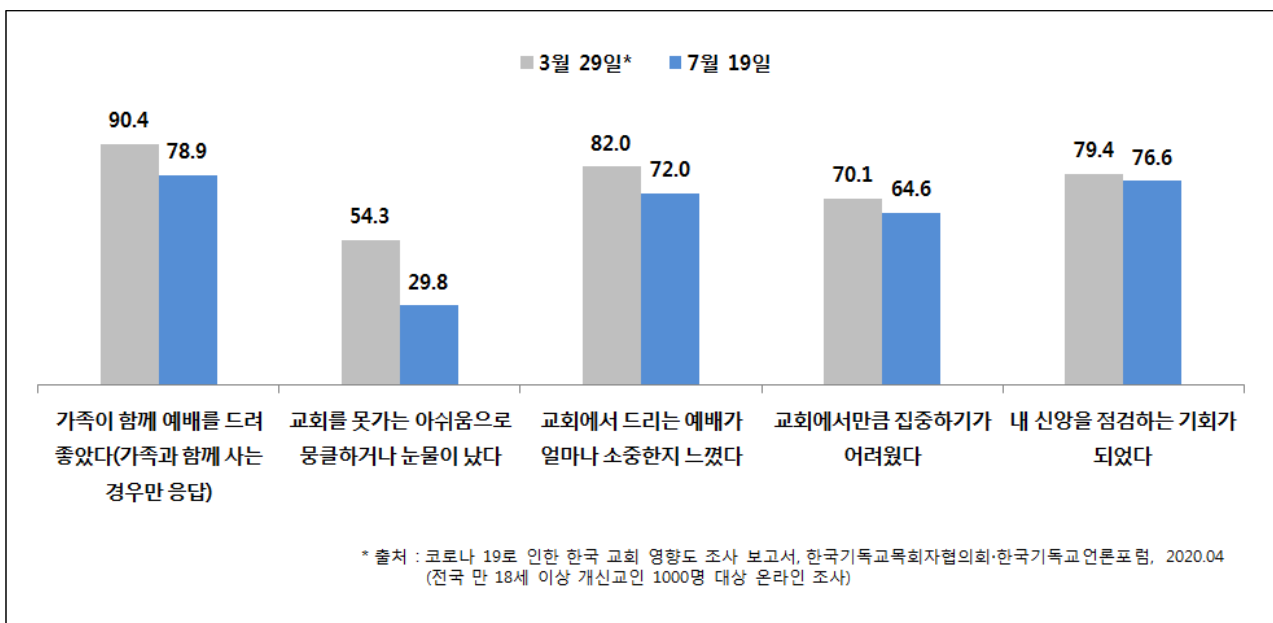
지난 4월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의 긍정률이 하락함. 특히, '교회를 못가는 아쉬움으로 몽클하거나 눈물이 났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다', '교회에서만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등의 긍정률 하락은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줌.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려 좋았다' 응답률은 '50대', '기혼자', '직분자', '교회 출석자' 및 '교인 수 99명 이하' 소형교회, '신앙의 정도'가 높을수록 더 높아지고 있음.

'내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여성', '50대', '광주/전라', '서리집사/권찰', "예배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응답 경향을 보임.

[그림] 현장 예배 대체 경험으로 느낀 점(그렇다' 응답률)

(Base=지난주 온라인/가정/기독교방송 예배자, N=374, %)



3) 온라인 예배/기독교방송 예배와 현장 예배 비교



이번에 온라인 예배/기독교방송예배를 드렸을 때, 교회에서의 현장 예배와 비교해 어떠셨습니까?



온라인 예배/기독교방송 예배가 '현장 예배 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는 비율은 15.5%, '비슷했다'는 31.7%,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는 52.8%로 나타남.

'현장 예배보다 더 좋았다'는 응답률은 지난 주일(7/19) '기독교TV 예배'를 드린 응답자와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드린 응답자(사례수 적으므로 해석 시 주의)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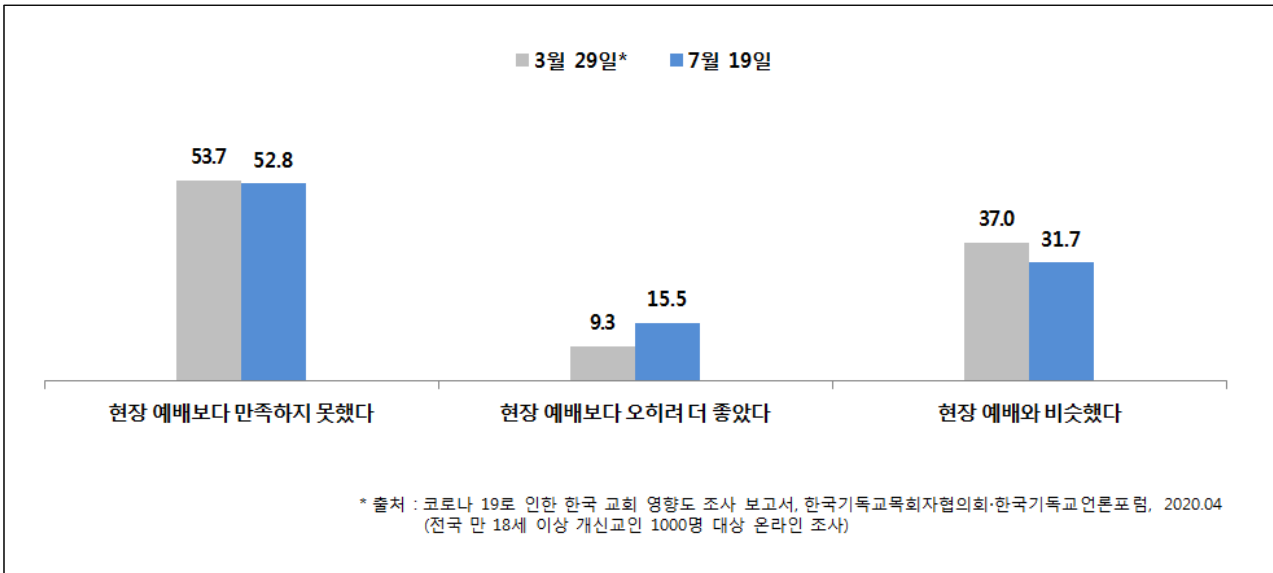
'현장 예배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는 비율은 지난 4월보다 6.2%p 상승했으며,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는 비율은 0.9%p 하락함.

이 역시 온라인 예배/기독교방송 예배 등 현장 대체 예배에 익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줌.

'현장 예배 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는 '화이트칼라', '직분이 낮을수록', 교회 '비출석자' 및 '예배 참석 빈도'가 낮을수록, '교인 수 99명 이하'의 소형교회, '신앙의 정도'가 낮을수록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온라인 예배/기독교방송 예배와 현장 예배 비교

(Base=지난주 온라인/가정/기독교방송 예배자, N=374, %)



4) 온라인 예배/기독교방송 예배/가정 예배 시 헌금 여부

Q

귀하께서는 온라인 예배/기독교방송예배/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은 어떻게 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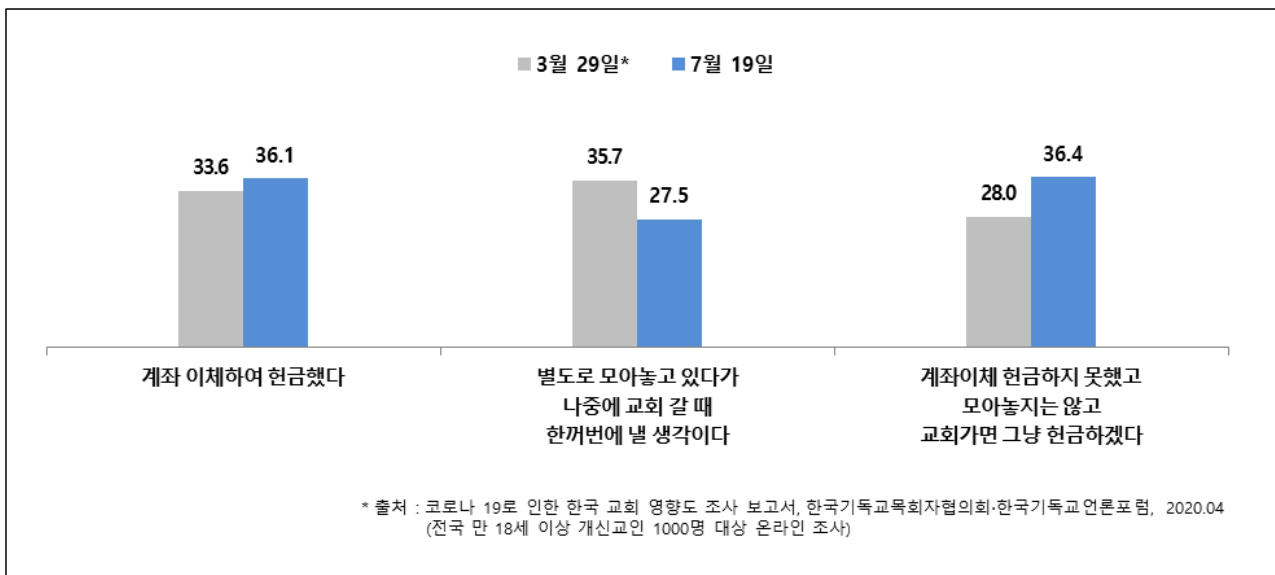


현장 예배를 다른 형태의 예배로 대체하면서 헌금 여부에 대해서는 '계좌이체 헌금하지 못했고 모아놓지는 않고 교회가면 그냥 헌금하겠다'와 '계좌 이체하여 헌금했다'가 각각 36.4%, 36.1%로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별도로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교회 갈 때 한꺼번에 낼 생각이다'는 27.5%로 나타남.

지난 4월 조사 결과에 비해 '계좌 이체' 비율은 2.5%p 차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별도로 모음'은 8.2%p 하락, '별도 모으지 않고 교회 가면 헌금 예정'은 8.4%p 상승함.

'계좌이체 헌금하지 못했고 모아놓지는 않고 교회가면 그냥 헌금하겠다'는 '남성', '20대', '학생', '정규직', '직분'이 낮을수록, '예배참석빈도'가 낮을수록, '신앙의 정도'가 낮을수록 더 응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계좌 이체하여 헌금했다'는 응답은 '여성', '50대', '서울', '자영업자'와 '전업주부', '비정규직',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직분자', '예배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교인 500~999명', '신앙의 정도'가 높을수록 더 높아지며,
 '별도로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교회 갈 때 한꺼번에 낼 생각이다'는 '블루칼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중직자', '예배참석 빈도 주3회 이상', '교인 수 99명 이하' 소형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온라인 예배/기독교방송 예배/가정 예배 시 헌금 여부 (Base=지난주 온라인/가정/기독교방송 예배자, N=374, %)



5) 코로나19 종식 이후 예배 행태 예상

Q

그럼 귀하의 경우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어떤 것 같습니까?



코로나19 종식 이후 예상하는 예배 행태로는 '예전처럼 동일하게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가 73.4%로 가장 높고, '필요한 경우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기독교방송으로 예배 또는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16.9%, '교회에 잘 안 가게 될 것 같다' 6.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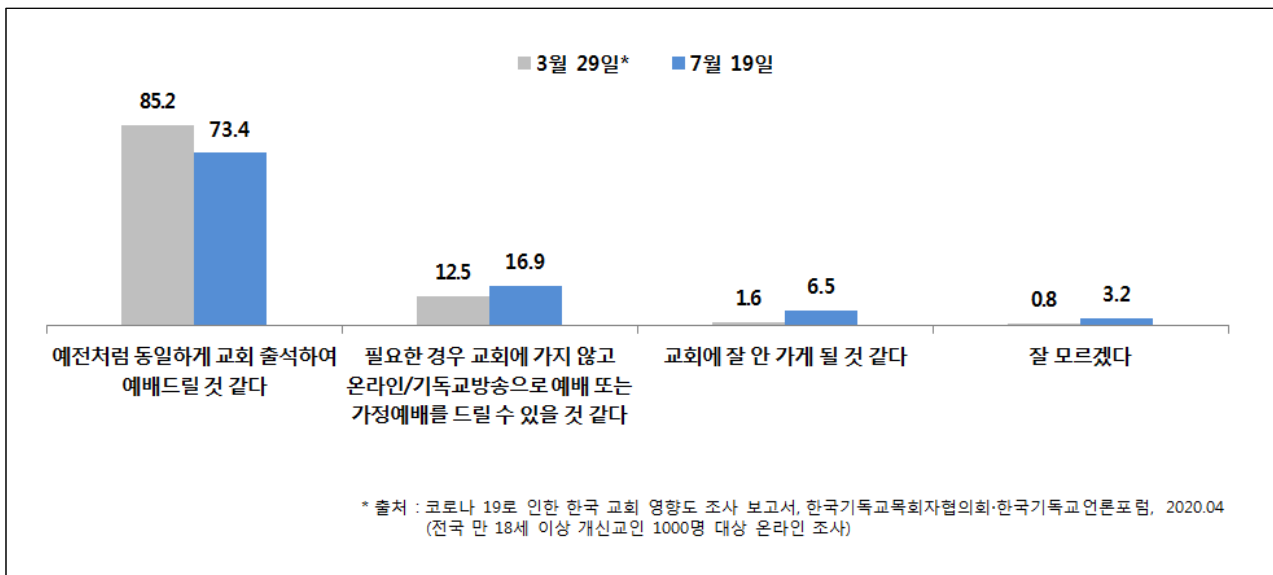
지난 4월 조사 결과 대비, '필요한 경우 온라인/기독교방송/가정 예배' 응답률이 4.4%p 상승했으며, '교회에 잘 안 가게 될 것 같다'도 1.6%에서 6.5%로 4.9%p 상승함.

'예전처럼 동일하게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는 '여성', '40대 이후', '직분자', '예배참석빈도'가 높을수록 '신앙의 정도'가 깊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필요한 경우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기독교방송으로 예배 또는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응답률은 '20대', '예배참석 빈도'가 낮을수록, '신앙의 정도'가 낮을수록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그림] 코로나19 종식 이후 예배 행태 예상

(Base=전체, N=1000, %)



6) 온라인 교회에 다닐 의향

Q

온전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활동을 하는 100% 온라인 교회에 다닐 의향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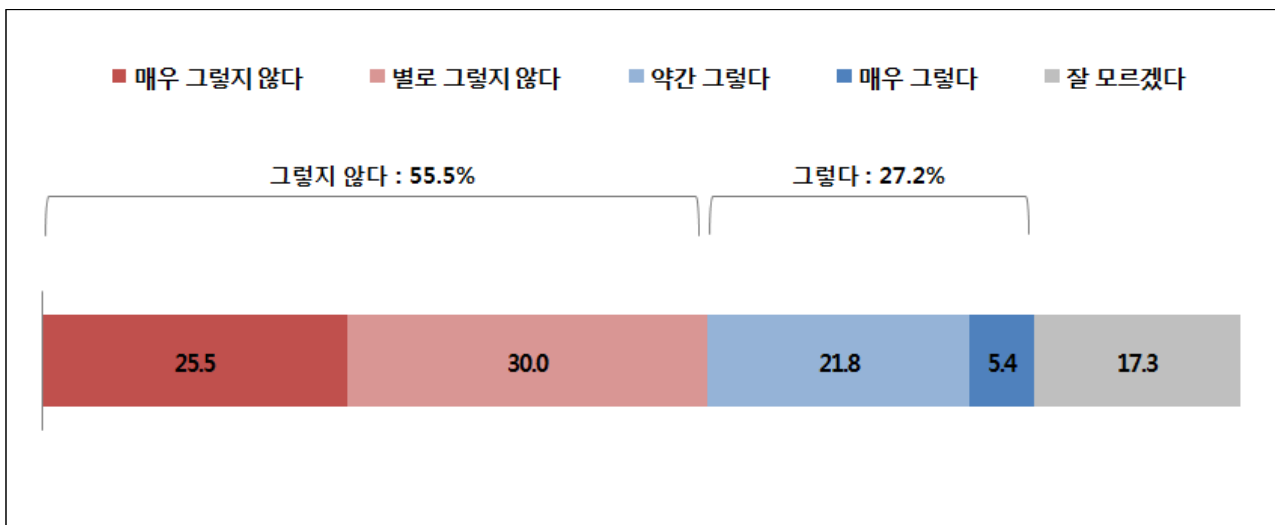


온전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활동을 하는 100% 온라인 교회에 다닐 의향은 '없다'가 55.5%, '있다'가 27.2%로 나타남.

온라인 교회에 다닐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은 '30대'와 '직분없는 성도', '교회 비출석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교인 수'가 적은 교회에 다닐수록 높은 응답을 하는 경향성을 보임.

[그림] 온라인 교회에 다닐 의향

(Base=전체, N=1000, %)



7) 주일 성수에 대한 의견

Q

코로나19 이후 주일 성수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주일 성수에 대해서 61.6%의 응답자가 '온라인 또는 가정 예배로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고 응답함.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27.8%로 나타남.

지난 4월 조사 결과 대비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 응답률은 12.9%p 하락했으며, '온라인/가정 예배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는 7.0%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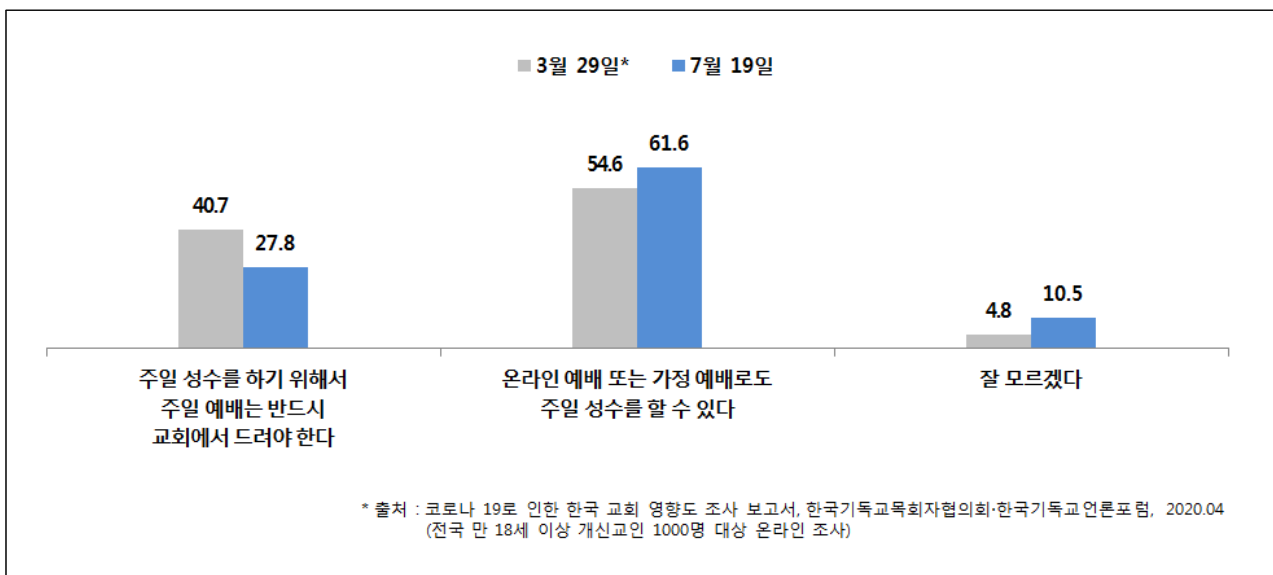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기독교방송/가정 예배 경험으로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줌.

'온라인 또는 가정 예배로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는 '여성', '30대', '예배참석 빈도'가 낮을수록, '신앙의 정도'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고 '연령'과 '직분' 그리고 '예배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신앙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응답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드러남.

[그림] 주일 성수에 대한 의견

(Base=교회 출석자, N=849, %)



8)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 관련 어려운 점

Q

코로나 19 상황에서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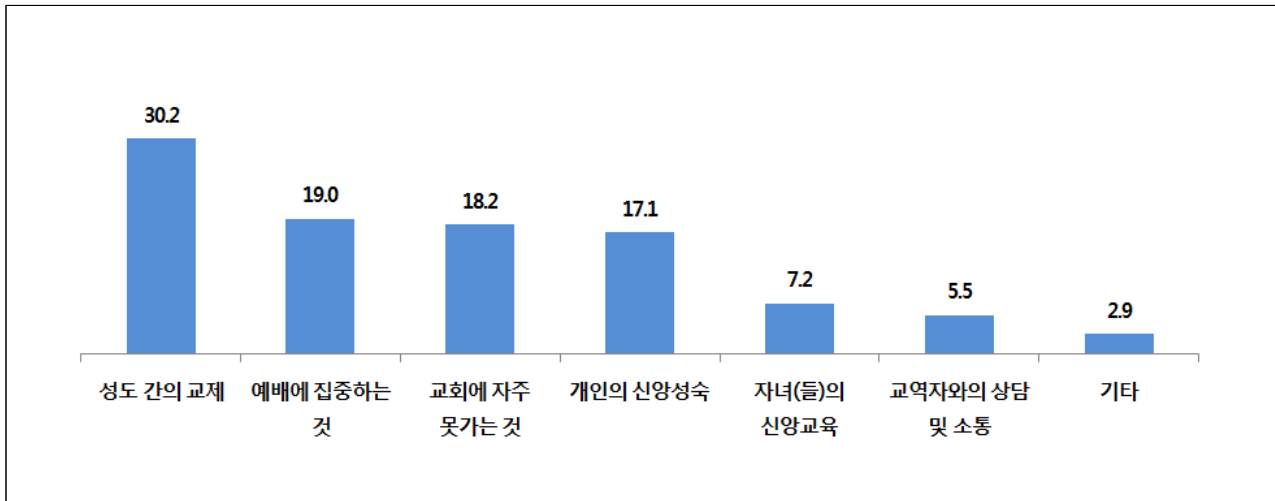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성도간의 교제'가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것' 19.0%, '교회에 자주 못가는 것' 18.2%, '개인의 신앙성숙' 17.1% 등의 순으로 응답됨.

'성도간의 교제'가 어렵다는 응답률은 '50대 이후', '직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예배참석 빈도'와 '신앙의 정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은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음.

[그림]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 관련 어려운 점

(Base=전체, N=1000, %)



9)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강화해야 할 사항

Q

코로나 19 이후 교회가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사항으로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온라인 콘텐츠 개발'이 46.9%로 가장 많이 꼽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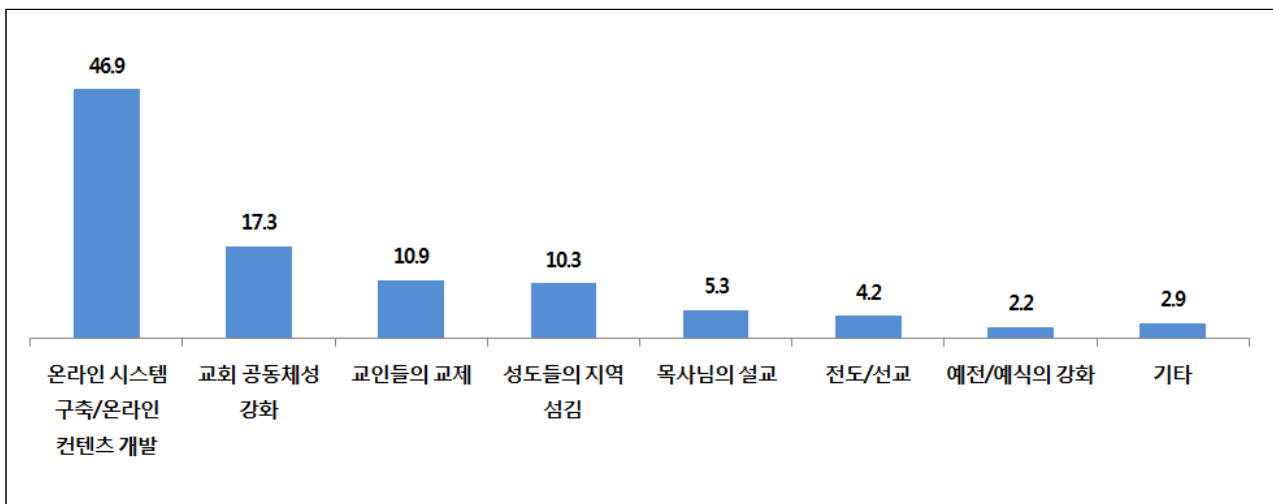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 '교회 공동체성 강화' 17.3%, '교인들의 교제' 10.9%, '성도들의 지역 섬김'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온라인 시스템 구축/온라인 콘텐츠 개발' 응답률은 '직분'이 낮을수록, '예배참석 빈도'가 낮을수록, '교인 수'가 많은 교회일수록 높게 나타나며, '신앙의 정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함.

'공동체성 강화'는 '99명 이하' 소형 교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그림]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강화해야 할 사항

(Base=전체, N=1000, %)



10) 코로나19 상황에서 집에서 하고 있는 신앙 생활

Q

코로나19 상황에서 귀하께서 집에서 하고 계신 신앙 생활이 있다면 다음 중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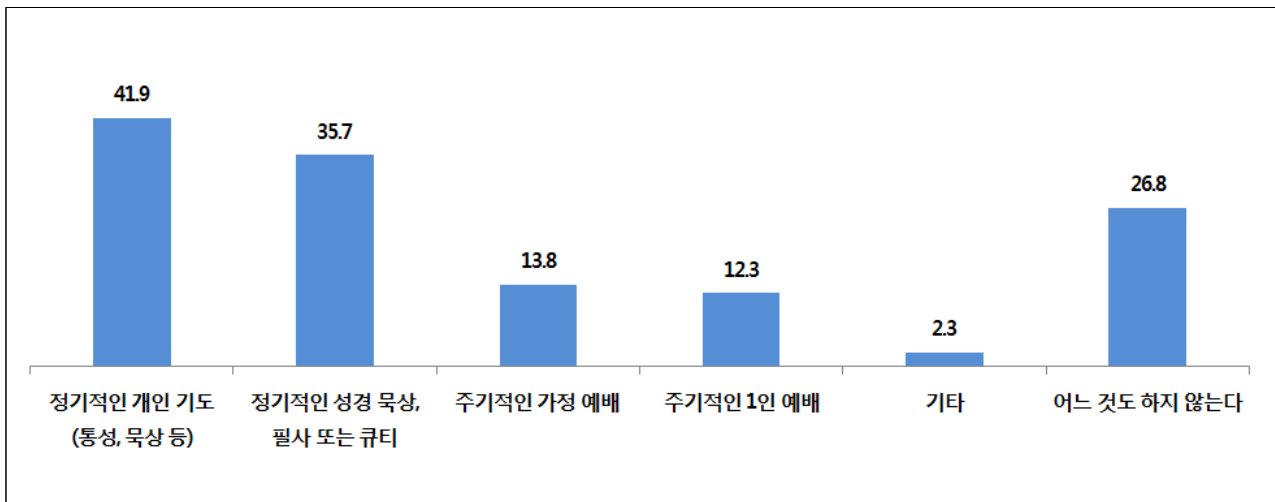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신앙 생활로는 '정기적인 개인 기도'와 '정기적인 성경 묵상, 필사 또는 큐티'가 각각 41.9%, 35.7%로 높게 나타남.

'주기적인 가정 예배'와 '주기적인 1인 예배'는 각각 13.8%, 12.3%로 나타났으며, 1/4 가량은(26.8%) '어느 것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정기적인 개인 기도' 외에 집에서 하고 있는 신앙생활 대부분은 '여성'과 '연령'이 높을수록, '전업주부' 그리고 '직분'이 높을수록, '예배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신앙의 정도'가 깊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코로나19 상황에서 집에서 하고 있는 신앙 생활

(Base=전체, N=1000, %, 중복응답)



11)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신앙생활 관련 관심 사항

Q

다음 중 코로나19 이후 귀하의 신앙 생활과 관련하여 관심이 증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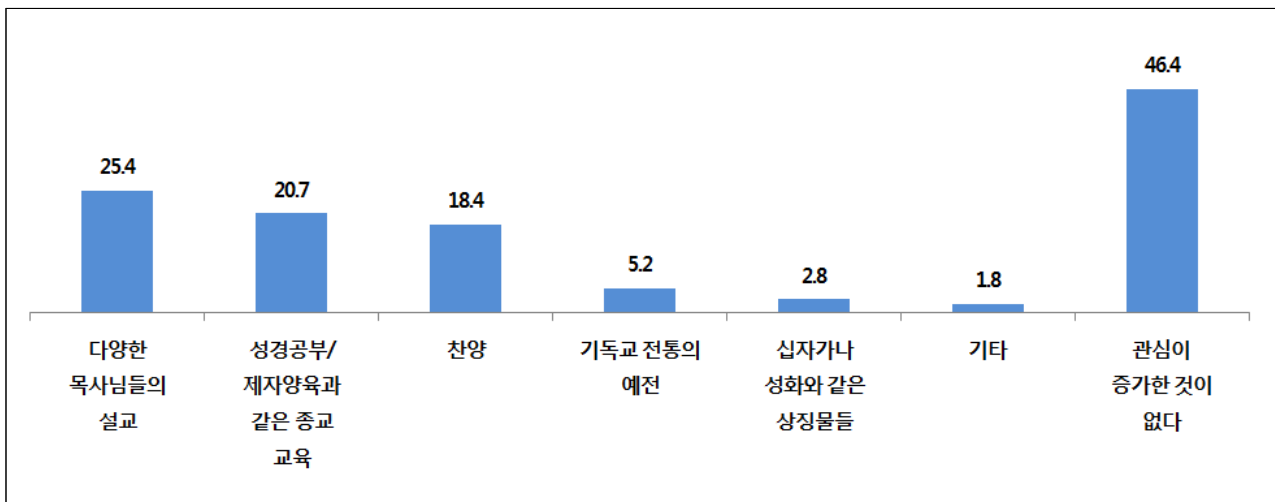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신앙생활 관련 관심 사항을 조사한 결과, 46.4%는 '관심이 증가한 것이 없다'고 응답함. 그 외에는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 25.4%, '성경공부/제자양육과 같은 종교 교육' 20.7%, '찬양' 18.4% 등으로 나타남.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 '성경공부/제자양육과 같은 종교 교육', '찬양' 등의 응답률은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직분'과 '예배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관심이 증가한 것이 없다'는 응답률은 직분이 낮을수록 높고, 교인수가 1000명 이상인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신앙생활 관련 관심 사항

(Base=전체, N=1000, %, 중복응답)



12) 코로나19 중 정부/지자체의 종교 관련 권고조치에 대한 의견

Q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종교집회 자제 등의 권고조치를 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 침해로 여겨지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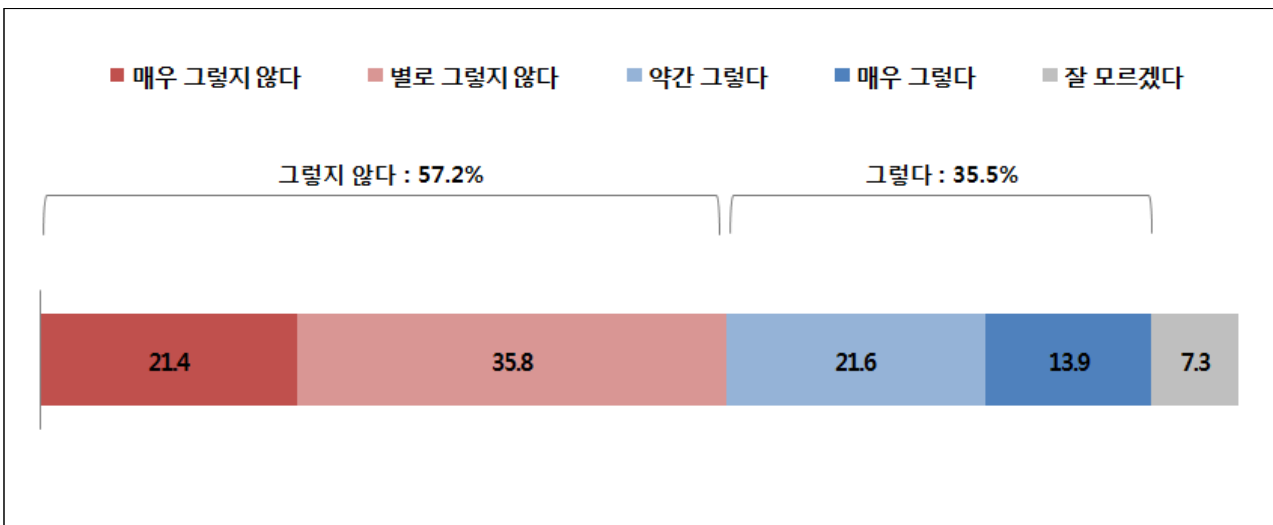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종교집회 자제 등의 권고조치를 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 침해로 여겨지는지에 대해 57.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개신교인의 절반 이상은 정부 및 지자체의 권고 조치에 대해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임.

권고조치가 종교의 자유 침해로 '여겨진다'(그렇다)는 응답률은 '50대 이후'와 '대구/경북', '직분'과 '예배참석 빈도' 그리고 '신앙의 정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그림] 코로나19 중 정부/지자체의 종교 관련 권고조치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000, %)



13) 코로나19 중 개신교에 대한 언론/여론 비판에 대한 의견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신교 교회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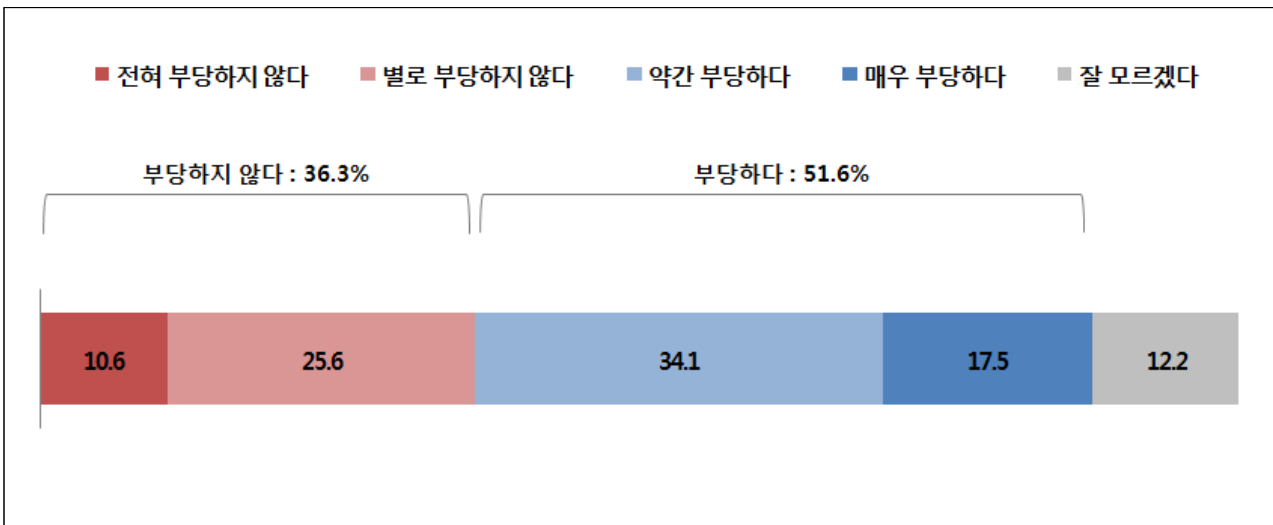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신교 교회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비판에 대해서는 51.6%가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부당하지 않다'는 비율은 36.3%임.

'부당하다'는 응답률은 중직자일수록, 예배참석빈도가 높을수록, 신앙의 정도가 깊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교인 수 500~999명'의 중형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코로나19 중 개신교에 대한 언론/여론 비판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000, %)



14) 출석교회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준수 사항

Q

귀하께서 출석하고 계신 교회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정부의 권고 지침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준수하고 있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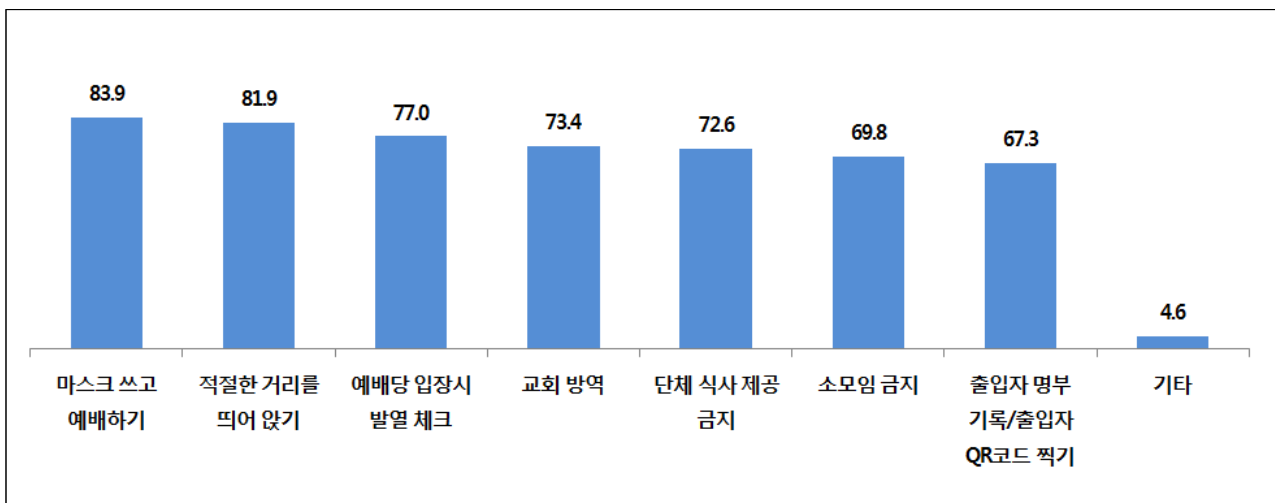


출석하는 교회에서 준수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권고 지침으로는 '마스크 쓰고 예배하기'와 '적절한 거리를 띄어 앉기'가 각각 83.9%, 81.9%로 나타났고, '예배당 입장 시 발열 체크', '교회 방역', '단체 식사 제공 금지'는 70%대 준수율, '소모임 금지', '출입자 명부 기록/출입자 QR코드 찍기'는 60%대 준수율을 보임.

전반적으로 '500~999명'의 중형 교회에서 각 지침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그림] 출석교회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준수 사항

(Base=전체, N=1000, %, 중복응답)



15) 코로나19 상황에서 출석교회가 한 사회적 행동

Q

코로나19 상황에서 귀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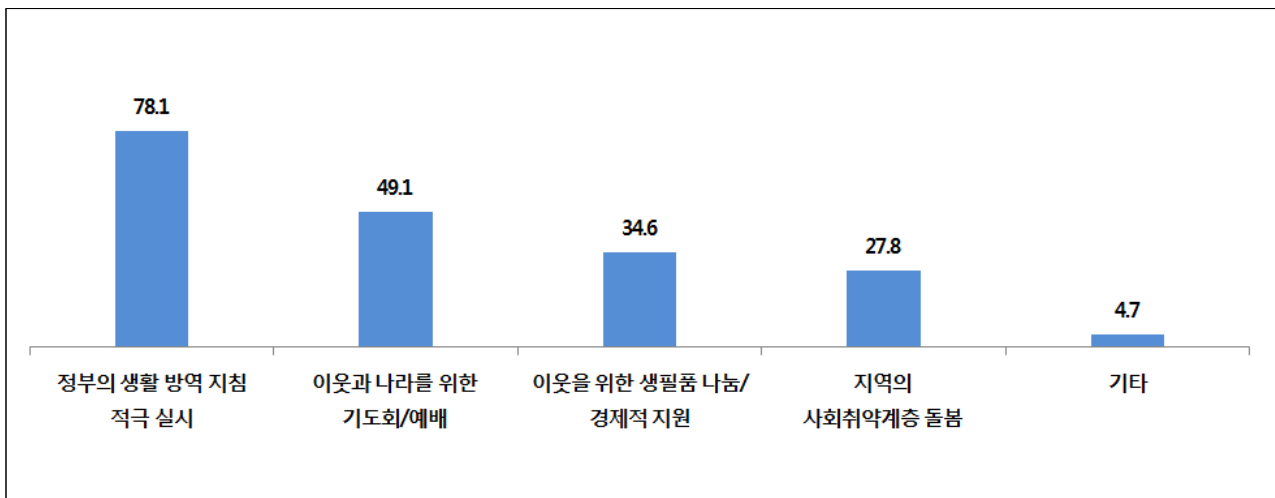
출석 교회가 코로나19 관련해서 행한 사회적 행동으로는 '정부의 생활 방역 지침 적극 실시'가 78.1%로 가장 많이 꼽힘.

그 다음으로 '이웃과 나라를 위한 기도회/예배' 49.1%, '이웃을 위한 생필품 나눔/경제적 지원' 34.6%, '지역의 사회취약계층 돌봄' 27.8% 등으로 나타남.

교인수 '500~999명'의 중형교회와 '1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에서 각 항목에 대한 실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코로나19 상황에서 출석교회가 한 사회적 행동

(Base=전체, N=1000, %, 중복응답)



부록 2. 설문지



주요 사회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사회여론조사 전문회사인 지앤컴리서치는 <한국인의 사회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오늘날 한국인들이 사회 이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자료로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해 보호되며 **특히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설문지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앤컴리서치 (Tel. 02-322-0720)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몇 세입니까? 만 ___세 --> 만 19세~만69세만 조사 대상임

SQ3.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단수)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세종)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SQ4.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단수) --> ③ 개신교만 조사 대상임.

- ① 불교 ② 원불교 ③ 기독교(개신교/성공회 포함) ④ 가톨릭
⑤ 천도교 ⑥ 민간신앙(무속신앙) ⑦ 이슬람교 ⑧ 기타 ⑨ 종교 없음

SQ5. 귀하께서는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단수)

- ① 한다 ② 안한다

I. 정치 분야

문1-1.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매우 보수적 ② 약간 보수적 ③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④ 약간 진보적 ⑤ 매우 진보적

문1-2.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더 커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부의 권한과 통제가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개인의 권리가 더 커진다 ② 정부의 권한과 통제가 더 강해진다 ③ 잘 모르겠다

문1-3. 귀하의 이익과 귀하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 상충되었을 때 귀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단수)

- ① 집단에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나의 이익을 추구한다.
② 집단에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나의 이익을 추구한다.
③ 나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
④ 나에게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

문1-4. 귀하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사건 이후 지금까지 촛불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참여 횟수를 써 주세요.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으면 '0'번이라고 써 주세요. _____ 번

문1-5. 귀하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사건 이후 지금까지 태극기부대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참여 횟수를 써 주세요.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으면 '0'번이라고 써 주세요. _____ 번

문2-2. 사람이 가난해지는 데에는 개인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개인의 책임이 크다 ② 사회의 책임이 크다 ③ 잘 모르겠다

문2-3. 다음 중에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3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3가지 중복 필수 응답)

- ① 자기 계발 ② 근면/성실한 노력 ③ 도덕성과 책임감 함양 ④ 재벌 개혁
⑤ 공평한 조세 제도 마련 ⑥ 복지정책 확대 ⑦ 비정규직 문제 해결 ⑧ 학력
⑨ 기타 _____

문2-4.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가 기본소득제도입니다. 한국사회에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매우 반대한다 ② 약간 반대한다 ③ 약간 찬성한다 ④ 매우 찬성한다 ⑤ 잘 모르겠다

문2-5. (문2-4에서 3번, 4번 응답자에게) 귀하께서 기본소득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 ①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②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③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④ 시장에서 활발하게 소비가 일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⑤ 기타 _____

문2-6.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명령금지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인해 경제활동이 줄어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더라도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두 가지 주장 가운데 현재 시점에서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경제 활성화 정책 ②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정책 ③ 잘 모르겠다

문2-7. 한국 정부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전염이 세계적으로 본격화하여 감지되기 시작한 지난 1월 중순에서 2월 사이에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귀하께서는 한국 정부의 이러한 초기 대응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매우 부적절하다 ② 약간 부적절하다 ③ 약간 적절하다 ④ 매우 적절하다 ⑤ 잘 모르겠다

문2-8. [문2-7번 설문에 1, 2로 답한 경우] 귀하께서는 왜 정부가 코로나 19 초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정부가 경제적 손실과 교역 악화를 우려해서
② 정부가 중국 등 주변국과의 정치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③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④ 기타 _____
⑤ 잘 모르겠다

문2-9. 올해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귀하께서는 남한과 북한의 평화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르겠다

문2-10. [문2-9에 3, 4로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 남한과 북한의 평화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 ① 남한의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 ② 남한의 안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 ③ 국제적인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 ④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 ⑤ 북한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 ⑥ 기타 _____

문2-11.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귀하께서는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 ②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 ③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④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⑤ 잘 모르겠다

문2-12. 귀하께서는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 제도를 위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부자 증세를 통해서
- ①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증세를 통해서
- ② 상품 가격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증세를 통해서
- ③ 종합부동산세 증세를 통해서
- ④ 모든 국민에게 같은 비율의 증세를 통해서
- ⑤ 어떤 증세 없이 현재의 세금 재원만으로도 충분하다.
- ⑥ 잘 모르겠다

문2-13.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의 소득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제보다는 고용보험에 가입 자격이 없어서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시-일용직 노동자 등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모든 노동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매우 반대한다
- ② 약간 반대한다
- ③ 약간 찬성한다
- ④ 매우 찬성한다
- ⑤ 잘 모르겠다

문2-14. 귀하께서는 전국민기본소득제도와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전국민기본소득
- ② 전국민고용보험
- ③ 어느 것도 도입되어서는 안 됨
- ④ 잘 모르겠다

문2-15. 귀하께서는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단수)

- ① 전혀 심하지 않다
- ② 별로 심하지 않다
- ③ 약간 심하다
- ④ 매우 심하다
- ⑤ 잘 모르겠다

III. 생태/환경분야

문3-1.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대기오염이 심할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③ 약간 동의한다
- ④ 매우 동의한다
- ⑤ 잘 모르겠다

문3-2. 귀하께서는 코로나 19의 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가운데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단수)

- ① 다른 질병처럼 우연히 발생한 자연 현상이다
- ②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해서 생기는 사회적 재난 현상이다

③ 잘 모르겠다

문3-3.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증가에 지구온난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약간 동의한다
④ 매우 동의한다 ⑤ 잘 모르겠다

문3-4.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지구온난화가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단수)

- ①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약간 동의한다
④ 매우 동의한다 ⑤ 잘 모르겠다

문3-5. [문3-4의 3, 4 응답자] 지구온난화가 완화될 것이라고 동의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 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공장의 생산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②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에
③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친환경적인 산업환경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④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강력해진 정부 주도로 친환경 정책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⑤ 기타 _____

문3-6. 귀하께서는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③ 약간 심각하다
④ 매우 심각하다 ⑤ 잘 모르겠다

문3-7. [문3-6에서 3,4로 답변한 경우에만] 귀하께서는 인류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이미 늦었다 ② 1년 미만 ③ 1~10년 ④ 11~30년
⑤ 31~50년 ⑥ 51년 이상 ⑦ 잘 모르겠다

문3-8.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석유와 석탄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하고 기업의 생산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 등 경제성장을 양보해야 하는 반면,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그만큼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귀하께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단수)

- ① 경제 성장을 위해서 지구온난화는 어느 정도 무시해도 된다
② 경제 성장이 안 되더라도 지구온난화를 우선 막아야 한다

문3-9. [문3-8번에서 보기 1로 답변한 경우에만] 귀하께서는 왜 '경제 성장'을 선택하셨습니까? (단수)

- ① 지구가 온난화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가짜 정보이므로
②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으므로
③ 가난의 문제가 지구온난화 문제보다 심각하므로
④ 기타 _____

문3-10. [문3-8번 문항에 보기 2로 답변한 경우에만] 귀하께서는 왜 '지구온난화를 우선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지금의 경제와 사회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②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지구와 인류의 파멸을 막을 수 있으므로
③ 지구온난화를 막는 것이 결국에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므로

④ 기타_____

문3-11. 귀하께서는 다음 중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단수)

- ①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
- ② 인간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
- ③ 하나님 앞에서 인간과 자연은 동등한 피조물이므로 자연도 인간과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갖는다.
- ④ 잘 모르겠다

문3-12. 귀하께서는 다음 중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단수)

- ①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 ② 에너지 절약
- ③ 과소비 절제
- ④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
- 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법 마련 및 시행
- ⑥ 기타_____

문3-13. 귀하께서는 교회가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지구온난화 극복에 관한 설교 및 교육 강화
- ② 에너지 절약 운동
- ③ 과소비 절제 운동
- ④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사회운동 참여
- 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운동하는 환경단체 후원
- ⑥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 각성 기도회
- ⑦ 기타_____

문3-14. (문3-13번 문항에서 4번으로 응답한 경우에만)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한 사회운동이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단수)

- ① 지구온난화 방지 국가 정책 수립 및 입법을 위한 시민사회운동
- ② 탄소 배출 저감 방안을 알리는 국민 계몽 운동
- ③ 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시민 감시 운동
- ④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금 마련 운동
- 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차원의 연대 운동
- ⑥ 기타_____

IV. 한반도 및 국제관계

문4-1. 귀하께서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③ 약간 심각하다
- ④ 매우 심각하다 ⑤ 잘 모르겠다

문4-2. 귀하께서는 요즘 코로나19 감염증에 내가 걸릴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을 얼마나 느끼십니까?(단수)

- ①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② 조금 걱정된다
- ③ 상당히 두려워한다 ④ 너무 두려워서 일상생활이 안된다

문4-3.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필수 선택) 1순위:____, 2순위:____

- ① 코로나19 바이러스 ② 경기 침체 ③ 안보/전쟁의 위협
- ④ 기후 위기 ⑤ 기타_____

문4-4. 귀하께서는 코로나19 대처능력과 관련하여 현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단수)

-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②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③ 약간 신뢰한다
- ④ 매우 신뢰한다 ⑤ 잘 모르겠다

문4-5. 귀하께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나라의 의료 및 방역 시스템에 대하여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단수)

- 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선진국보다 부족하다
- ② 선진국 수준과 비슷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 ③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선진국보다 우수하다
- ④ 잘 모르겠다

문4-6. 귀하께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우리나라의 위상을 매우 실추시켰다 ② 우리나라의 위상을 약간 실추시켰다
- ③ 우리나라의 위상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④ 우리나라의 위상을 약간 올렸다
- ⑤ 우리나라의 위상을 매우 올렸다 ⑥ 잘 모르겠다

문4-7. 귀하께서는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다음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대한민국 정부 주도의 질병관리가 중요하다
- ② 정부만의 노력으로 부족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 ③ 해외 석학 및 선진국의 대처 방식을 적극 배워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문4-8. 귀하께서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약간 필요하다
- ④ 매우 필요하다 ⑤ 잘 모르겠다

문4-9. 통일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깝습니까? (단수)

- ① 어떤 댓가(전쟁을 포함)를 치르더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
- ② 전쟁을 제외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
- ③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 ④ 통일을 하지 않은 현재 그대로가 좋다
- ⑤ 통일에 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문4-10.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문제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한 순서대로 3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3순위 필수응답)

1순위 ____ 2순위 ____ 3순위 ____

- ① 정기적인 남북회담 ② 군사적 긴장해소 ③ 남한에서 미군 철수
- ④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⑤ 북한의 개방과 개혁 ⑥ 북한의 인권 개선

- ⑦ 북한 비핵화
- ⑩ 남북한 경제협력

- ⑧ 인도적 대북지원
- ⑪ 평화협정 체결

- ⑨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 ⑫ 북미 정상회담

문4-11. 귀하께서는 현 정부의 통일 및 대북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매우 잘못하고 있다
- ② 약간 잘못하고 있다
- ③ 약간 잘하고 있다
- ④ 매우 잘하고 있다
- ⑤ 잘 모르겠다

문4-12. 지난 6월 초, 일부 대북단체들이 북한으로 김정인을 비난하는 전단지들 풍선에 달아 보내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단수)

- ① 매우 잘못된 일이다
- ② 약간 잘못된 일이다
- ③ 약간 잘한 일이다
- ④ 매우 잘한 일이다
- ⑤ 잘 모르겠다

문4-12-1. (문 4-12의 반대입장 1, 2번 체크 응답자에게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단수)

- ① 2018년 '판문점 남북공동선언'에 위배되므로
- ② 남북관계에 위화감 등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 ③ 자칫 국경지대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 ④ 현대사회에서 대북전단살포는 거의 효과가 없으므로
- ⑤ 북한주민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국내 극우세력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므로
- ⑥ 기타_____

문4-12-2. (문 4-12의 찬성입장 3, 4번 체크 응답자에게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단수)

- ① '판문점 선언'은 정부 간의 합의일 뿐 민간단체가 다 따라야하는 건 아니므로
- ②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 필요한 일이므로
- ③ 대북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 ④ 체제 경쟁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일이므로
- ⑤ 현 정권의 통일정책이 실패하고 있으므로
- ⑥ 기타_____

문4-13.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귀하의 입장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단수)

- ① 시민단체는 정부를 믿고 통일 및 대북정책에 잘 따라야 한다
- ② 정부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민간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③ 남북관계는 미국이나 중국 등의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민간단체는 나서지 말아야 한다
- ④ 기타_____

문4-14. 남북한 관계, 북미 관계가 활발했다가 현재는 모두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국제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남북협력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 ② 미국과 북한과의 사이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 ③ 미국과 공조하여 대북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
- ④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6자 회담을 통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 ⑤ 기타_____

V. 젠더 및 사회 취약계층

아래 문장을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5-1.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장에서의 감봉, 무급휴직, 실업에서 여성이 남성과 비교해 더 불리해졌다.(단수)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르겠다

문5-2.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 노인, 장애인을 돌보기 위한 여성의 가사 노동 부담이 더 커졌다.(단수)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르겠다

문5-3. (문5-2에서 3번과 4번 응답자에게) 가정 내 육아, 노인, 장애인 돌봄에 대해 어떤 대책이 더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아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센터와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
② 아이, 노인, 장애인을 돌봐 줄 도우미 같은 인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③ 아이, 노인, 장애인을 돌볼 돌보는데 필요한 비용을 가구별로 지원해야 한다
④ 아이, 노인, 장애인 돌보는데 들어가는 돌봄 비용에 대해 세금 감면 및 혜택이 더 확충되어야 한다.

문5-4.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 ① 나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염려된다
② 나의 확진으로 인해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걱정이다
③ 나의 확진으로 인해 내가 속한 모임, 직장 등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걱정이다
④ 나의 확진으로 나도 모르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걱정이다
⑤ 기타 _____

문5-5.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 감염 이후 동성애자에 대한 반감이 더 커졌다.(단수)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르겠다

문5-6. 신천지, 해외입국자, 이태원클럽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되었기에 이와 관련된 집단을 경계하고 혐오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단수)

- ① 전혀 경계하거나 혐오하지 않았다 ② 그렇게 경계하거나 혐오하지 않았다
③ 다소 경계하고 혐오했다 ④ 매우 경계하고 혐오했다.
⑤ 잘 모르겠다

문5-7.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과 외국인 및 성 소수자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불신과 경계' 극복 중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단수)

- 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특정 집단을 경계하고 불신하는 것은 당연하다
② 공공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특정 집단을 경계하고 불신해서는 안된다
③ 잘 모르겠다

문5-8. (SQ5에서 1번 응답자에게만 질문)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 내 노약자를 배려하는 예배, 마스크 배부 및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교회 밖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귀하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수)

- 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두 도움을 주었다
- ②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은 지원했지만, 교회 밖에는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 ③ 교회 안이나 교회 밖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두 도움을 주지 못했다
- ④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 ⑤ 잘 모르겠다.

다음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5-9.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화됐다. (단수)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르겠다

문5-10.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유학생, 난민,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의료, 복지, 재정 지원을 우리 국민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단수)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르겠다

문5-11. (문5-1에서 3번과 4번 응답자에게)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는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일자리와 임금 등 경제 회복이 이뤄질 것이다. (단수)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르겠다

문5-12. 귀하께서는 온라인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 및 콘텐츠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단수)

- ① 있다 ② 없다

문5-13. 현재 온라인 상의 성매매 및 성폭력(ex. N번방)이 이전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매매나 성폭력과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현장 성매매/성폭력보다 전혀 심하지 않다 ② 현장 성매매/성폭력보다 별로 심하지 않다
- ③ 현장 성매매/성폭력과 비슷하다 ④ 현장 성매매/성폭력보다 약간 심하다
- ⑤ 현장 성매매/성폭력보다 매우 심하다 ⑥ 잘 모르겠다

문5-14.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음란물 배포 등의 성폭력과 성착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순위 필수 응답) 1순위:____, 2순위:____, 3순위:____

- ① 비대면과 익명성 ② 음성적이고 지속적 활동 ③ 집단적 가해 행위
- ④ 음란 영상이나 채팅 기록 등 영구 삭제 불가능 ⑤ 대면하는 범죄와 달리 죄책감에 둔감함
- ⑥ 10대 청소년의 높은 참여도 ⑦ 스마트폰 게임 같은 쉬운 접근성
- ⑧ 언어 폭력, 성폭력 등 폭력의 일상화 ⑨ 인간을 성적 도구로 인식함
- ⑩ 성욕에 대한 자제력 없고 중독됨 ⑪ 성범죄 강도가 심화됨

문5-15. 최근 모 교단에서 목사가 동성애자에게 축복하는 일로 인해서 교단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축복은 목사의 권한이므로 누구를 축복하든 징계해서는 안된다.
- ② 축복은 목사의 권한이라도 하더라도 동성애자를 축복한 것은 잘못이므로 목사 자격은 유지하되 징계는 해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문6-7. 온전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활동을 하는 100% 온라인 교회에 다닐 의향이 있으십니까? (단수)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르겠다

문6-8. 코로나19 이후 주일 성수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단수)

- ①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
②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
③ 잘 모르겠다

문6-9. 코로나 19 상황에서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단수)

- ① 예배에 집중하는 것 ② 교역자와의 상담 및 소통 ③ 성도 간의 교제
④ 자녀(들)의 신앙교육 ⑤ 개인의 신앙성숙 ⑥ 교회에 자주 못가는 것
⑦ 기타(_____)

문6-10. 코로나 19 이후 교회가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단수)

- ① 목사님의 설교 ② 예전/예식의 강화 ③ 교인들의 교제 ④ 성도들의 지역 섬김
⑤ 전도/선교 ⑥ 온라인 시스템 구축/온라인 콘텐츠 개발 ⑦ 교회 공동체성 강화
⑧ 기타(_____)

문6-11. 코로나19 상황에서 귀하께서 집에서 하고 계신 신앙 생활이 있다면 다음 중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중복 응답 가능)

- ① 정기적인 개인 기도 (통성, 묵상 등) ② 정기적인 성경 묵상, 필사 또는 큐티
③ 주기적인 1인 예배 ④ 주기적인 가정 예배
⑤ 기타(_____)

문6-12. 다음 중 코로나19 이후 귀하의 신앙 생활과 관련하여 관심이 증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중복 응답 가능)

- ①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 ② 기독교 전통의 예전 ③ 성경공부/제자양육과 같은 종교 교육
④ 찬양 ⑤ 십자가나 성화와 같은 상징물들
⑥ 기타(_____)

문6-13. 코로나 19 상황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종교집회 자제 등의 권고조치를 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 침해로 여겨지십니까? (단수)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르겠다

문6-14.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신교 교회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수)

- ① 전혀 부당하지 않다 ② 별로 부당하지 않다 ③ 약간 부당하다
- ④ 매우 부당하다 ⑤ 잘 모르겠다

문6-15. 귀하께서 출석하고 계시는 교회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정부의 권고 지침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준수하고 있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중복응답가능)

- ① 교회 방역 ② 예배당 입장시 발열 체크 ③ 적절한 거리를 띄어 앉기
- ④ 마스크 쓰고 예배하기 ⑤ 소모임 금지 ⑥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⑦ 출입자 명부 기록/출입자 QR코드 찍기 ⑧ 기타(_____)

문6-16. 코로나19 상황에서 귀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중복응답 가능)

- ① 이웃과 나라를 위한 기도회/예배 ② 정부의 생활 방역 지침 적극 실시
- ③ 지역의 사회취약계층 돌봄 ④ 이웃을 위한 생필품 나눔/ 경제적 지원
- ⑤ 기타(_____)

※ 이제 통계 분석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DQ1. 귀하는 결혼(사실혼 포함)을 하셨습니까? (단수)

- ① 예 ② 아니오 ③ 기타(이혼,사별 등)

DQ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단수)

- ① 농업/임업/어업
- ② 자영업(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장사 및 가족종사자, 목공소 주인, 개인택시운전사 등)
- ③ 판매/서비스직(상점 점원, 세일즈맨 등)
- ④ 기능/숙련공(운전사, 선반, 목공 등 숙련공)
- ⑤ 일반작업직(토목 관계의 현장 작업, 청소, 수위 등)
- ⑥ 사무/기술직(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초.중.고 교사, 향해사 등)
- ⑦ 경영/관리직(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의 위치, 교장)
- ⑧ 전문/자유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종교인 등)
- ⑨ 전업주부 (주로 가사에만 종사하는 자) ⑩ 학생 ⑪ 무직 ⑫ 기타

DQ3. (DQ2의 1번, 3번~8번 응답자) 귀하의 고용 형태는 무엇입니까? (단수)

- ①정규직 ② 비정규직

DQ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단수)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재학/졸업 이상

DQ5. 실례지만 귀댁의 월평균 가구 실소득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귀댁의 구성원 모두의 수입 및 이자수입, 연금 등을 포함한 전체 가구소득을 말씀해 주십시오. (단수)

- ① 150만원 미만 ② 15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⑧ 700~800만원 미만

- ⑨ 800~900만원 미만 ⑩ 900~1000만원 미만 ⑪ 1000만원 이상

DQ6. 실례지만 귀댁의 자산은 어느 정도이신가요?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 (단수)

- ① 1억원 미만 ② 1억~3억원 미만 ③ 3억~5억원 미만 ④ 5억~7억원 미만
 ⑤ 7억~9억원 미만 ⑥ 9억~11억원 미만 ⑦ 11억~13억원 미만 ⑧ 13억원~15억원 미만
 ⑨ 15억원 이상

DQ7.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_____년

DQ8. 귀하께서는 코로나 이전에 공식적인 예배(새벽기도 포함)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십니까? (단수)

- ① 일주일에 7회 이상 ② 일주일에 3~6회 ③ 일주일에 1~2회 ④ 한 달에 1~3회
 ⑤ 6개월에 2~5회 ⑥ 1년에 1~3회 ⑦ 1년에 1회 미만 ⑧ 교회 안 나감

DQ9. 귀하께서는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신지요? (단수)

- ① 목사/신부 ② 전도사/강도사 ③ 장로 ④ 여성 권사 ⑤ 안수집사/남성 권사
 ⑥ 서리 집사 ⑦ 권찰 ⑧ 직분 없음

DQ10. 귀하께서 현재 출석하고 계신 교회의 교파는 무엇인가요? (단수)

- 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②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③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④ 대한예수교 장로회(개혁) ⑤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⑥ 대한예수교장로회(기타)
 ⑦ 한국기독교 장로회 ⑧ 기독교 대한 감리회 ⑨ 대한 기독교 성결교회
 ⑩ 기독교 한국 침례회 ⑪ 대한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순복음) ⑫ 대한성공회
 ⑬ 독립교단 ⑭ 기타 ⑮ 잘 모름

DQ11. 현재 출석하고 계신 교회의 성도 수는 대략 몇 명이나 되나요? (단수)

- ① 30명 미만 ② 30-49명 ③ 50-99명 ④ 100-299명
 ⑤ 300-499명 ⑥ 500-999명 ⑦ 1,000-2,999명 ⑧ 3,000명 이상

DQ12. 다음 항목은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계의 설명입니다. 귀하의 신앙은 다음 단계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단수)

	1단계: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단계: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다	3단계: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단계: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신앙 정도	①	②	③	④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